

#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2021. 04.

##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핑동,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 제 출 문

다음세대재단, 오픈소사이어티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연구책임자	김민수(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공동연구원	김종훈(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공동연구원	김경서(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공동연구원	정민석(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보미(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외부 연구원)

---



# 목차

<b>제1장 조사 개요</b> .....	3
1.1 배경 및 목적 .....	3
1.2 대상 및 범위 .....	4
1.3 내용 및 방법 .....	4
<b>제2장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 설문조사</b> .....	7
2.1 설문조사 개요 .....	7
2.2 인구학적 특성 .....	9
2.3 주거 실태 .....	23
2.3.1 주거 유형 .....	23
2.3.2 주거 환경 .....	30
2.4. 주거 부담 및 주거 마련 .....	40
2.4.1. 주거 부담 .....	40
2.4.2. 주거 선택 .....	44
2.5. 주거 불안 .....	47
2.6 주거 이력 및 주거 정책 .....	57
2.6.1 주거 이력 .....	57
2.6.2. 주거 정책 .....	64
<b>제3장 성소수자 주거 불안 면접조사</b> .....	71
3.1 면접조사 개요 .....	71
3.2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	74
3.2.1 집의 의미 .....	74
3.2.2 화목하고 따뜻한 집이라는 신화: 원가족 부모의 집의 경험 .....	75
3.2.3 독립의 경험과 나만의 공간 .....	79
3.2.4 주거 제도로부터 배제 .....	90
3.2.5 제자리가 없는, 제자리를 벗어난 ‘집’ .....	96
3.3 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 .....	97
3.3.1 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	97

3.2.2. 트랜스젠더의 주거불안 .....	108
3.4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주거 불안 .....	120
3.5 성소수자의 자리와 주거권의 요구 .....	129
3.5.1 성소수자에게 ‘집’의 의미 .....	129
3.5.2 성소수자 주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	133
<b>4장 요약 및 결론 .....</b>	<b>145</b>
<b>부록 .....</b>	<b>155</b>
설문지 .....	155

## 표목차

<표 1> 설문지 주요 내용	7
<표 2> 응답자 연령대	9
<표 3> 성정체성별 평균 연령	10
<표 4> 성정체성별 최종학력	10
<표 5> 직업	11
<표 6> 성정체성별 최종학력	12
<표 7> 성정체성별 월수입	13
<표 8> 거주 지역	14
<표 9> 성적지향	15
<표 10> 현재 법적 성별	16
<표 11>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	17
<표 12> 설문 문항 35번	18
<표 13> 성정체성	19
<표 14> 젠더 비순응도	20
<표 15> 월가족 부모 인지 여부	20
<표 16> 월가족 부모 제외한 가족 및 친척 인지 여부	21
<표 17>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인지 여부	22
<표 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23
<표 19> 주거 점유 형태	25
<표 20> 월세 보증금	27
<표 21> 월세 비용	27
<표 22> 가구 형태	28
<표 23> 다인 가구 가구원 수	29
<표 24> 성정체성별 가족 구성원 관계	30
<표 25> 성정체성별 전용 면적	31
<표 26> 성정체성별 방 개수	32
<표 27> 거주하는 층	32
<표 28> 주거 시설 유무	34
<표 29> 이웃과 교류 정도	36
<표 30>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1순위	37
<표 31>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2순위	38
<표 32>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1, 2순위 종합	39

<표 33> 주택 구입 대출 여부 .....	40
<표 34> 대출 비용 .....	41
<표 35> 대출 받은 곳 (다중응답) .....	42
<표 36> 월수입에서 주거비 비중 .....	43
<표 37> 성정체성별 주거비 부담 수준 .....	44
<표 38> 주거비 선택 시 고려 사항 (다중응답) .....	44
<표 39> 성정체성별 성소수자 공동체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	46
<표 40> 성소수자 지인 수 .....	46
<표 41> 성정체성별 주거 불편 경험 여부 .....	47
<표 42> 젠더 비순응에 따른 주거 불편 경험 여부 .....	48
<표 43> 거주지에서 불편한 경험 사례 (다중응답) .....	49
<표 44> 성정체성별 정주성 불안 여부 .....	52
<표 45> 성정체성별 정주성 불안 이유 (다중응답 교차분석) .....	53
<표 46> 집 계약 시 불편 여부 .....	53
<표 47> 성정체성별 임대차 계약 시 불편함 (다중응답 교차분석) .....	54
<표 48> 주거 관련 도움 받는 곳 (다중응답) .....	55
<표 49> 성정체성별 독립한 연령 .....	57
<표 50> 성정체성별 독립 이유 .....	58
<표 51> 현재 집이 처음 독립한 집인지 여부 .....	59
<표 52> 처음 독립한 집의 유형 .....	60
<표 53> 처음 독립한 집의 평수 .....	61
<표 54>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형태 .....	62
<표 55>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원 수 .....	62
<표 56> 처음 독립한 집의 구성원과 관계 (다중응답) .....	63
<표 57> 주거 이력 .....	64
<표 58> 주거 정책 이용 여부 .....	64
<표 59> 이용한 주거정책 종류 (다중응답) .....	65
<표 60> 주거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	66
<표 61> 성소수자 주거정책 필요 여부 .....	67
<표 62> 면접 대상자 특징 .....	71
<표 63> 심층면접 질문 내용 .....	73

## 그림목차

<그림 1> 응답자 연령대 .....	9
<그림 2> 직업 .....	12
<그림 3> 거주 지역 .....	15
<그림 4> 성적지향 .....	16
<그림 5> 법적 성별 .....	17
<그림 6>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 .....	18
<그림 7> 성정체성 .....	19
<그림 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	23
<그림 9> 20-30대(「인구총조사」) 대비 성소수자 20-30대 집의 종류 .....	24
<그림 10> 주거 점유 형태 .....	25
<그림 11> 수도권 거주 20-30대 대비 성소수자 주거 점유 형태 .....	26
<그림 12> 월세 보증금 현황 .....	27
<그림 13> 월세 비용 .....	28
<그림 14> 가구 형태 .....	29
<그림 15> 수도권 청년세대 대비 (반)지하/옥탑 거주 비율 .....	33
<그림 16> 주거 시설 만족도 .....	34
<그림 17> 주거 상태 불만족도 .....	35
<그림 18> 주변 환경 불편한 점 .....	36
<그림 19> 이웃과 교류 .....	37
<그림 20> 주택 구입 대출 여부 .....	40
<그림 21> 대출비용 .....	41
<그림 22> 대출 받은 곳 .....	42
<그림 23> 월 수입에서 주거비 비중 .....	43
<그림 24> 주거 선택 시 고려 사항 .....	45
<그림 25> 집 계약 시 불편 여부 .....	54
<그림 26> 주거 관련 도움 받는 곳 .....	56
<그림 27>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평균 나이 .....	57
<그림 28> 현재 집이 처음 독립한 집인지 여부 .....	59
<그림 29>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집의 거주 유형 .....	60
<그림 30> 처음 독립한 집의 평수 .....	61
<그림 31>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형태 .....	62
<그림 32>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집의 가구 구성원 비교 .....	63

<그림 33> 주거정책 이용 여부 .....	64
<그림 34> 이용한 주거정책 종류 .....	65
<그림 35> 주거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	66
<그림 36> 성소수자 주거정책 필요 여부 .....	67

# 1장

## 조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대상 및 범위

1.3 내용 및 방법



# 제1장 조사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최근 방문(2018년 5월 14일)한 UN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의 주거권 실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성소수자들의 주거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한 생존 파트너는 자신의 임차권에 대한 승계권을 가질 수 없는 점,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달라 주택 임차에 어려움을 겪는 점,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지정성별로 분리된 쉼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지적<sup>1)</sup>했다.
  - 또한 국내 주택 정책은 이성애적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세대'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성소수자들의 동반자 관계나 비혈연 공동체들은 철저하게 주택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 그렇지만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항하는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재생산하는 주거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탈가정 청소년과 트랜스젠더 등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권 문제가 반차별 운동 내에서 흐려지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 성소수자들이 더욱 평등한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주거 불안정과 취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에 따라 나타나는 주거 취약성의 실태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고 이들의 주거 실태를 다룬 조사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성소수자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성소수자들의 주거권 문제를 공론장에 이입하고, 이들의 주거권 논쟁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또한 제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기회와 장을 통해 반차별 운동의 주요한 요소로 성소수자 주거권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1) 최한별, '유엔특보, 한국 주거 정책 '인권 기준 미달' 우려', <비마이너>, 2018. 5. 24.

2)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집은 인권이다』, 이후, 2010.

## 1.2 대상 및 범위

###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원가족 부모의 집으로부터 독립한 성소수자로, 10년 내 주로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 10년 내에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주거 불안의 맥락과 교차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 ■ 시간적 범위

- 본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되었다. 조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 1시기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성소수자 주거 불안 설문지를 구성하고 제작했다.
- 이 시기 성소수자 주거불안 설문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고찰과 자문 등을 진행했다. 설문 제작에 많은 시간을 투여한 이유는 국내에서 아직 성소수자 주거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가 없어 내용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 또한 사전 조사 결과 성소수자들의 경험하는 주거 불안이 주로 외부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불편과 스트레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감정적 차원의 불안을 적절히 짚어낼 수 있는 문항 구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2시기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 3시기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성소수자 1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은 주거 불안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 1.3 내용 및 방법

- 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sup>3)</sup> 설문조사는 성소수자가 겪는 주거 불안을 중심으로 주거 현황, 이웃관계, 주거 부담, 이주 경력, 주거 정책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으로 온라인 서베이로만 설문을 진행했고, 총 949명의 성소수자들이 참여했다.
- 면접조사는 인터뷰이들이 경험한 주거 불안을 중심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환경, 주거 부담, 주거 이력, 주거 정책, '집'의 의미, 향후 주거 전망 등 주거 관련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3) 각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각장의 조사 개요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 2장

##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 설문조사

- 2.1 설문조사 개요
- 2.2 인구학적 특성
- 2.3 주거 실태
- 2.4 주거 부담 및 주거 선택
- 2.5 주거 불안
- 2.6 주거 이력 및 주거 정책



## 제2장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 설문조사

### 2.1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을 조사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본 조사는 국내 성소수자의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던 성소수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

#### ■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성소수자의 주거 현황, 주거 불안, 주거 선택, 주거 이력, 그리고 주거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주거 현황은 주거 유형(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보증금 및 임대료, 가구 형태 등), 주거 환경(전용 면적, 방의 개수, 주거 시설, 주거 상태, 주변 환경 등), 이웃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주거 불안은 주거 부담(주택 관련 대출비용, 주거비 비중,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성정체성으로 인한 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 정주환경의 안정성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주거 선택은 주거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성소수자 공동체가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주거 이력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이유, 처음 독립한 집의 유형(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가구 형태 등), 독립한 기간, 이사 횟수,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주거 정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문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주거 현황	- 주거 종류, 점유 형태, 보증금 및 임대료, 가구 형태 등
주거 불안	- 주거 부담(대출 비용, 주거비 비중, 주거비 부담 수준 등) - 주거 불안(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 정주환경 안정성 등)
주거 선택	- 주거 선택 시 고려 사항, 성소수자 공동체와 주거 선택
주거 이력	- 독립 이유, 처음 독립한 집의 유형, 이사 횟수, 독립한 기간 등
주거 정책	- 이용하고 있는 주거 정책 종류, 필요한 주거 정책 등

## ■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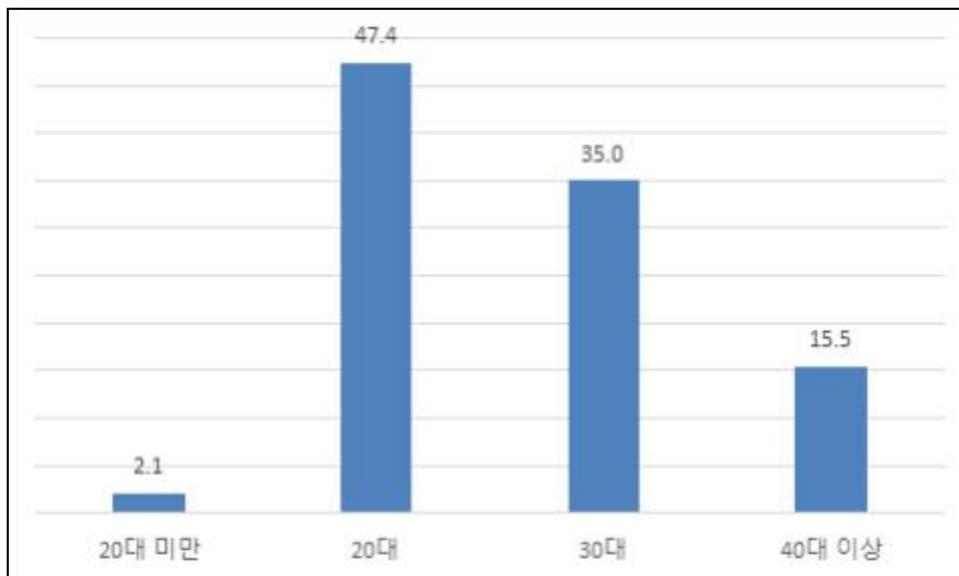
-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이 되었다. 애초의 계획은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의 병행이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조사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 설문은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성소수자 조직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홍보를 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1회차 조사는 2020년 12월 2일부터 ~ 12월 20일, 2회차 조사는 2021년 1월 4일부터 ~ 1월 17일까지 진행을 하였다.
  - 설문을 2회에 걸쳐 진행한 이유는 트랜스젠더의 참여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1회 설문조사 종료 후 트랜스젠더 참여자가 너무 낮아 트랜스젠더만 대상으로 설문을 한 회 더 진행을 했다. 트랜스젠더 조직과 모임에 협조를 얻어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홍보를 하며 진행을 하였다.
- 설문은 총 949명의 성소수자들이 참여를 했다. 시스젠더 여성은 235명, 시스젠더 남성은 507명, 트랜스젠더 82명,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124명이다.
- 설문 분석은 SPSS 23.0을 사용했으며,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문항 성격에 따라 성정체성별로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진행했다.
  - 독립변수를 성정체성으로 한정 한 이유는 성소수자 내에서도 성정체성에 따라 주거 불안을 겪는 양상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설문 분석을 했을 때, 성적지향이나 젠더 비순응 등 여타 변수보다 성정체성에 따라 결과 값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 2.2 인구학적 특성

### ■ 응답자 연령

<표 2> 응답자 연령대

항목	빈도	퍼센트
20대 미만	20	2.1
20대	450	47.4
30대	332	35.0
40대 이상	147	15.5
전체	949	100.0



<그림 1> 응답자 연령대 (단위: %)

-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가 35.0%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이 82.4%에 이를 정도로 응답자의 주요 연령대가 20~30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연령의 편중은 이 설문조사가 무작위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많은 20-30대가 주로 설문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성정체성별 평균 연령

항목	빈도	평균 연령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4	27.08
시스젠더 여성	236	28.14
트랜스젠더	82	29.00
시스젠더 남성	507	34.08
전체	949	31.25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25세고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평균 27.08세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시스젠더 여성이 28.14세로 낮았다. 시스젠더 남성의 평균 연령이 34.08세로 가장 높았으며, 트랜스젠더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나타났다.

■ 학력

<표 4> 성정체성별 최종학력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합계
학력 없음	0 0.0%	0 0.0%	1 1.2%	0 0.0%	1 0.1%
초등학교 졸업	0 0.0%	1 .2%	1 1.2%	0 0.0%	2 0.2%
중학교 졸업	0 0.0%	6 1.2%	0 0.0%	0 0.0%	6 0.6%
고등학교 졸업	18 7.7%	92 18.1%	30 36.6%	29 23.4%	169 17.8%
대학 재학	50 21.3%	51 10.1%	15 18.3%	32 25.8%	148 15.6%
대학 졸업	106 45.1%	274 54.0%	24 29.3%	42 33.9%	446 47.0%
대학원 재학 이상	61 26.0%	83 16.4%	11 13.4%	21 16.9%	176 18.6%
전체	235 100.0%	507 100.0%	82 100.0%	124 100.0%	948 100.0%

○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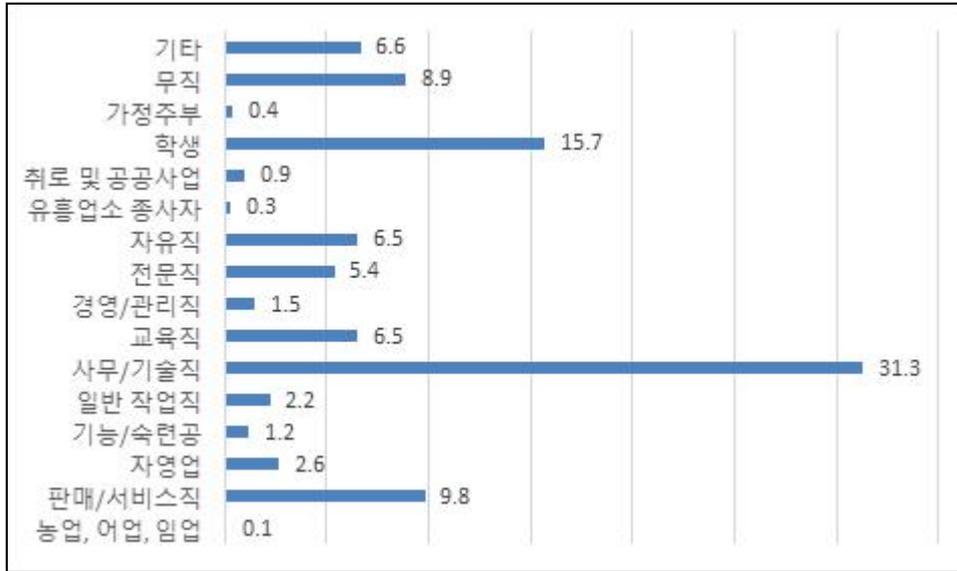
이 18.6%, 고졸이 17.8%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트랜스젠더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대학 재학,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각각 92.3%와 80.5%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었고,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역시 대학 이상의 학력이 76.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트랜스젠더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이 61.0%로 위의 집단보다 학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졸이 36.6%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직업

<표 5> 직업

항목	빈도	퍼센트
농업, 어업, 임업(가족종사자 포함)	1	0.1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93	9.8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 장사 및 가족 종사자, 개인택시 운전자 등)	25	2.6
기능/숙련공(운전자, 선반, 목공 등 숙련공)	11	1.2
일반 작업직(배달, 청소, 수위, 토목 관계 현장작업)	21	2.2
사무/기술직(회사 사무직, 기술직 등)	297	31.3
교육직(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대학 강사 등)	62	6.5
경영/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14	1.5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51	5.4
자유직(예술가, 연예산업 종사자 등)	62	6.5
유흥업소 종사자	3	0.3
취로 및 공공사업	9	0.9
학생	149	15.7
가정주부	4	0.4
무직	84	8.9
기타	63	6.6
전체	949	100.0



<그림 2> 직업 (단위: %)

○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기술직이 31.3%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5.7%, 판매/서비스직이 9.8%, 무직이 8.9%로 나타났다.

### ■ 일자리 유형

<표 6> 성정체성별 최종학력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정규직	108	268	25	32	433
	62.8%	67.2%	42.4%	39.5%	60.9%
비정규직	55	110	30	39	234
	32.0%	27.6%	50.8%	48.1%	32.9%
기타	9	21	4	10	44
	5.2%	5.3%	6.8%	12.3%	6.2%
전체	172	399	59	81	711
	100.0%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의 60.9%는 정규직, 32.9%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에 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스젠더의 여성과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62.8%와 67.2%인데 반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각각 42.4%와 39.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비정규직의 비율은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각각 32.0%와 27.6%인데 반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각각 50.8%와 48.1%로 높게 나타났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비정규직 비율은 2020년 현재 국내 비정규직 비율 36.3%<sup>4)</sup>보다 높은 수치다.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원적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직업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월수입

<표 7> 성정체성별 월수입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100만 원 미만	56	91	25	50	222
	23.8%	17.9%	30.5%	40.3%	23.4%
100만 원 대	81	127	24	41	273
	34.5%	25.0%	29.3%	33.1%	28.8%
200만 원 대	72	152	25	27	276
	30.6%	30.0%	30.5%	21.8%	29.1%
300만 원 대	17	81	6	1	105
	7.2%	16.0%	7.3%	0.8%	11.1%
400만 원 대	3	28	1	2	34
	1.3%	5.5%	1.2%	1.6%	3.6%
500만 원 이상	6	28	1	3	38
	2.6%	5.5%	1.2%	2.4%	4.0%
전체	235	507	82	124	948
	100.0%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들의 세후 월수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200만 원 대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만 원 대 28.8%, 100만 원 미만이 23.4% 순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확인하면 집단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시스젠더 남성의 월수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수입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200만 원 대가 30.0%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 대가 25.0%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 원 미만이 17.9%, 300만 원 대는 16.0%로 나

4) 출처: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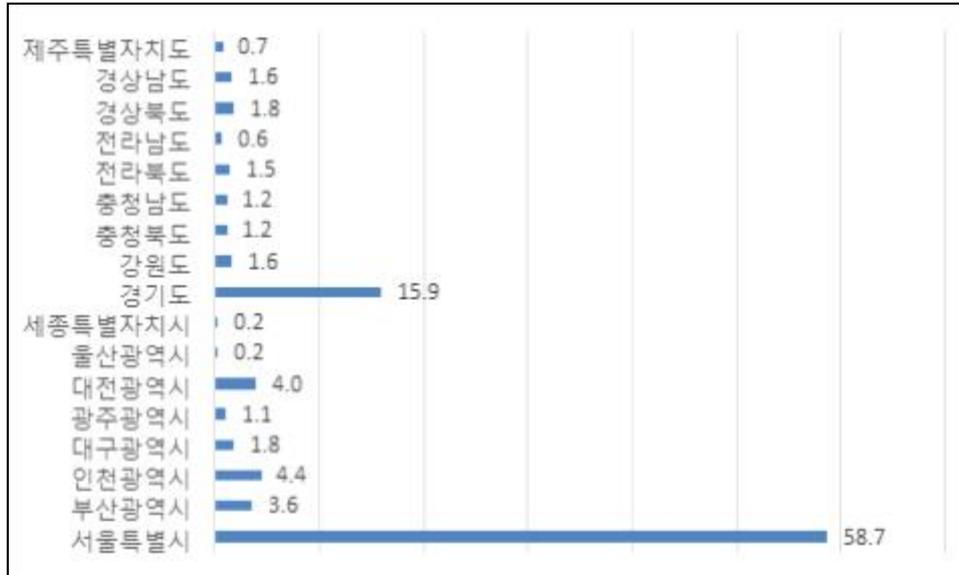
타났다.

-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시스젠더 남성과 비슷하게 200만 원 대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만원 대 34.5%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 비율 역시 23.8%로 높게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의 월수입(11.1%) 역시 남성(27.0)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시스젠더 여성보다 월수입이 더 적게 나타났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200만 원 대 월수입은 30.5%로 시스젠더 여성, 남성과 비슷하지만,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30.5%로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월수입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다른 집단과 다르게 4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0만 원 대가 33.1%, 200만 원 대가 21.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100만 원 대 미만의 월수입이 77.4%에 이르고 있다.

## ■ 거주 지역

<표 8> 거주 지역

항목	빈도	퍼센트
서울특별시	557	58.7
부산광역시	34	3.6
인천광역시	42	4.4
대구광역시	17	1.8
광주광역시	10	1.1
대전광역시	38	4.0
울산광역시	2	0.2
세종특별자치시	2	0.2
경기도	151	15.9
강원도	15	1.6
충청북도	11	1.2
충청남도	11	1.2
전라북도	14	1.5
전라남도	6	0.6
경상북도	17	1.8
경상남도	15	1.6
제주특별자치도	7	0.7
전체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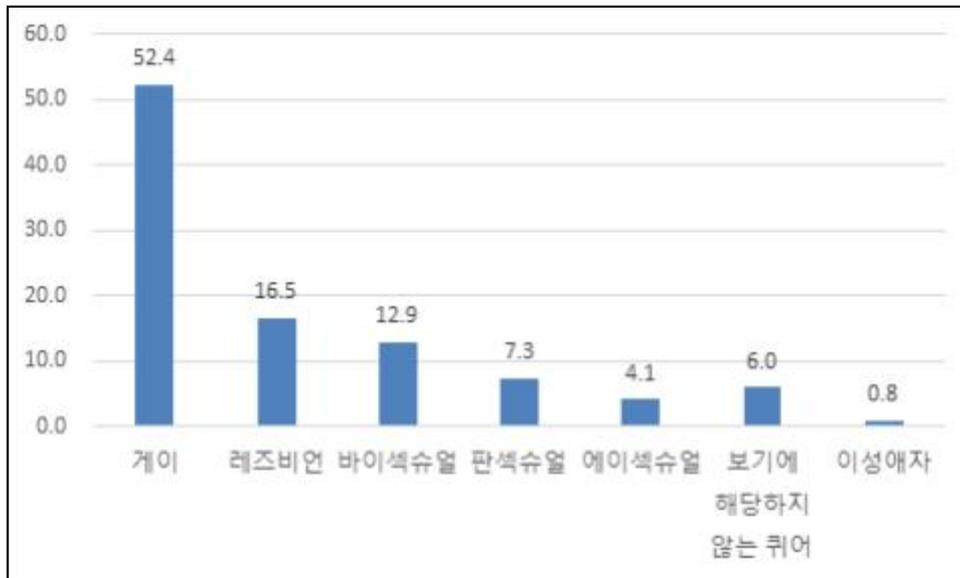
<그림 3> 거주 지역 (단위: %)

- 응답자들이 현재 사는 지역은 서울이 58.7%로, 과반수가 서울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경기도가 15.9%, 인천이 4.4%, 대전이 4.0%로 나타났다.
-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응답자의 79.0%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성적지향

<표 9> 성적지향

항목	빈도	퍼센트
게이	497	52.4
레즈비언	157	16.5
바이섹슈얼	122	12.9
판섹슈얼	69	7.3
에이섹슈얼	39	4.1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퀴어	57	6.0
이성애자	8	0.8
전체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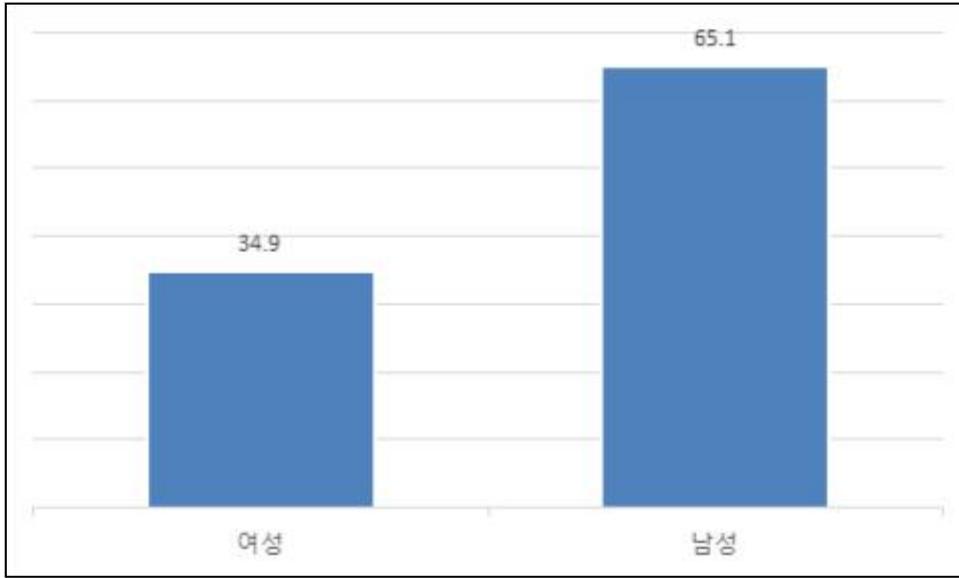
<그림 4> 성적지향 (단위: %)

- 응답자들의 성적지향으로 살펴보면, 게이가 52.4%, 레즈비언이 16.5%, 바이섹슈얼(양성애자), 12.9%, 판섹슈얼(범성애자) 7.3%, 에이섹슈얼(무성애자) 4.1, 이성애자 0.8, 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퀴어 6.0%로 나타났다.
- 게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시스젠더 남성의 참여 비율이 55.5%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 성별

<표 10> 현재 법적 성별

항목	빈도	퍼센트
여성	331	34.9
남성	618	65.1
전체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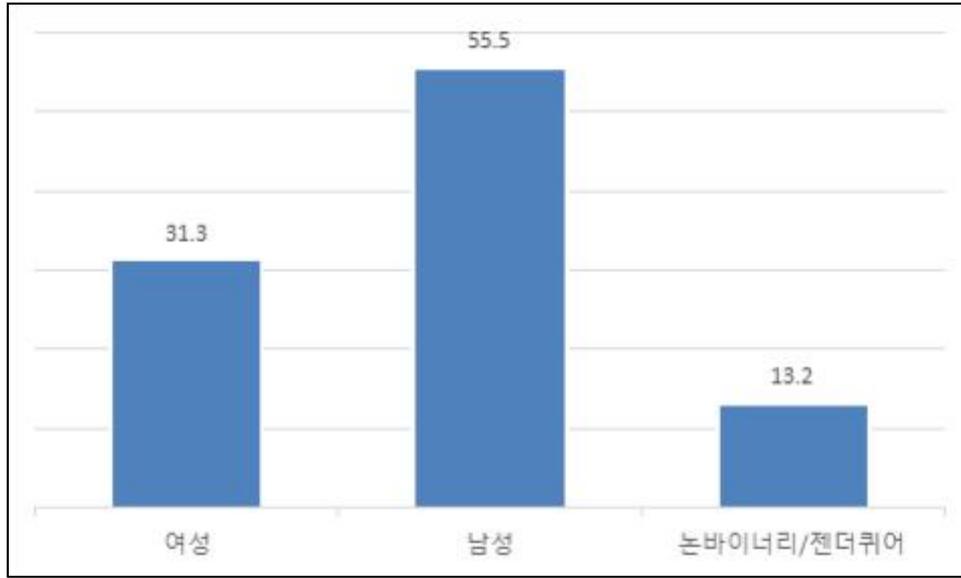


<그림 5> 법적 성별 (단위: %)

○ 현재 법적 성별을 질문했을 때, 65.1%가 남성, 34.9%가 여성으로 응답했다.

<표 11>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

항목	빈도	퍼센트
여성	297	31.3
남성	527	55.5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5	13.2
전체	949	100.0



<그림 6>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 (단위: %)

-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을 물었을 때, 55.5%는 남성, 31.3%는 여성, 13.2%는 논바이너리/젠더퀴어라고 답했다.

### ■ 성정체성

- 응답자의 성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 35-1번의 ‘출생 시 법적 성별’, 35-2번의 ‘현재 법적 성별’, 35-3번의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 자료를 활용했다.

<표 12> 설문 문항 3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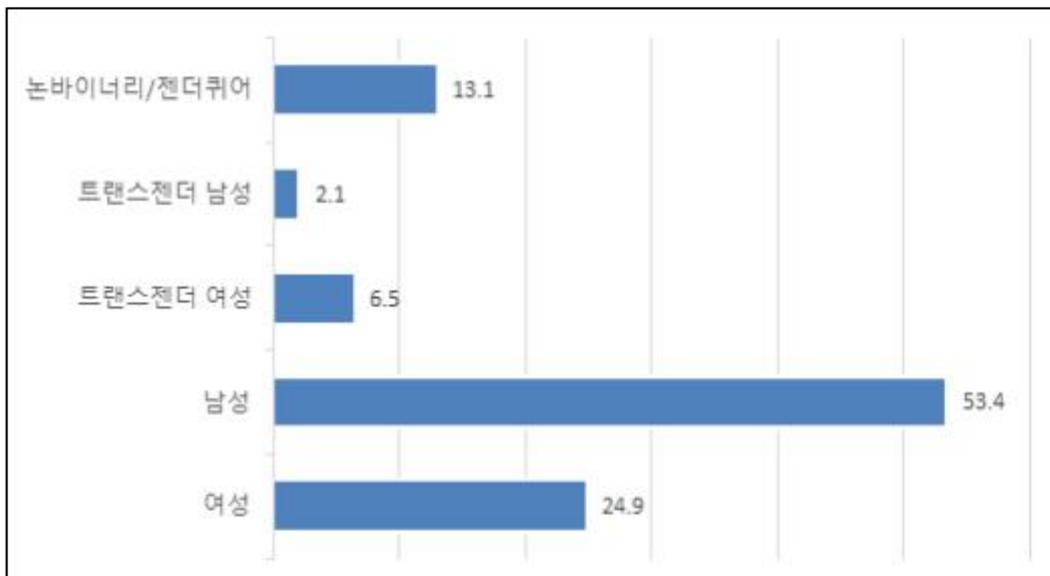
내용	항목		
1) 출생 시 법적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현재 법적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논바이너리/젠더퀴어

- ‘출생 시 법적 성별’과 ‘현재 법적 성별’, 그리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여성과 남성으로 각각 일치하면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으로 리코딩을 했으며, ‘출생 시 법적 성별’과 ‘현재 법적 성별’, 그리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의 여성과 남성 항목이 불일치하면 트랜스젠더로 리코딩을 했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에서 논바이너리/젠더퀴어 항목을 선택

한 응답자로 분류했다.

<표 13> 성정체성

항목	빈도	퍼센트
시스젠더 여성	235	24.8
시스젠더 남성	507	53.5
트랜스젠더 여성(MTF)	62	6.5
트랜스젠더 남성(FTM)	20	2.1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4	13.1
전체	948	100.0



<그림 7> 성정체성 (단위: %)

- 결과를 살펴보면 시스젠더 남성이 53.4%, 시스젠더 여성이 24.9%, 트랜스젠더가 8.3%(MTF 6.5%, FTM 2.1),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13.1%로 나타났다.

### ■ 젠더 비순응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이외에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젠더 비순응을 알아보았다.
  - 여기서 젠더 비순응이란 사회적으로 지정된 성별 이분법(남성, 여성)에 맞지 않거나 이 이분법과 다른 정체화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 지정된 성에 순응하지 않은 정체화를 했기 때문에 젠더 비순응 범주에 포함된다.

-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경우 젠더 순응과 비순응이 나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별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젠더 순응,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젠더 비순응으로 범주화했다.

<표 14> 젠더 비순응도

항목		빈도	퍼센트
시스젠더 여성	일치(젠더 순응)	188	83.9%
	불일치(젠더 비순응)	48	16.1%
	소계	236	100.0%
시스젠더 남성	일치(젠더 순응)	463	95.1%
	불일치(젠더 비순응)	44	4.9%
	소계	507	100.0%
트랜스젠더		85	100.0%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4	100.0%
전체		949	100.0

- 조사 결과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젠더 순응 비율은 83.9%, 비순응의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젠더 순응 비율이 95.1%, 비순응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 가족, 지인 성소수자 인지 여부

<표 15> 원가족 부모 인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어머니	알고 있다	304	32.0
	모른다	584	61.5
	해당 사항 없음 (부모님의 사망 등)	61	6.4
	전체	949	100.0
아버지	알고 있다	185	19.5
	모른다	625	65.9
	해당 사항 없음 (부모님의 사망 등)	139	14.6
	전체	949	100.0

- 어머니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는 ‘모른다’라고 답했으며, 32.0%는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6.4%는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버지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라는 비율이 65.9%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의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14.6%로 조사됐다.

<표 16> 원가족 부모 제외한 가족 및 친척 인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부모님 제외 가족	모두 알고 있다	227	23.9
	대부분 알고 있다	62	6.5
	일부 알고 있다	110	11.6
	전혀 모른다	492	51.8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 제외한 가족 없음)	58	6.1
	전체	949	100.0
친척	모두 알고 있다	9	0.9
	대부분 알고 있다	26	2.7
	일부 알고 있다	120	12.6
	전혀 모른다	771	81.2
	해당사항 없음(친척 없음)	23	2.4
	전체	949	100.0

- 부모님을 제외한 형제, 자매, 남매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혀 모른다’라는 비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두 알고 있다’라는 23.9%, ‘일부 알고 있다’는 11.6%, ‘대부분 알고 있다’는 6.5%로 나타났다.
- 친척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81.2%는 ‘모른다’라고 답했고, 12.6%는 ‘일부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대부분 알고 있다’와 ‘모두 알고 있다’라는 비율은 각각 2.7%와 0.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7>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인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모두 알고 있다	54	5.7
	대부분 알고 있다	191	20.1
	일부 알고 있다	429	45.2
	전혀 모른다	266	28.0
	해당사항 없음 (비성소수자 지인 없음)	9	0.9
	전체	949	100.0
성소수자 친구, 동료	모두 알고 있다	559	58.9
	대부분 알고 있다	196	20.7
	일부 알고 있다	117	12.3
	전혀 모른다	49	5.2
	해당사항 없음 (성소수자 지인 없음)	28	3.0
	전체	949	100.0

- 비성소수자 지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5.2%는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28.0%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20.1%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5.7%는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성소수자 지인들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는 질문에, 58.9%는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20.7%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알고 있다’는 12.3%, ‘전혀 모른다’는 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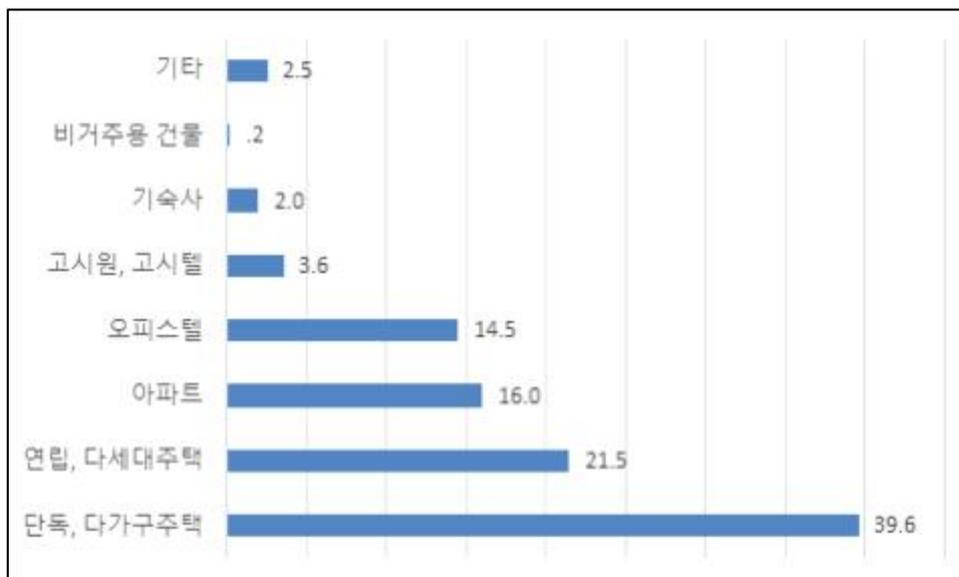
## 2.3 주거 실태

### 2.3.1 주거 유형

####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표 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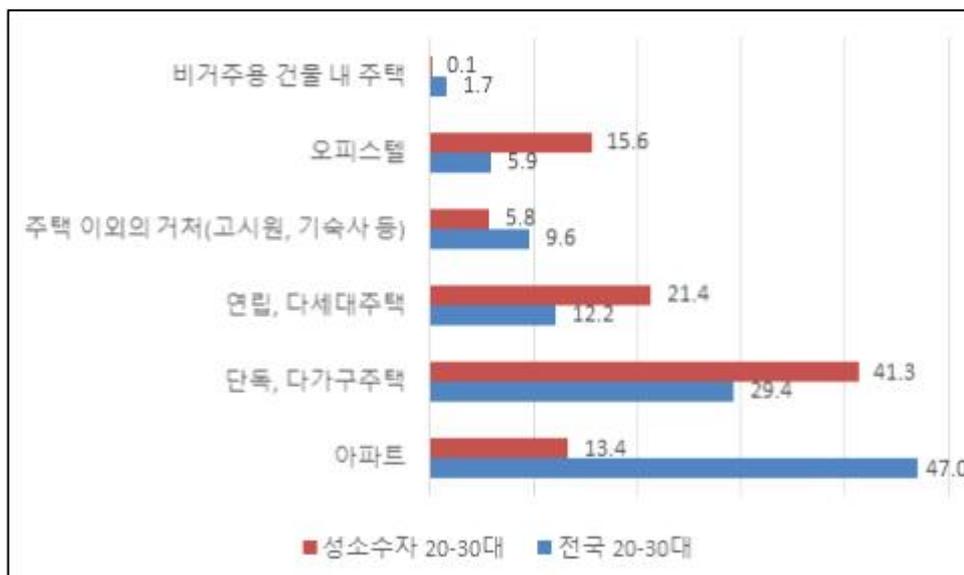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단독, 다가구주택	376	39.6
연립, 다세대주택	204	21.5
아파트	152	16.0
오피스텔	138	14.5
고시원, 고시텔	34	3.6
기숙사	19	2.0
비거주용 건물	2	0.2
기타	24	2.5
전체	949	100.0



<그림 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단위: %)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독/다가구주택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이 21.5%, 오피스텔 14.5%, 아파트 16.0%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를 보면 국내 가구의 51.1%는 아파트, 31.0%는 단독/다가구주택, 11.5%는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응답자의 연령대(20-30대)와 지역(수도권) 쏠림으로 인구총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낮고,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본 설문조사의 결과와 인구총조사의 연령을 20-30대로 통제하여 비교를 해봤다.
  - 설문응답자의 20-30대(N=789)의 경우 41.3%는 단독/다가구 주택, 21.4%가 연립/다세대주택, 15.6%가 오피스텔, 그리고 13.4%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인구총조사」의 20-30대는 아파트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다가구주택이 29.4%, 연립/다세대주택이 12.2%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1/2이상 낮으며, 단독/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아파트 거주비율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들이 제도적으로 파트너와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해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 후술하겠지만 설문응답자의 1인 가구의 비율은 51.1%로 2019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30.2%보다 약 20% 높다.



<그림 9> 20-30대(「인구총조사」) 대비 성소수자 20-30대 집의 종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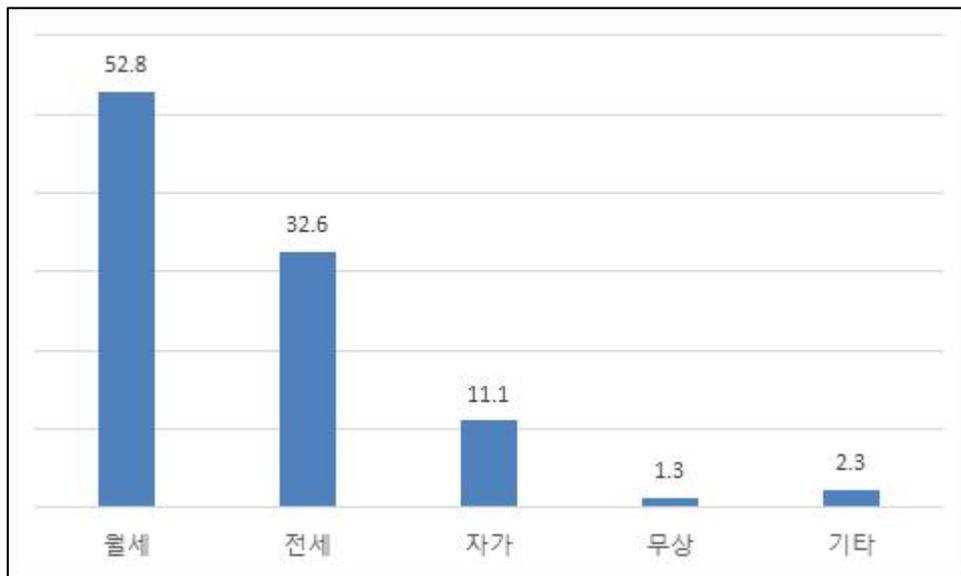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2019 인구총조사, 가구의 연령 및 거처의 종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3))

■ 주거 점유 형태

<표 19> 주거 점유 형태

항목	빈도	퍼센트
월세	501	52.8
전세	309	32.6
자가	105	11.1
무상	12	1.3
기타	22	2.3
전체	9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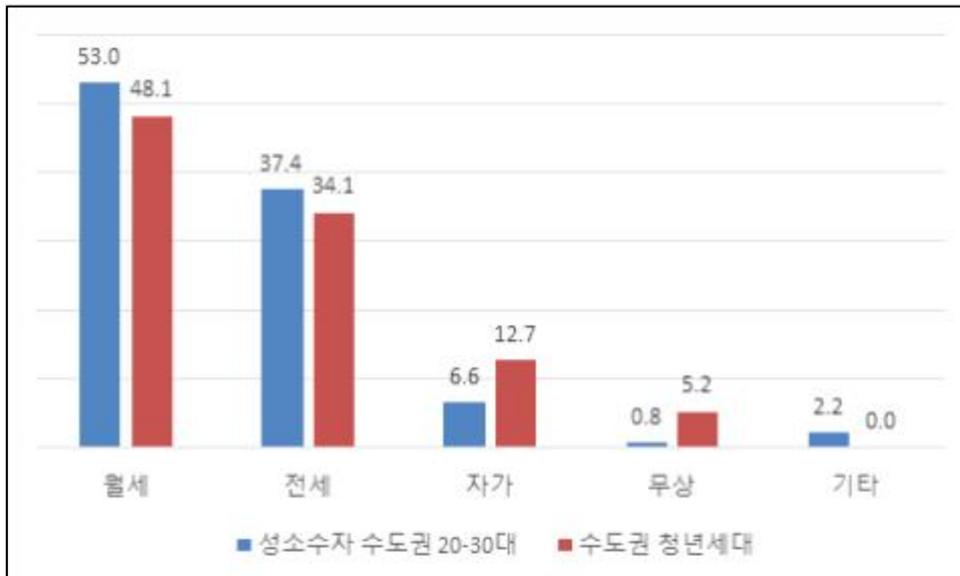


<그림 10>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 설응답자들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세가 32.6%, 자가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현황과 비교를 위해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았다.
  -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7%, 전세 15.2%, 월세 23.3%, 무상 3.9%로 나타났다.
  - 이를 본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본 조사의 응답자 경우 자가 비율이 주거실태조사 대비 약 1/5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세 비율 역시 약 1/3, 그리고 월세 비율 역시 약 1/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러나 이 비교 역시 본 설문조사의 연령대와 지역 쏠림으로 정확성이 떨어진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령과 지역을 통제하며 비교를 해보았다. 연령대를

20-30대로 통제하고,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응답자(N=625)의 경우 월세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가 37.4%로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 6.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월세가 48.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세가 34.1%, 자가 12.7%로 나타났다.
-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다른 수치들의 비해 성소수자들의 자가 비율이 약 1/2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의 자가 비율이 낮고,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주거 불안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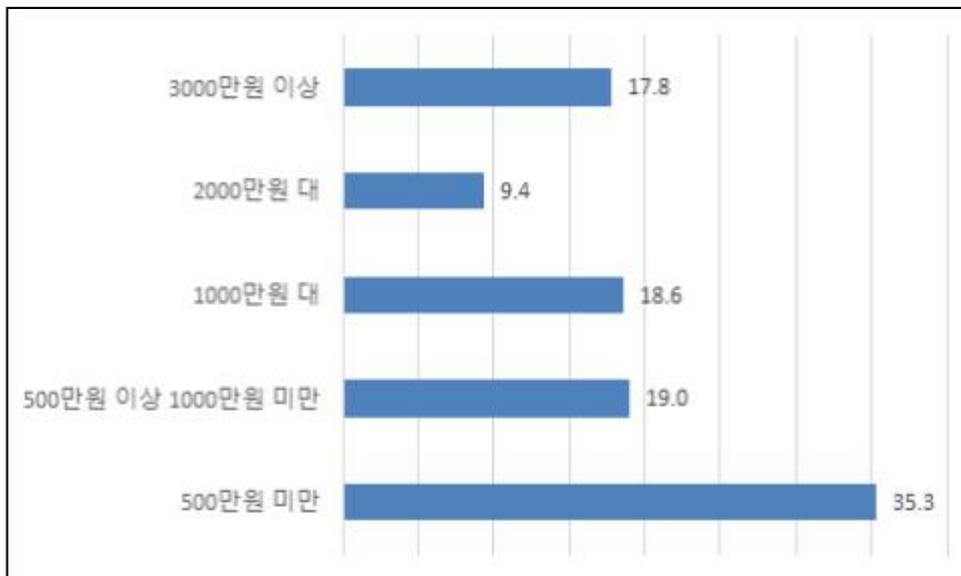
<그림 11> 수도권 거주 20-30대 대비 성소수자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

### ■ 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

-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살펴보면, 500만 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9.9%, 1,000만 원 대가 18.6%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2,000만 원 이상의 월세 보증금은 27.2%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20> 월세 보증금

항목	빈도	퍼센트
500만 원 미만	177	35.3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95	19.0
1000만 원 대	93	18.6
2000만 원 대	47	9.4
3000만 원 이상	89	17.8
전체	5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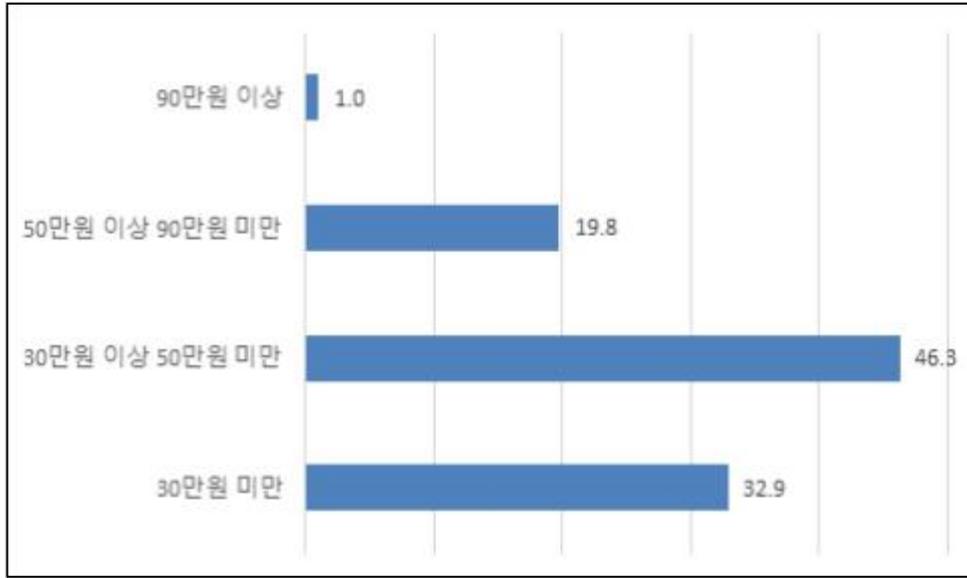


<그림 12> 월세 보증금 현황 (단위: %)

■ 월세 현황

<표 21> 월세 비용

항목	빈도	퍼센트
30만 원 미만	165	32.9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232	46.3
5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99	19.8
90만 원 이상	5	1.0
전체	501	100.0



<그림 13> 월세 비용 (단위: %)

- 월세의 경우 50만 원 미만이 79.2%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5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50만 원 이상 내는 응답자의 비율은 20.8%에 머물렀다.
  - 후술하겠지만 설문응답자의 70.1%가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응답자의 많은 수가 15평 미만의 집에서 월세 50만원 미만을 내며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가구 형태

<표 22> 가구 형태

항목	빈도	퍼센트
1인 가구	677	71.3
다인 가구	272	28.7
전체	949	100.0

- 응답자의 가구 형태는 71.3%가 1인 가구, 28.7%가 다인 가구로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은 30.2%다.
  - 설문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분포의 쏠림으로 통계청 조사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71.3%의 1인 가구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성소수자들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성애 규범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4> 가구 형태 (단위: %)

#### ■ 다인 가구 구성원

<표 23> 다인 가구 가구원 수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72	2.32	1.840	2	28

- 다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2명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높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다인 가구의 가구원 수는 주로 2명과 3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성정체성별 가족 구성원 관계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파트너 (애인, 부부 등)	81 67.5%	56 58.3%	13 44.8%	17 43.6%	167 58.8%
자매, 형제, 친척	12 10.0%	12 12.5%	4 13.8%	4 10.3%	32 11.3%
성소수자 친구, 동료	12 10.0%	14 14.6%	5 17.2%	7 17.9%	38 13.4%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12 10.0%	12 12.5%	5 17.2%	7 17.9%	36 12.7%
기타	3 2.5%	2 2.1%	2 6.9%	4 10.3%	11 3.9%
전체	120 100.0%	96 100.0%	29 100.0%	39 100.0%	284 100.0%

- 다인 가구의 가구 구성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파트너(애인, 부부 등)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소수자 친구와 동료가 13.4%, 비성소수자 친구와 동료가 11.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애인, 부부 등)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집단별 수치의 편차가 있다.
  -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파트너(애인, 부부 등)가 6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스젠더 남성은 58.3%, 트랜스젠더는 44.8%,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43.6%가 파트너(애인, 부부 등)를 꼽았다.

### 2.3.2. 주거 환경

#### ■ 전용 면적

- 응답자들의 과반수(70.1%) 15평 미만의 전용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평 이상 10평 미만이 32.6%, 6평 이상 15평 미만이 25.6%, 5평 이하가 11.9%로 나타났다.
  - 20평 이상의 전용면적 비율은 15.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거주 공간의 전용면적을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10평 미만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62.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10평 미만이 34.2%, 시스젠더 남성은 4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52.5%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10평 미만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0평 대 전용면적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시스젠더 여성이 42.4%, 시스젠더 남성이 40.0%, 트랜스젠더가 28.1%,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40.3%로 나타났다.
  - 20평 이상의 경우 시스젠더 남성이 1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스젠더 여성이 14.4%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3.2%로 조사됐다.
- 전체적으로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에 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거주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의 거주 공간이 가장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성정체성별 전용 면적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5평 이하	22	49	18	24	113
	9.3%	9.7%	22.0%	19.4%	11.9%
6평 이상 10평 미만	80	155	33	41	309
	33.9%	30.6%	40.2%	33.1%	32.6%
10평 이상 15평 미만	62	133	14	34	243
	26.3%	26.2%	17.1%	27.4%	25.6%
15평 이상 20평 미만	38	70	9	16	133
	16.1%	13.8%	11.0%	12.9%	14.0%
20평 이상 25평 미만	18	48	2	5	73
	7.6%	9.5%	2.4%	4.0%	7.7%
25평 이상	16	52	6	4	78
	6.8%	10.3%	7.3%	3.2%	8.2%
전체	236	507	82	124	949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 개수

-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집의 방의 개수를 물었을 때, 36.5%는 구분된 방이 없는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답했다. 31.5%는 방이 두 개라고 답했으며, 18.5%는 3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가 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시스젠더 여성, 남성보다 구분된 방이 없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방이 1개 이상 있는 곳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다.
  - 구분된 방이 없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트랜스젠더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45.2%로 높게 나타났다.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35.3%, 32.1%가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이 1개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트랜스젠더가 9.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10.5%로 나타났다. 시스젠더 여성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와 비슷한 10.6%로 나타났으며, 시스젠더 남성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방이 2개 이상에서 거주하는 비율 역시 트랜스젠더가 36.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44.3%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스젠더 여성은 54.1% 시스젠더 남성은 51.6%로 나타났다.

<표 26> 성정체성별 방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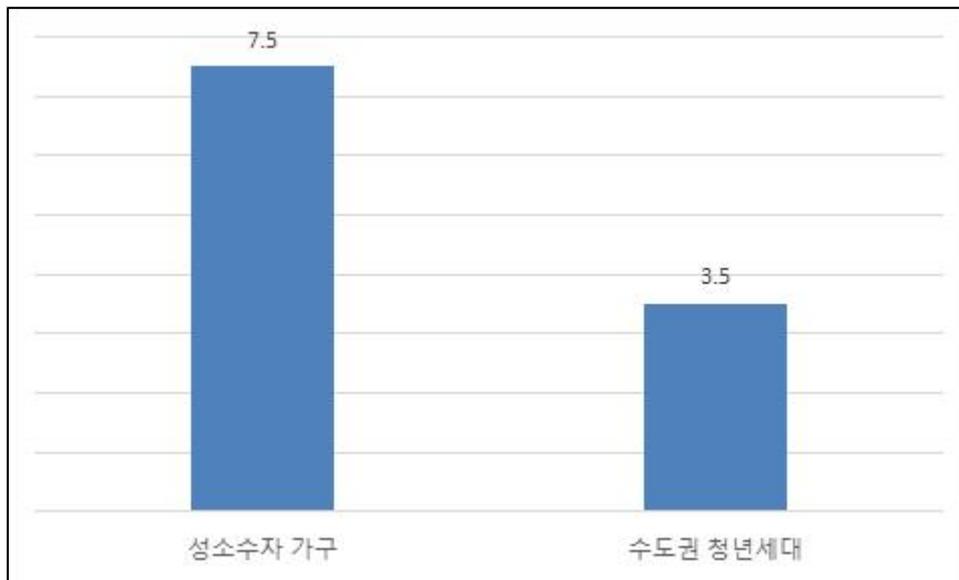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구분된 방 없음 (원룸)	83	163	44	56	346
	35.3%	32.1%	53.7%	45.2%	36.5%
1개	25	82	8	13	128
	10.6%	16.2%	9.8%	10.5%	13.5%
2개	77	165	22	35	299
	32.8%	32.5%	26.8%	28.2%	31.5%
3개 이상	50	97	8	20	175
	21.3%	19.1%	9.8%	16.1%	18.5%
전체	235	507	82	124	948
	100.0%	100.0%	100.0%	100.0%	100.0%

## ■ 거주 층수

<표 27> 거주하는 층

항목	빈도	퍼센트
지상 층	878	92.5
(반)지하	58	6.1
옥탑	13	1.4
전체	949	100.0

- 응답자들의 대부분(92.5%)은 지상 층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지하와 옥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와 옥탑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의 비율은 1.3%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 세대의 경우 3.5%가 (반)지하와 옥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조사 수치와 비교했을 때 설문응답자들의 (반)지하와 옥탑 거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설문응답자들의 (반)지하와 옥탑 거주 비율은 전국 일반가구 대비 약 6배 정도 높다.
  - 설문응답자의 많은 수가 수도권 20-30대(수도권 응답자 79%, 20-30대 응답자 82.4%)임을 감안해 수도권 청년세대 (반)지하와 옥탑 거주 비율(3.5%)을 비교해보면, 설문응답자의 거주비율이 약 2.2배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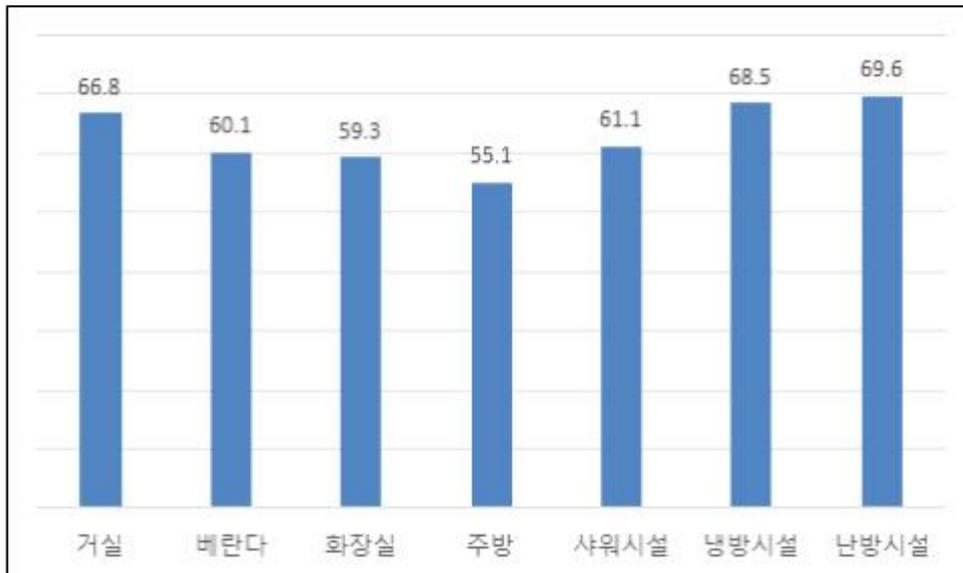
<그림 15> 수도권 청년세대 대비 (반)지하/옥탑 거주 비율 (단위: %)

#### ■ 주거 시설 유무 및 만족도

- 응답자의 대다수는 화장실(98.5%), 주방(92.1%), 샤워시설(95.7%), 난방시설(96.3%)이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거실과 베란다가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58.9%와 5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거실의 경우 응답자들이 원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베란다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례나 베란다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수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주거 시설 유무

항목		빈도	퍼센트
거실	있음	559	58.9
	없음	390	41.1
	합계	949	100.0
베란다	있음	514	54.2
	없음	435	45.8
	합계	949	100.0
화장실	있음	935	98.5
	없음	14	1.5
	합계	949	100.0
주방	있음	874	92.1
	없음	75	7.9
	합계	949	100.0
샤워시설	있음	908	95.7
	없음	41	4.3
	합계	949	100.0
냉방시설	있음	856	90.2
	없음	93	9.8
	합계	949	100.0
난방시설 (기름, 가스보일러)	있음	914	96.3
	없음	35	3.7
	합계	949	100.0



<그림 16> 주거 시설 만족도 (단위: 점수)

○ 주거시설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

- 족, 매우 만족)로 구성된 질문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점수를 계산했다.
- 조사 결과 난방시설과 냉방시설의 점수가 각각 69.6점과 6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실 점수 역시 6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베란다는 60.1점, 화장실은 59.3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방은 55.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주방의 경우 주방과 거실 등이 분리되지 않은 원룸 거주자의 불만족 점수가 높게 반영되었다.
    - 원룸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주방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은 39.3%로 다른 응답자들의 불만족 비율(방 1개 27.6%, 방 2개 24.4%, 방 3개 이상 12.5%)보다 높다.

## ■ 주거 상태

-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광, 면적, 환기, 균열, 층/벽간 소음 등의 불만을 알아보았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집 상태의 불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17> 주거 상태 불만족도 (단위: 점수)

- 주거 상태에 대해서 설문응답자(N=949)들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것은 좁은 면적과 층간, 벽간 소음이었다. 면적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은 58.3점, 층간, 벽간 소음에 대한 불만족은 52.4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나타나는 불만도 48.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물이 새거나, 건물이 낡아 위험한 것에 대한 불만은 각각 22.9점과 2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변 환경

- 집 주변 환경 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 기반 시설들의 불편한 점을 물었다. 위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주변 환경의 불만족도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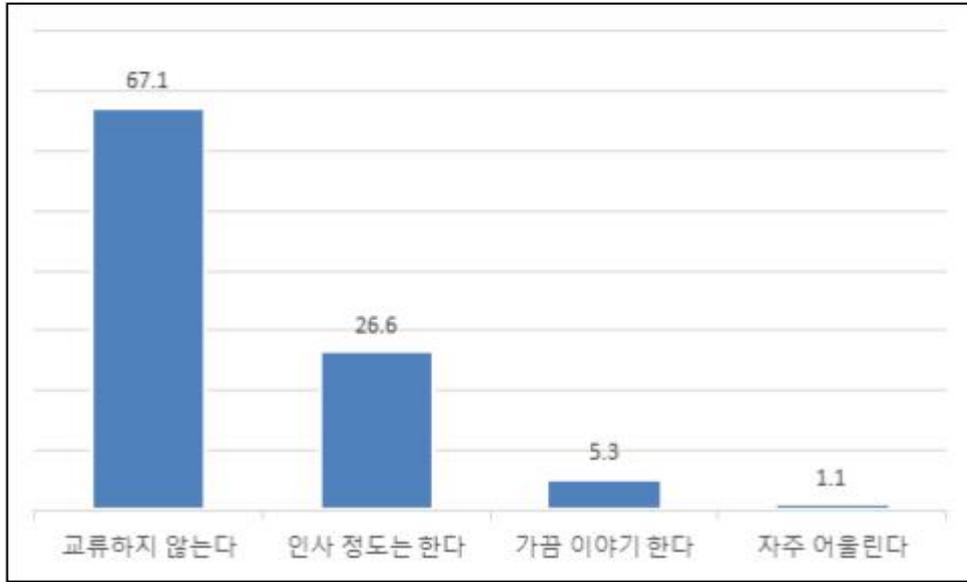
<그림 18> 주변 환경 불편한 점 (단위: 점)

- 집 주변 환경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성소수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커뮤니티)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불만족 점수 64점을 기록했다.
- ‘치안 불안’, ‘대중교통 이용 불편’, ‘생활용품 구하기 불편’ 각각 27.6점, 28.6점, 2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불만족 점수를 기록했다.

■ 이웃과 교류

<표 29> 이웃과 교류 정도

항목	빈도	퍼센트
교류하지 않는다	637	67.1
인사 정도는 한다	252	26.6
가끔 이야기 한다	50	5.3
자주 어울린다	10	1.1
전체	949	100.0



<그림 19> 이웃과 교류 (단위: %)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웃과 교류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1%는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26.4%는 ‘인사 정도는 한다’라고 답했다.
- 이에 반해 ‘가끔 이야기 한다’는 5.3%, ‘자주 어울린다’는 1.1%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0>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1순위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37 24.5%	97 28.1%	8 14.8%	21 24.4%	163 25.6%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	6 4.0%	19 5.5%	11 20.4%	4 4.7%	40 6.3%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	87 57.6%	195 56.5%	30 55.6%	49 57.0%	361 56.8%
자주 이사를 해야 해서	9 6.0%	10 2.9%	1 1.9%	4 4.7%	24 3.8%
기타	12 7.9%	24 7.0%	4 7.4%	8 9.3%	48 7.5%
전체	151 100.0%	345 100.0%	54 100.0%	86 100.0%	636 100.0%

- 응답자들이 이웃과 잘 교류하지 않는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물었다. 1순위 결

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8%가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라고 답했으며, 25.6%는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는 6.3%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를 성정체성별로 파악하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다르게 나타난다. 트랜스젠더는 여타 집단처럼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55.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20.4%로 다른 집단과 달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1>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2순위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29 19.2%	92 26.7%	8 14.8%	12 14.0%	141 22.2%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	32 21.2%	69 20.0%	17 31.5%	16 18.6%	134 21.1%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	44 29.1%	103 29.9%	15 27.8%	24 27.9%	186 29.2%
자주 이사를 해야 해서	22 14.6%	38 11.0%	6 11.1%	18 20.9%	84 13.2%
기타	24 15.9%	43 12.5%	8 14.8%	16 18.6%	91 14.3%
전체	151 100.0%	345 100.0%	54 100.0%	86 100.0%	636 100.0%

-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2순위를 물었을 때, 1순위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29.2%,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가 22.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는 21.2% 1순위 응답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3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으며,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각각 29.1%, 29.9%, 27.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27.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각각 21.2%, 18.6%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스젠더 남성은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가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는 20.0%로 다음 순서로 이어

졌다.

<표 32>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1, 2순위 종합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66 21.7%	189 27.4%	13 15.5%	33 19.2%	301 24.1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	38 12.5%	88 12.8%	23 27.4%	20 11.6%	169 13.5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	132 43.4%	298 43.2%	35 41.7%	73 42.4%	538 43.0
자주 이사를 해야 해서	32 10.5%	48 7.0%	4 4.8%	22 12.8%	106 8.5
기타	36 11.8%	67 9.7%	9 10.7%	24 14.0%	136 10.9
전체	304 100.0%	690 100.0%	84 100.0%	172 100.0%	1250 100.0%

-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 1순위와 2순위 질문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43.0%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가 24.1%,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13.5% 순으로 나타났다.
-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 모두 전체 수치와 같게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시스젠더 여성 43.4%, 시스젠더 남성 43.2%, 트랜스젠더 41.7%, 논바이너리/젠더퀴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27.4%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차지했지만,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트랜스젠더가 이웃과 관계에서 아웃팅의 위험에 더욱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의료적 트랜지션을 수행하며 지정된 성별 규범의 위반을 가시화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의 가시화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이웃 관계에서 쉽게 아웃팅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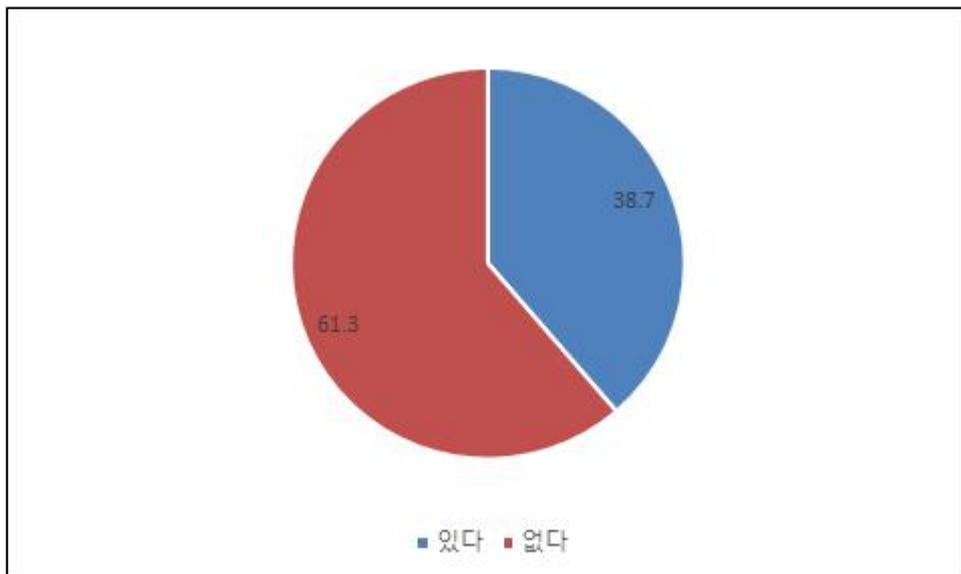
## 2.4. 주거 부담 및 주거 마련

### 2.4.1. 주거 부담

#### ■ 주택 관련 대출

<표 33> 주택 구입 대출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있다	367	38.7
없다	582	61.3
전체	949	100.0



<그림 20> 주택 구입 대출 여부 (단위: %)

- 설문응답자의 61.3%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8.7%는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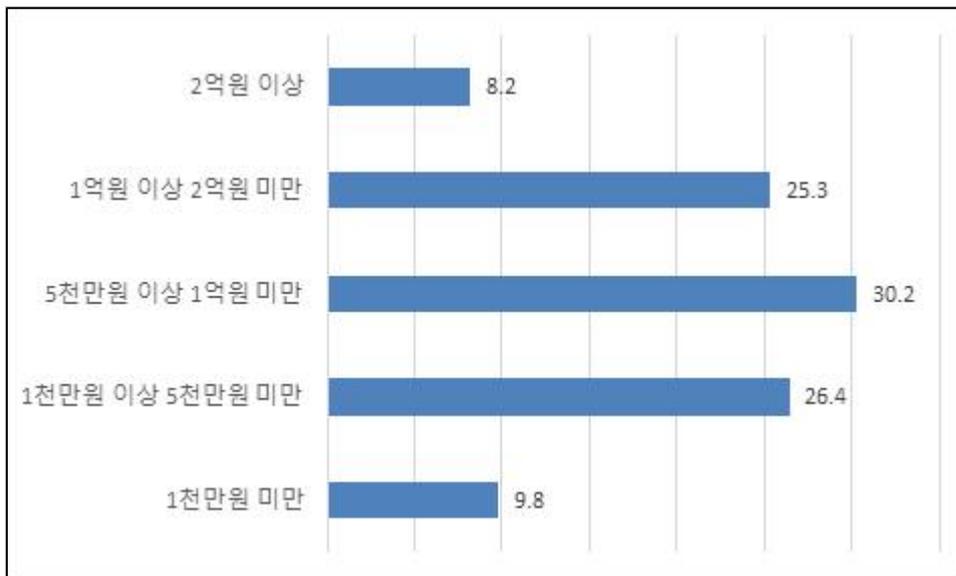
#### ■ 주택 관련 대출

-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비용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각각 26.4%와 25.3%로 비슷한 수치를 순위를 이어갔다.
- 1천만 원 미만이 9.8%, 2억 원 이상이 8.2%로 조사되어 이들 금액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4> 대출 비용

항목	빈도	퍼센트
1천만 원 미만	36	9.8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97	2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11	30.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3	25.3
2억 원 이상	30	8.2
전체	3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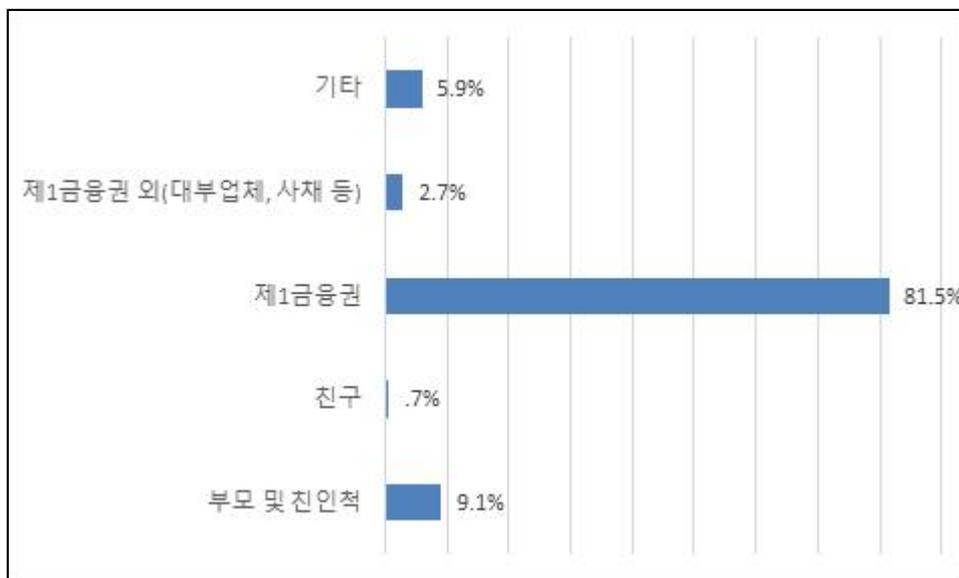


<그림 21> 대출비용 (단위: %)

- 대출 받은 곳을 묻는 질문에 81.5%가 제1금융권이라고 응답했다. 부모 및 친 인척은 9.1%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족보다는 제1금융권을 통해서 주택 구입비용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대출 받은 곳 (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부모 및 친인척	37	9.1%
친구	3	0.7%
제1금융권	330	81.5%
제1금융권 외(대부업체, 사채 등)	11	2.7%
기타	24	5.9%
전체	4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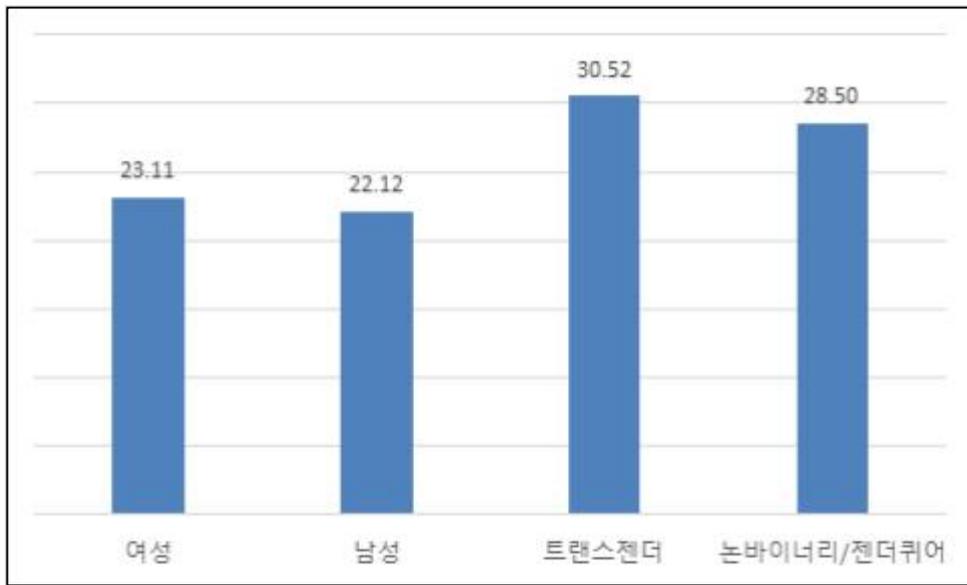
<그림 22> 대출 받은 곳 (단위: %)

### ■ 주거비 부담

- 월수입에서 주거비(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대출 상환금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3.93%로 나타났다.
- 이를 다시 성정체성별로 확인을 해보면, 트랜스젠더가 평균 30.52%로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28.50%로 트랜스젠더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각각 23.11%와 22.12%로 나타나 위의 두 집단보다는 월수입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에 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월수입이 적은 것이 주거비 비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6> 월수입에서 주거비 비중 (단위: %)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여성	236	23.11	18.548	0	100
남성	507	22.12	15.606	0	80
트랜스젠더	82	30.52	23.034	0	100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4	28.50	22.020	0	100
전체	949	23.93	18.219	0	100



<그림 23> 월 수입에서 주거비 비중 (단위: %)

- 주거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7%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답했으며, 24.8%는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으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시스젠더 남성이 다른 집단 비해 주거비 부담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주거비가 ‘매우 부담스럽다’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이 65.8%, 74.2%, 61.5%로 나타난 반면 시스젠더 남성은 52.7%로 나타났다.
  - 주거비가 ‘부담스럽지 않다’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응답을 살펴보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시스젠더 여성은 10.9%, 12.1%, 13.2%로 나타난 반면 시스젠더 남성은 19.9%로 나타났다.

<표 37> 성정체성별 주거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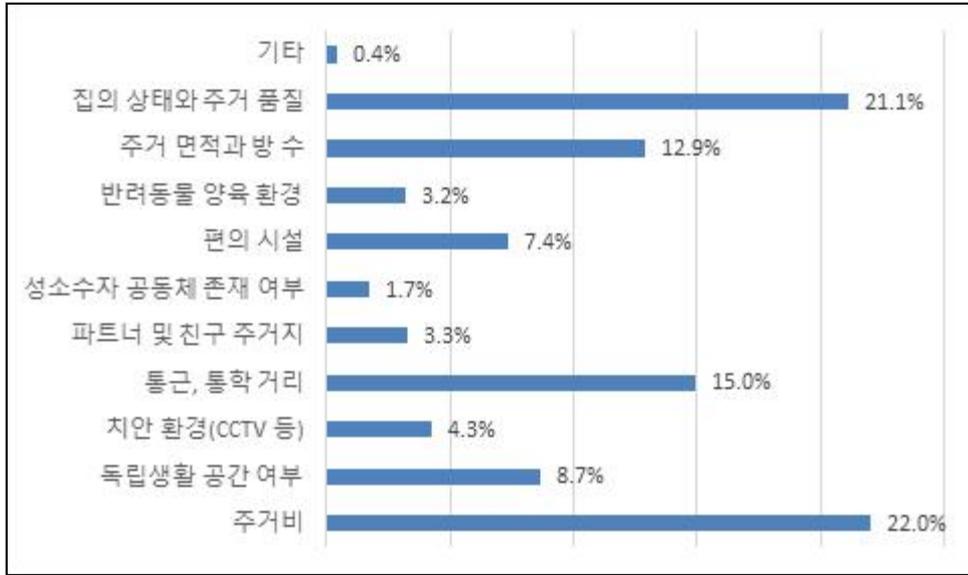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매우 부담스러움	50	86	23	22	181
	21.2%	17.0%	28.0%	17.7%	19.1%
조금 부담스러움	95	181	31	70	377
	40.3%	35.7%	37.8%	56.5%	39.7%
적절함	60	139	19	17	235
	25.4%	27.4%	23.2%	13.7%	24.8%
부담스럽지 않음	24	68	7	11	110
	10.2%	13.4%	8.5%	8.9%	11.6%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7	33	2	4	46
	3.0%	6.5%	2.4%	3.2%	4.8%
전체	236	507	82	124	949
	100.0%	100.0%	100.0%	100.0%	100.0%

## 2.4.2. 주거 선택

### ■ 주거 선택 시 고려하는 것

<표 38> 주거비 선택 시 고려 사항 (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주거비	627	22.0
독립생활 공간 여부	247	8.7
치안 환경(CCTV 등)	122	4.3
통근, 통학 거리	426	15.0
파트너 및 친구 주거지	94	3.3
성소수자나 공동체 존재 여부	49	1.7
편의 시설	210	7.4
반려동물 양육 환경	91	3.2
주거 면적과 방 수	368	12.9
집의 상태와 주거 품질	601	21.1
기타	12	0.4
전체	2847	100.0



<그림 24> 주거 선택 시 고려 사항

- 주거 선택 시 고려하는 것을 살펴보면, 주거비가 22.0%로 가장 높았고, 집의 상태와 주거 품질이 21.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통근, 통학 거리가 15.0%, 주거 면적과 방수가 12.9%로 뒤를 이었다.

#### ■ 성소수자 공동체와 주거

- 지역에 성소수자 공동체 존재 여부가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1.7%로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의 37.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성소수자 공동체가 영향을 준다(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7.0%와 49.2%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39.8%와 3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와 다르게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성소수자 공동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트랜스젠더 46.4%, 시스젠더 남성 44.2%)라는 응답이 영향을 준 다라(트랜스젠더 25.6%, 시스젠더 남성 31.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주거 선택 시 성소수자 공동체 존재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성정체성별 성소수자 공동체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	113	19	17	180
	13.1%	22.3%	23.2%	13.7%	19.0%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3	111	19	22	215
	26.7%	21.9%	23.2%	17.7%	22.7%
보통이다	31	121	23	24	199
	13.1%	23.9%	28.0%	19.4%	21.0%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81	141	15	46	283
	34.3%	27.8%	18.3%	37.1%	29.8%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	21	6	15	72
	12.7%	4.1%	7.3%	12.1%	7.6%
전체	236	507	82	124	949
	100.0%	100.0%	100.0%	100.0%	100.0%

■ 거주하는 지역의 성소수자 지인 수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성소수자 지인 수를 알아본 결과 평균 2.42명의 지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40> 성소수자 지인 수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949	2.42	3.625	0	40

## 2.5. 주거 불안

### ■ 성정체성으로 인해 사는 곳에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

<표 41> 성정체성별 주거 불편 경험 여부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예	71 30.2%	91 17.9%	35 42.7%	46 37.1%	243 25.6%
아니오	164 69.8%	416 82.1%	47 57.3%	78 62.9%	705 74.4%
전체	235 100.0%	507 100.0%	82 100.0%	124 100.0%	948 100.0%

- 응답자들의 주거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74.4%는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5.6%는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반응이 조사된다. 시스젠더 남성이 성정체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불편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트랜스젠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9%로 매우 낮았다.
  - 이에 반해 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반응이 30.2%와 37.1%로 시스젠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더욱 다른 반응이 보이는데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7%로 거의 응답자의 1/2이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랜지션이라는 이원적 성별체계를 위반하는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소수자성이 쉽게 가시화된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불편과 차별을 경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이러한 추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젠더 비순응으로 놓고 교차분석을 해봤다.

<표 42> 젠더 비순응에 따른 주거 불편 경험 여부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전체
	순응	비순응	순응	비순응			
예	54	17	82	9	35	46	243
	28.7%	35.4%	17.7%	20.5%	42.7%	37.1%	25.6%
아니오	134	31	381	35	47	78	706
	71.3%	64.6%	82.3%	79.5%	57.3%	62.9%	74.4%
전체	188	48	463	44	82	124	9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을 각각 젠더 순응과 비순응으로 재범주화하여 교차분석을 해봤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 비순응 사례에서 ‘성정체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불편을 겪었다’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성정체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불편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젠더 순응 28.7%, 젠더 비순응 35.4%로 젠더 비순응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젠더 비순응의 수치는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37.1%와 비슷한 수치다.
  -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도 성정체성으로 거주지에서 불편을 경험한 여부가 젠더 순응은 17.7%인데 비해 젠더 비순응은 20.5%로 젠더 비순응 사례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비록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젠더 비순응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젠더 비순응 사례에서 주거 불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

- 성정체성으로 인해 경험했던 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30.6%는 ‘집주인과 이웃에게 정체성을 숨기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관계를 최소화’를 꼽았고, 25.7%는 ‘가족이나 지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성정체성을 노출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춤’을 꼽았다.
- 19.7%는 ‘집주인 혹은 이웃에게 파트너를 친구나 친척으로 소개함’을, 16.6%는 ‘성정체성이 노출될까봐 가족이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음’을 꼽았다.

<표 43> 거주지에서 불편한 경험 사례(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집주인과 이웃에게 성정체성을 숨기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관계를 최소화	168	30.6%
집주인 혹은 이웃에게 파트너를 친구나 친척으로 소개함	108	19.7%
성정체성이 노출될까봐 가족이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음	91	16.6%
가족이나 지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성정체성을 노출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춤	141	25.7%
전/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 혹은 이웃으로부터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당함	24	4.4%
성정체성으로 인해 퇴거 압력이나 이주를 경험한 적이 있음	5	0.9%
기타	12	2.2%
전체	549	100.0%

■ 성정체성으로 인해 경험했던 주거 관련 불편한 사례

- 응답자들이 경험한 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개방형 질문으로 직접 서술하게 했다.
- 다양한 사례들이 기술되었고, 이를 다음과 같은 분류로 범주화해서 정리했다.
  -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 관계의 위축 및 최소화, 사생활 간섭, 제도로부터 소외, 아웃팅 위협, 이성애 규범적 언설, 파트너 관계 숨김
-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은 이웃들이 자신 혹은 자신과 파트너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행위다.
  - ‘주변의 시선을 피해 몰래 (집에) 들어감’(논바이너리/젠더퀴어)
  - ‘여성전용 건물에 살고 있어서 다른 세입자나 임대인이 나의 여성스럽지 않은 외관을 뻔히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논바이너리/젠더퀴어)
  - ‘게이라는 사실 인지 후에는 별레 보듯이 대하는 시선과 태도 또한 본인 성욕 해소용으로 활용하려는 태도가 무지 불쾌함’(시스젠더 남성)
  - 사는 곳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항상 이상한 눈치로 나를 바라보고 질문도 이상한 질문을 함(트랜스젠더)
- ‘관계의 위축 및 최소화’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주변 관계로부터 위축되거나 아웃팅되지 않게 이웃 관계를 최소화하는 행위다.
  - ‘어린 시절 정체화 이전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과의 소통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음’(트랜스젠더)
  -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아서요. 스스로 움츠러드는 게 큰 거 같아요.’(시스젠더 여성)
  - ‘정체성 노출이나 관계 설명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웃과의 교류를 최소화’(시스젠더 여성)

- ‘사생활 간섭’은 임대인 혹은 이웃이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계를 깨문는 행위다.
  - ‘동거관계에 대한 추궁 및 사생활 간섭’(논바이너리/젠더퀴어)
  - ‘함께 사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매번 물어보는 이웃’(시스젠더 여성)
  - ‘집에 무지개가 많아요~ 무지개는 동성애라던데...’(시스젠더 남성)
  - ‘이름 성이 다른데 같이 사는 분은 누구예요?’(시스젠더 남성)
- ‘제로로부터 소외’는 주거 정책 및 사회 제도가 이성애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상황이다.
  - ‘보일러 점검 나왔을 때 지인으로 체크됩니다. 인구주택조사에서도 동거인일 뿐입니다. 대출하는 데에도 (파트너가 부부로 인정이 안 돼) 1인으로 하다 보니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시스젠더 여성)
- ‘아웃팅 위험’은 집 계약 시 혹은 임대인과 관계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노출 되는 위험이다.
  - ‘MTF 트랜스젠더입니다. 주거계약 시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탓에 아웃팅이 됐습니다.’(트랜스젠더)
  - ‘집계약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감’(트랜스젠더)
  - ‘계약을 진행 중 계약서엔 남자로 되어있었지만 보이는 모습은 여성이라 바로 트랜스젠더인 걸 알아차리셨고 계약이 파기된 경험이 1회 있음.’(트랜스젠더)
  - ‘남자예요? 여자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집주인)’(트랜스젠더)
  - ‘이전 집에서 계약 시에 신분증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음’(트랜스젠더)
- ‘이성애 규범적 언설’은 이웃들이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적 규범으로 질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남자 혼자 사는 집 치곤 살림이 많은데 애인이 있나요? 곧 결혼하실 건가요?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성애 규범에 자꾸 저를 포함 시키려는 듯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논바이너리/젠더퀴어)
  - 하우스 메이트가 나를 이성애자로 기정사실화하고 자꾸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묻거나 연애경험을 이야기 해달라고 함. 여기에 더해 외모에 대해서도 머리 기르고 묶고 다니면 예뻐 거 같다고 나의 스타일 상태를 존중하지 않음 (시스젠더 여성)
  - ‘몇 명이 사니?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신혼부부용 (집)을 왜 고르니’(시스젠더 남성)
  - ‘친구와 사시나보네요~ 요즘 남자들도 그렇게 사이좋게 붙어다니나요? 등..’(시스젠더 남성)
  - ‘파트너와 함께 사는데, “자매 두 분이 사시나 봐요?”’(시스젠더 여성)

- ‘파트너 관계 숨김’은 자신의 파트너를 주변에 자매, 형제 혹은 친구로 소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파트너와 살지만 친구와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점, 스킨십을 할 때 시선이 불편함’(논바이너리/젠더퀴어)
  - ‘애인과 사는데 친구랑 산다고 함 집 주변 같이 다닐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댐’(논바이너리/젠더퀴어)
  - ‘애인과의 동거지만, 대외적으로는 친구관계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동거하기로 결정하고 양쪽의 가족에게 친구와 룸메이트로 지낼 계획이라 알렸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도 그렇게 행동했다.’(시스젠더 남성)
  -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여성 둘이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태이다 보니, 부차적인 설명의 말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집을 구할 때 안전을 위해서는 혼자 보다 친구랑 사는데 좋더라고요. 라든지,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 자매나 다름없어요. 등의 말을 해야 하고, 이런 부차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집주인 분들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주치는 이웃 분들에게는 자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시스젠더 여성)
  - 동성 애인이 집에 놀러왔을 때, 친구로 보일 수 있음에도 동성 커플이라고 의심받을까봐 최대한 조용히 집을 드나들고 집에서도 가능한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함(시스젠더 여성)
- ‘폭력과 학대’는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족 혹은 주변으로부터 폭언과 학대를 경험한 사례를 말한다.
  - ‘아웃팅을 당한 이후 부모로부터의 성희롱, 성적 대상화와 물리적/정서적 폭력’(트랜스젠더)
  -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문 틈새로 쫓겨 굶주림을 보고 성소수자임을 추궁하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치료 받을 것을 강요당함.’(시스젠더 여성)
  - ‘학교 선배와 살았을 때, 정체성으로 인한 성희롱 등’(논바이너리/젠더퀴어)
  - ‘친부모로부터의 꾸준한 가정폭력 너같은년은 필요없다, 동성애는 정신병, 뒤지도록 맞아야 정신 차릴 년, 등등 혐오 폭력 발언, 실제 육체적 폭력 학창 시절 아웃팅’(시스젠더 여성)
- 이러한 불편함의 범주들은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들이 교차하며 작용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전과 정주성을 지속적으로 해친다.

## ■ 정주성 불안

<표 44> 성정체성별 정주성 불안 여부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전체
예	146	206	44	88	484
	62.1%	40.6%	53.7%	71.0%	51.1%
아니오	89	301	38	36	464
	37.9%	59.4%	46.3%	29.0%	48.9%
전체	235	507	82	124	948
	100.0%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들의 정주환경이 불안정한지 물었을 때, 51.1%는 ‘불안정하다’라고 답하고, 48.9%는 ‘안정적이다’라고 답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 이를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정주환경 불안정 응답은 과반수를 차지했고, 시스젠더 남성은 정주환경 안정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62.1%가 정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답했고, 트랜스젠더는 53.7%,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71.0%가 정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 이에 반해 시스젠더 남성은 40.6%가 정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정주성 불안 이유

- 정주환경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7.7%가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것 같아서’를 꼽았고, 13.8%가 ‘월세/관리비/공과금 등을 밀려서’를 꼽았다. ‘파트너 혹은 동거인과 별거 가능성’은 11.0%,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퇴거 우려’는 9.9%,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서’는 9.2%를 기록했다.
- 성정체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스젠더 여성 52.7%, 시스젠더 남성 53.9%, 트랜스젠더 45.5%, 논바이너리/젠더퀴어 52.3%로 대체로 응답자의 1/2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것 같아서’를 꼽았다.
- 그러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월세/관리비/공과금 등을 밀려서’가 각각 25.0%와 27.3%로 시스젠더 여성(13.7%)과 남성(18.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또한 트랜스젠더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웃으로부터 차별과 퇴거 우려'가 31.8%로 다른 집단에 높은 비중을 보였다.
  - 트랜스젠더는 공과금, 월세 등과 보증금 연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에 다른 집단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스젠더 여성은 '파트너 혹은 동거인과 별거 가능성'으로 인한 정주 환경 불안이 21.2%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 기타 응답에는 전세, 월세 등(행복주택, 기숙사 포함)의 계약 만료, 층간 소음, 낙후, 집의 협소 등 주거 환경의 열악함, 실직 등 경제적 상황 악화 등이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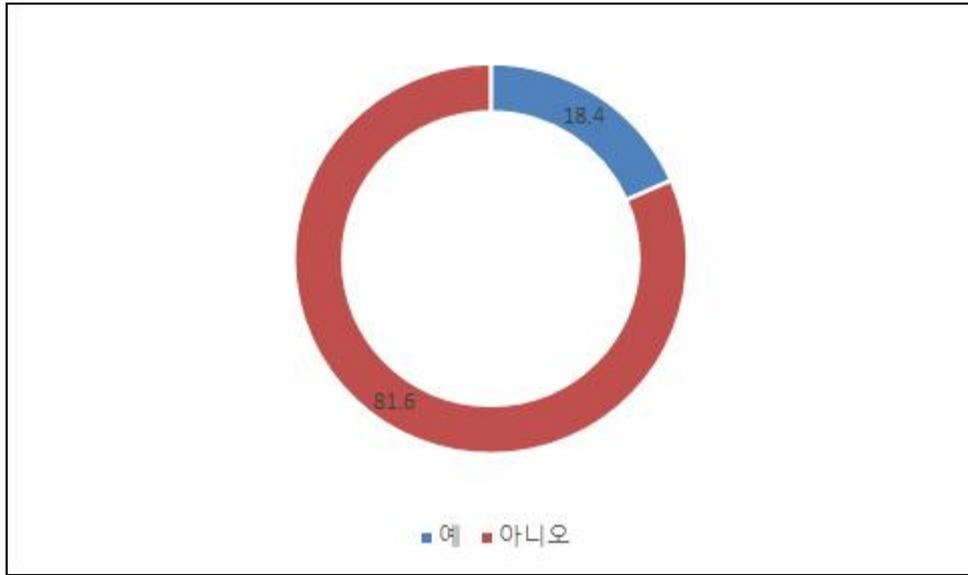
<표 45> 성정체성별 정주성 불안 이유 (다중응답 교차분석)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 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월세/관리비/공과금 등을 밀려서	20 9.6%	38 14.4%	11 16.2%	24 17.8%	93 13.8%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것 같아서	77 37.0%	111 42.2%	20 29.4%	46 34.1%	254 37.7%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서	20 9.6%	24 9.1%	8 11.8%	10 7.4%	62 9.2%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퇴거 우려	17 8.2%	23 8.7%	14 20.6%	13 9.6%	67 9.9%
파트너 혹은 동거인과 별거 가능성	31 14.9%	24 9.1%	7 10.3%	12 8.9%	74 11.0%
기타	43 20.7%	43 16.3%	8 11.8%	30 22.2%	124 18.4%
전체	208 100.0%	263 100.0%	68 100.0%	135 100.0%	674 100.0%

## ■ 집 계약 시 임대인과 중개인으로부터 불편 경험

<표 46> 집 계약 시 불편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예	175	18.4
아니오	774	81.6
전체	949	100.0



<그림 25> 집 계약 시 불편 여부 (단위: %)

- 집 계약 시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불편함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81.6%는 ‘불편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으며, 18.4%는 ‘불편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표 47> 성정체성별 임대차 계약 시 불편함 (다중응답 교차분석)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 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합계
계약서, 임대차계약법을 잘 몰라서	23 23.5%	40 30.1%	5 21.7%	17 28.3%	85 27.1%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	23 23.5%	20 15.0%	12 52.2%	10 16.7%	65 20.7%
관리비, 임대료 등 주거비용 문제	28 28.6%	40 30.1%	3 13.0%	24 40.0%	95 30.3%
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16 16.3%	24 18.0%	2 8.7%	4 6.7%	46 14.6%
기타	8 8.2%	9 6.8%	1 4.3%	5 8.3%	23 7.3%
전체	98 100.0%	133 100.0%	23 100.0%	60 100.0%	314 100.0%

- 집 계약 시 어떤 불편을 경험했는지 물었을 때, 30.3%는 ‘관리비, 임대료 등 주거비용 문제’를 꼽았고, 27.1%는 ‘계약서, 임대차계약법을 잘 몰라서’, 20.7%는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를 꼽았다. ‘중개사를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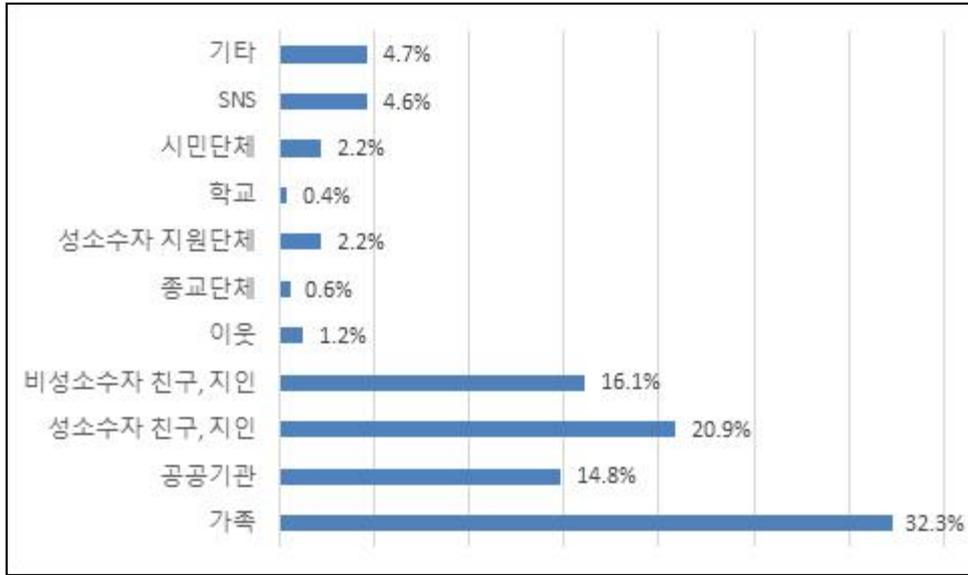
되지 못해서'는 14.6%를 차지했다.

-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트랜스젠더가 여타 집단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응답자 수가 적어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가 5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스젠더 여성(28.6%), 시스젠더 남성(30.1%), 그리고 논바이너리/젠더퀴어(40.0%)가 '관리비, 임대료 증 주거비용 문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적 성별과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임대차 계약 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편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시스젠더 여성도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가 23.5%로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인 가구 구성원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젠더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파트너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아, 이 수치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 주거 문제 발생 시 도움 받는 곳

<표 48> 주거 관련 도움 받는 곳 (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가족(친인척 포함)	630	32.3%
공공기관(동주민센터, 경찰서 등)	288	14.8%
성소수자 친구, 지인	407	20.9%
비성소수자 친구, 지인	313	16.1%
이웃	24	1.2%
종교단체	11	0.6%
성소수자 지원 단체	43	2.2%
학교	8	0.4%
시민단체	43	2.2%
SNS	90	4.6%
기타	91	4.7%
전체	1948	100.0%



<그림 26> 주거 관련 도움 받는 곳

- 주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는 곳은 가족이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성소수자 친구, 지인이 20.9%, 비성소수자 친구, 지인이 16.1%, 공공기관이 14.8%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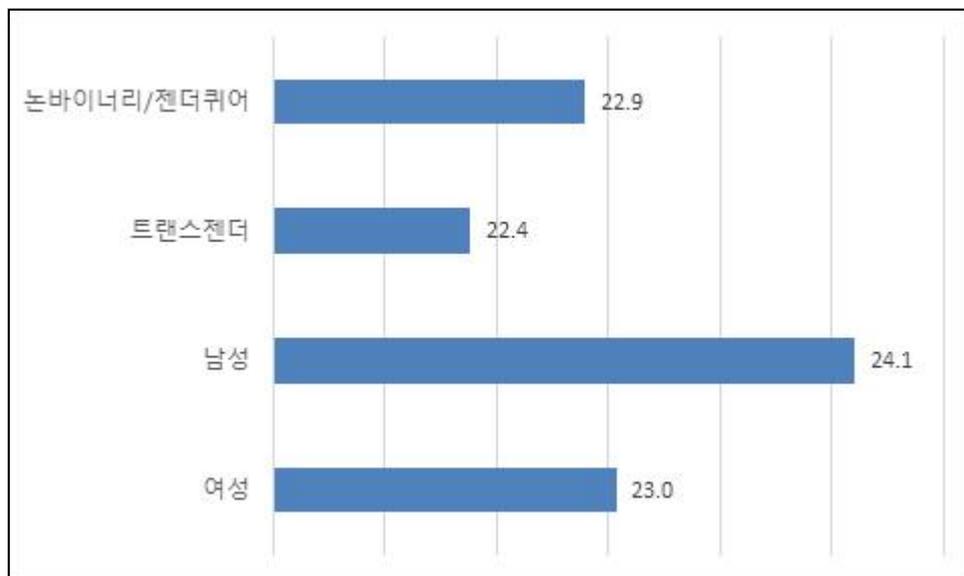
## 2.6 주거 이력 및 주거 정책

### 2.6.1 주거 이력

#### ■ 독립한 시기

<표 49> 성정체성별 독립한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여성	236	23.0	4.344	15	44
남성	507	24.1	5.296	10	46
트랜스젠더	82	22.4	3.968	16	36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24	22.9	4.356	16	38
전체	949	23.5	4.886	10	46



<그림 27>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평균 나이

- 응답자들의 독립한 시기를 살펴보면, 평균 23.5세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으로부터 적정 독립 나이는 26.1세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를 한다면 응답자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정체성별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나이를 살펴보면, 트랜스젠더가 22.4세

로 가장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바이너리/젠더 퀴어가 22.9세, 시스젠더 여성이 23.0세, 그리고 시스젠더 남성이 24.1세 순으로 나타났다.

■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이유

<표 50> 성정체성별 독립 이유

	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합계
학교, 직장 등과 사는 곳의 거리·교통·이동 시간의 문제로	118 50.2%	267 52.7%	25 30.5%	47 37.9%	457 48.2%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독립 (커밍아웃, 아웃팅)	6 2.6%	14 2.8%	19 23.2%	9 7.3%	48 5.1%
독립하고 싶어서 (혼자만의 공간 필요, 다른 형태의 주거 경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등)	66 28.1%	165 32.5%	20 24.4%	29 23.4%	280 29.5%
가족 내 정서적/물리적 고통과 학대 등으로 인해서	25 10.6%	31 6.1%	12 14.6%	31 25.0%	99 10.4%
친구/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근접한 곳에 살기 위해	1 0.4%	1 0.2%	1 1.2%	1 0.8%	4 0.4%
파트너(애인)와 함께 살기 위해서	13 5.5%	11 2.2%	2 2.4%	5 4.0%	31 3.3%
전체	235 100.0%	507 100.0%	82 100.0%	124 100.0%	948 100.0%

-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48.2%는 ‘학교, 직장 등과 사는 곳의 거리·교통·이동 시간의 문제로’라고 답했고, 29.5%는 ‘독립하고 싶어서’를, 10.4%는 ‘가족 내 정서적/물리적 고통과 학대 등으로 인해서’라고 답했다.
- 성정체성별로 독립 이유를 살펴보면, 시스젠더 여성, 남성과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응답 비율이 달라진다.
  -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학교, 직장 등과 사는 곳의 거리·교통·이동 시간의 문제로’가 각각 50.2%, 52.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역시 ‘학교, 직장 등과 사는 곳의 거리·교통·이동 시간의 문제로’가 각각 30.5%와 37.9%를 차지했지만 시스젠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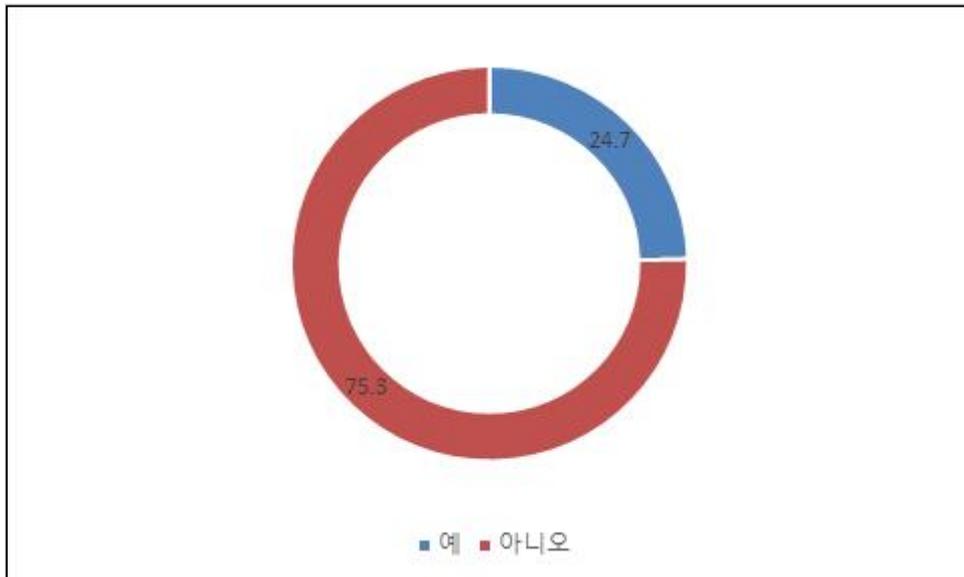
과 남성에 비해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 ‘독립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시스젠더 여성, 남성, 그리고 트랜스젠더에서 각각 28.1%, 32.5%, 24.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차지했지만,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가족 내 정서적/물리적 고통과 학대 등으로 인해서’가 25.0%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독립’이 23.2%를 기록해 다른 집단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혹은 의료적 트랜지션으로 인한 외양의 변화로 원가족에게 쉽게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원가족으로부터 처음 독립한 집

<표 51> 현재 집이 처음 독립한 집인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예	234	24.7
아니오	715	75.3
전체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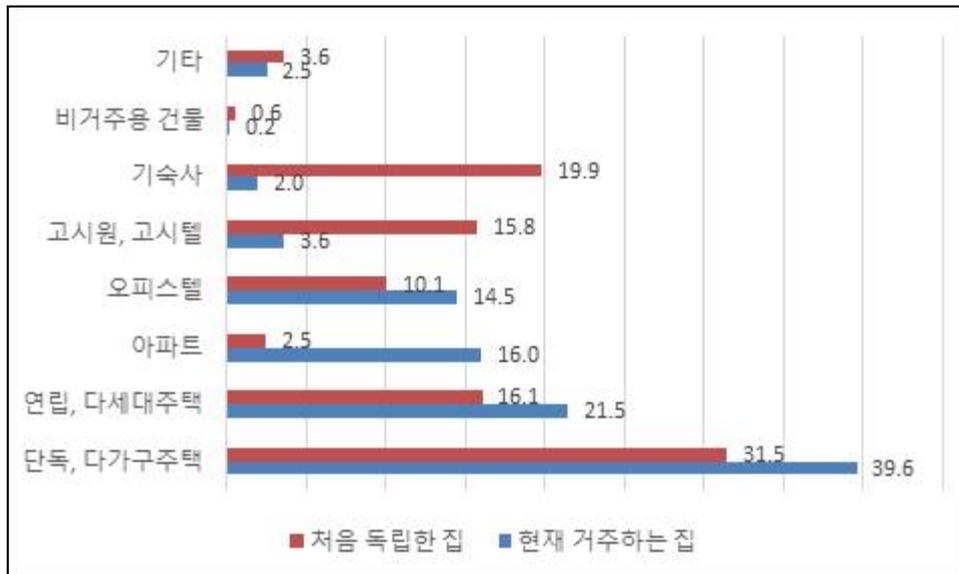
<그림 28> 현재 집이 처음 독립한 집인지 여부 (단위: %)

- 현재 사는 집이 원가족으로부터 처음 독립한 집인지를 묻는 질문에 75.3%는 ‘아니오’를 24.7%는 ‘예’라고 답했다.

<표 52> 처음 독립한 집의 유형

항목	빈도	퍼센트
단독/다가구주택	225	31.5
연립/다세대주택	115	16.1
아파트	18	2.5
오피스텔	72	10.1
고시원/고시텔 등	113	15.8
기숙사	142	19.9
비거주용 건물	4	0.6
기타	26	3.6
전체	715	100.0

○ 처음 독립한 집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독/다가구주택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숙사가 19.9%, 연립/다세대주택이 16.1%, 고시원/고시텔 등이 15.8%, 오피스텔 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집의 거주 유형 (단위: %)

○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처음 독립한 집에 비해 기숙사와 고시원/고시텔의 비중이 크게 줄고, 이외의 거주들(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 중 기숙사와 고시원/고시텔의 비율은 35.7%와 5.6%로 나타나 이 거주 유형의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

다.

- 반면에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각각 10.1%에서 14.5%, 2.5%에서 16.0%, 16.1%에서 21.5%, 31.5%에서 39.6%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처음 독립한 집의 평수

항목	빈도	퍼센트
5평 이하	314	43.9
6평 이상 10평 미만	257	35.9
10평 이상 15평 미만	77	10.8
15평 이상 20평 미만	39	5.5
20평 이상	28	3.9
전체	7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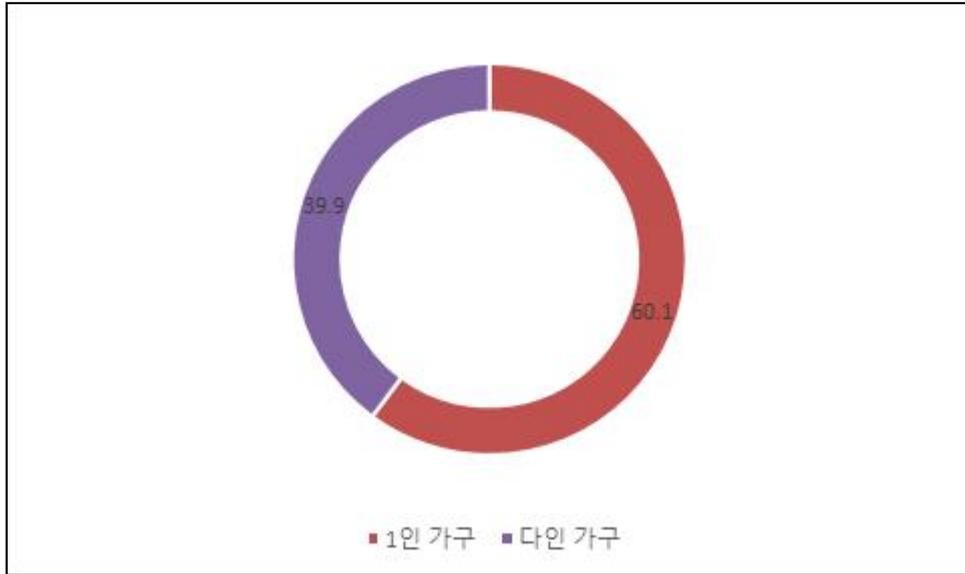


<그림 30> 처음 독립한 집의 평수 (단위: %)

- 처음 독립한 집의 평수를 살펴보면, 5평 이하가 43.9%로 가장 높았고, 6평 이상 10평 미만이 35.9%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79.8%)들이 10평 미만의 집에서 처음 독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형태

항목	빈도	퍼센트
1인 가구	430	60.1
다인 가구	285	39.9
전체	715	100.0



<그림 31>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형태 (단위: %)

-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 형태는 60.1%가 1인 가구, 39.9%가 다인 가구로 나타났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의 가구 형태(1인 가구 71.3%, 다인 가구 28.7%)와 비교하면 다인 가구의 비율이 10%가량 높은데, 이는 기숙사 거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5>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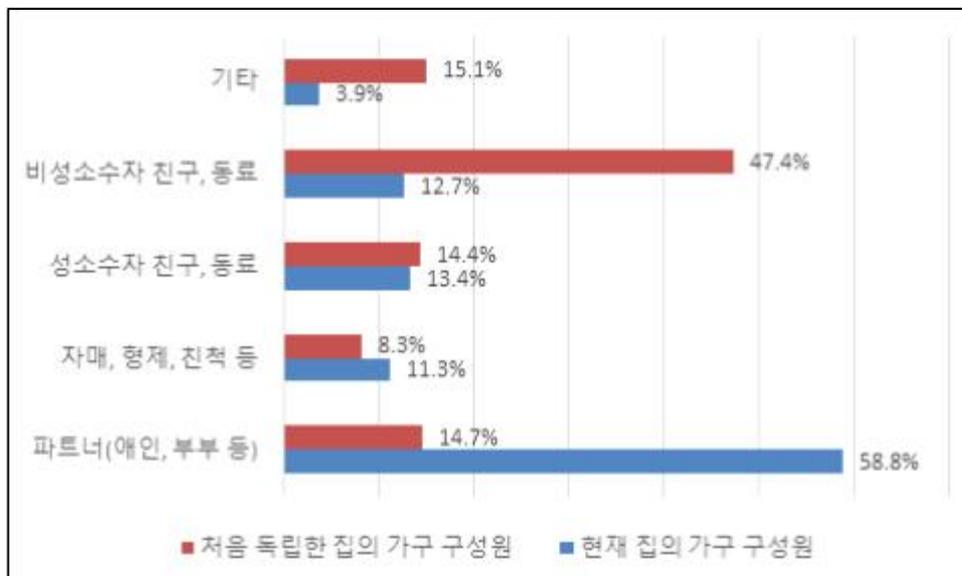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85	3.21	3.424	1	30

- 처음 독립한 집의 가구원 수는 평균 3.21명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의 가구원 수 2.32명보다 1명 정도 더 많게 조사되었다.

<표 56> 처음 독립한 집의 구성원과 관계(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파트너(애인, 부부 등)	46	14.7%
자매, 형제, 친척 등	26	8.3%
성소수자 친구, 동료	45	14.4%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148	47.4%
기타	47	15.1%
전체	312	100.0%

○ 처음 독립한 집의 구성원 관계는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파트너(애인, 부부 등)가 14.7%, 성소수자 친구, 동료가 1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처음 독립한 집과 현재 집의 가구 구성원 비교 (단위: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구 구성원과 비교를 해보면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는 큰 폭으로 줄고, 파트너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처음 독립 했을 시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와 거주 비율은 47.4%에서 12.7%로 줄었고, 파트너와 거주 비율은 14.7%에서 58.8%로 크게 증가했다.
-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기숙사와 홈셰어링(친구와 자취)에서 자신들의 독립 공간으로 거처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표 57> 주거 이력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립한 기간	949	8.31년	7.686	0	40
현재 집 거주기간	949	1.84년	2.846	0	33
독립 후 이사 횟수	949	3.87회	3.524	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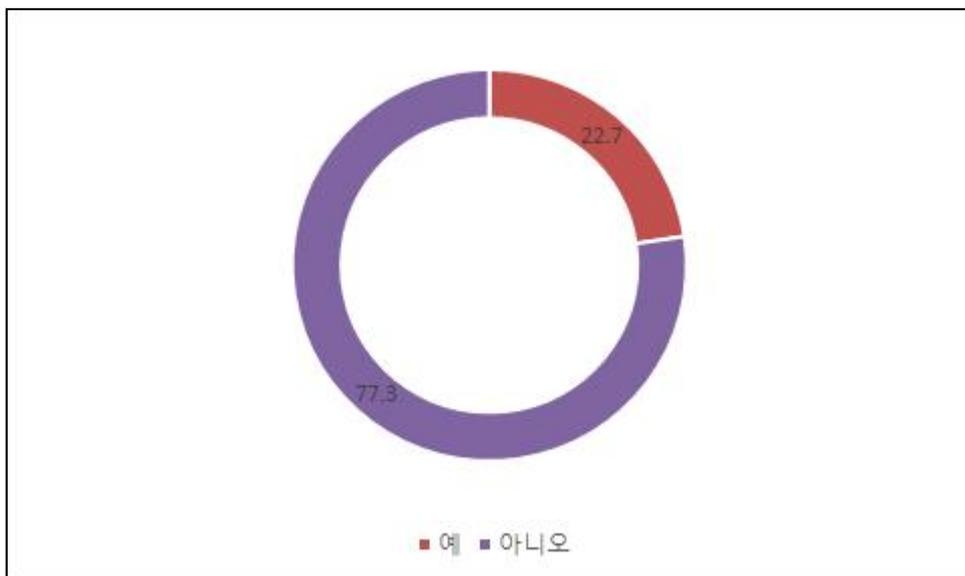
○ 응답자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기간은 평균 8.31년으로 나타났고,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1.84년으로 나타났다. 독립 후 이사 횟수는 평균 3.87회로 조사되었다.

## 2.6.2. 주거 정책

### ■ 주거지원 정책 이용 여부

<표 58> 주거 정책 이용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예	215	22.7
아니오	734	77.3
전체	949	100.0



<그림 33> 주거정책 이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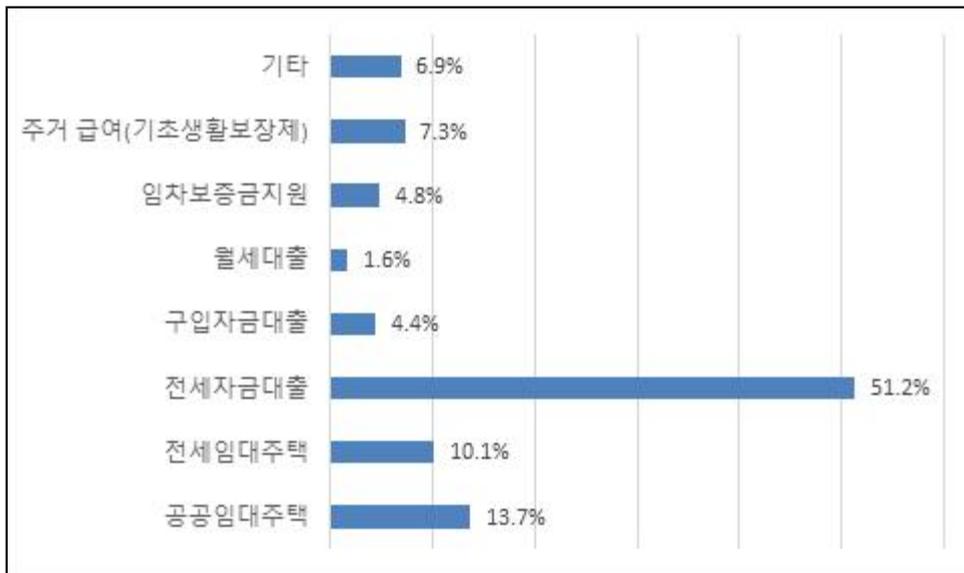
○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정책을 이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수의 응답자가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용한 응답자는 22.7%,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77.3%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이용한 주거정책 종류

<표 59> 이용한 주거정책 종류(다중응답)

항목	빈도	퍼센트
공공임대주택	34	13.7%
전세임대주택	25	10.1%
전세자금대출	127	51.2%
구입자금대출	11	4.4%
월세대출	4	1.6%
임차보증금지원	12	4.8%
주거 급여(기초생활보장제)	18	7.3%
기타	17	6.9%
전체	248	100.0%



<그림 34> 이용한 주거정책 종류

- 주거 지원 정책을 이용한 응답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51.2%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고, 13.7%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을 이용했다. 이외에 10.1%는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했으며, 7.3%는 주거급여를 이용했다.

<표 60> 주거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뭐가 있는지 몰라서	332	45.2
이용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돼서	192	26.2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52	7.1
선정되었으나 주거공간과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7	1.0
선정되었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3	0.4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114	15.5
신청방법과 절차가 어려워서	19	2.6
기타	15	2.0
전체	7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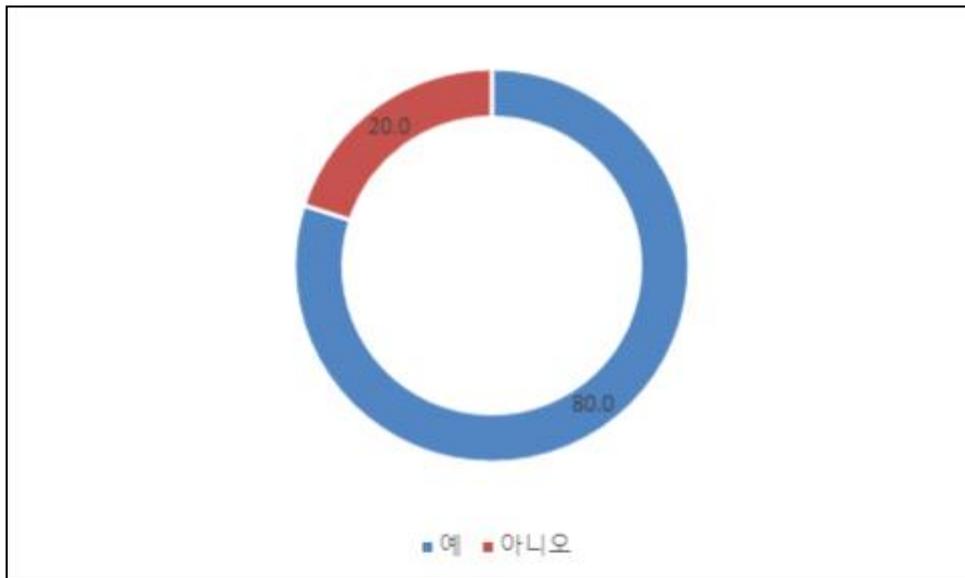
<그림 35> 주거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주거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뭐가 있는지 몰라서’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돼서’가 2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이용하지 않음’이 15.5%,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7.1%로 나타났다.
- ‘뭐가 있는지 몰라서’가 거의 1/2에 육박하는 것을 볼 때, 주거 지원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성소수자 주거정책의 필요성

<표 61> 성소수자 주거정책 필요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예	759	80.0
아니오	190	20.0
전체	949	100.0



<그림 36> 성소수자 주거정책 필요 여부 (단위: %)

-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80.0%는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20.0%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 필요한 주거 정책

- 필요한 주거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던졌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답한 내용은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정은 단순히 주거 정책의 개선만이 아닌 성소수자들의 관계의 안정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같은 결에서 ‘동성결혼법제화’, ‘가족 구성권’ 등도 언급되었으며, 동성 파트너도 이성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언급,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많이 언급했다.

- 더불어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말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의 확대, 그리고 성소수자 공동체 및 타운 등을 언급했다.

■ 지역에 필요한 자원

- 성소수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개방형으로 물었을 때 이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언급되었다.
  - 많이 언급된 내용은 퀴어 프렌들리 병원, 식당, 기업 등 퀴어 프렌들리 생활 필수시설, 성소수자 상담시설, 성중립 화장실, 성소수자 공유 공간 등이 언급되었다.

# 3장

## 성소수자 주거 불안 면접조사

- 3.1 면접조사 개요
- 3.2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 3.3 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주거 불안
- 3.4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주거 불안
- 3.5 성소수자의 자리



## 제3장 성소수자 주거 불안 면접조사

### 3.1 면접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표 62> 면접 대상자 특징

면접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주거 지역	주거 및 점유형태	동거형태 (관계)	주거 정책 이용
A(20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게이	경기도	다세대(투룸), 전세	단독	LH청년 전세임대
B(20대)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서울	다세대(투룸), 반전세	동거 (파트너)	청년전세 자금대출
C(20대)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서울	다가구(투룸), 전세	동거 (파트너)	-
D(20대)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대전	다가구(원룸), 전세	단독	청년전세 자금대출
E(30대)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인천	오피스텔(쓰리룸), 자가	동거 (파트너)	-
F(30대)	트랜스여성	미확인	인천	고시원, 월세	단독	-
G(20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미확인	부산	고시원, 월세	단독	-
H(30대)	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서울	다가구(원룸), 월세	동거 (파트너)	청년전세 자금대출
I(30대)	트랜스여성	데미섹슈얼	경기도	아파트(투룸), 월세	동거 (파트너)	-
J(30대)	시스젠더 남성	게이	경기도	공동주택(투룸), 월세	단독	행복주택
K(30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게이	경기도	공동주택(원룸), 월세	단독	행복주택
L(20대)	시스젠더 남성	게이	서울	오피스텔(원룸), 월세	단독	-
M(30대)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서울	아파트(투룸), 월세	단독	-
N(30대)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서울	연립(투룸), 전세	단독	-
O(30대)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경기도	아파트(쓰리룸), 월세	동거 (파트너)	-

※ 뒷장으로 표 이어짐

면접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주거 지역	주거 및 점유형태	동거형태 (관계)	주거 정책 이용
P(20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게이	서울	다세대(투룸), 월세	셰어 하우스	LH달팽이집 (사회주택)
Q(30대)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서울	아파트(투룸), 월세	동거 (이모 집)	-

-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맥락과 구체적인 양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 설문조사에서 주거 불안 사례를 다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응답자 20인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의사를 타진했다.
  -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7인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성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시스젠더 여성이 7명, 시스젠더 남성이 3명, 트랜스여성 3명, 논바이너리/젠더퀴어 4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10명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층으로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전세(5명)와 월세(11명)로 거주하고 있고, 1명만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자가 거주자를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성소수자는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성애 규범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주거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자가 거주자를 심층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 보고서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2020년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본 단체가 진행한 성소수자 주거 불안 관련 면접자들의 구술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 이들의 구술 내용은 각주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진행된 조사임을 밝혔고, 면접자 표기는 ㄱ, ㄷ, ㄹ 등 한글 자음으로 표기해 본 심층면접의 구술과 구분을 지었다.

## ■ 조사 내용

- 면접은 주로 대상자들이 경험한 주거 불안에 초점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환경, 주거 부담, 주거 이력, 주거 정책, ‘집’의 의미, 향후 주거 전망 등 주거 관련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표 63> 심층면접 질문 내용

항목	내용
주거 현황	- 주거 형태(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 점유 형태(전/월세, 자가 등) 및 구성원 수 - 주택 내부 환경(면적, 방 수, 내부 시설 만족도 등) - 이웃관계 및 주변 환경(치안, 편의시설, 교통 등) 만족도
주거 비용	-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 - 한달 수입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 주거 관련 대출 여부 및 금액
주거 이력	- 원가측으로부터 독립한 이유와 시기 - 현재까지 이주 횟수 및 경로 - 현재 사는 집을 선택한 이유 - 향후 이주 계획
주거 불안	- 주거 관련 차별 및 소외 경험(임대인, 이웃관계 등) -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 경험 - 성정체성에 따른 퇴거 경험
주거 정책	- 주거 지원 정책 이용 여부 - 주거 지원 정책의 개선점
주거 의미	- 자신에게 집이란?

## ■ 조사 방법

- 면접조사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면접에서 얘기되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카페와 같은 개방된 장소는 피하고 주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 거리, 시간 등의 문제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 오지 못하는 경우는 온라인(Zoom)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 면접은 약 2시간 가량 주거 관련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심층면접으로 이뤄졌다.
  - 주로 면접에는 인터뷰어 2인, 인터뷰이 1인이 참여했으며, 간혹 인터뷰어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인터뷰어 1인만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심층면접의 내용은 인터뷰이의 동의하에 녹취를 했으며, 이를 문서화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 3.2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 3.2.1 집의 의미

집이라는 단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머빌은 7개의 단어로 집의 의미를 묘사했다. 안전(보호), 따뜻함, 돌봄(애정), 사적인 공간(사생활의 장소), (정체성의) 근원, 거쳐, 그리고 이상향이 이에 해당된다.<sup>5)</sup> 7개의 의미 중에, 사적인 공간은 학술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다. 알란과 크로우에 따르면 사적 공간은 집의 가장 중심 개념이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타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로 묘사된다.<sup>6)</sup> 손더스 역시 타인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집의 의미를 강조했다. 손더스는 “집은 무대(공적 공간) 뒤의 장소,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자신의 의지대로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sup>7)</sup> 이런 의미에서 집은 거주자들에게 둘러쳐진 성(城)이자, 소속감을 형성하는 장소로 작용한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적인 장소이지만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끼리 함께함, 친밀함, 상호관심을 부추기며 사적인 생활의 경계를 흔든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고 수시로 드나들며 이들의 행동과 문화를 단속한다. 따라서 사적인 공간이라는 집의 의미는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집은 남성 가부장의 시선이 작동하며 여성 아내와 자녀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판옵티콘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페미니즘은 집을 억압의 공간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로즈에 따르면 집을 돌봄(애정)의 장소, 사적인 장소, 그리고 안전한 장소 등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남성들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경험한 집은 가부장의 억압과 폭력이 펼쳐지는 장소, 숨이 막히는 지긋지긋한 장소다.<sup>8)</sup>

이러한 주장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동감하는 것은 아니다. 흑스의 경우 로즈의 입장은 백인 여성들의 경험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다.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이 겪는 성차별 이외에 인종 차별과 문화 차별, 그리고 임금 차별 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세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집은 흑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미치지 않고 돌봄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틈으로 경험된다. 흑인 여성에게 집은 안전의 장소와 저항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5) P. Somerville, 'Homelessness and the meaning of home: rooflessness or root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no. 16 (1992), 528-39.

6) G. Allan and G. Crow, *Home and Family: Creating the domestic sphere*, (Basingstoke: Macmillan, 1989).

7) P. Saunders, 'The meaning of "home" in contemporary English culture', *Housing Studies*, no 4 (1989), 177-92.

8)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138.

9) B. Hooks,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1990), 43-47.

이처럼 집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이 작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매우 모순적이며 가변적인 장소로 경험된다. 성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에게 집은 로즈의 주장처럼 억압과 폭력의 장소이기도 하며, 서머빌과 손더스의 주장처럼 사적인 장소, 자유로운 장소이기도 하며, 혹스의 주장처럼 안전과 저항의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다층적인 집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2.2 화목하고 따뜻한 집이라는 신화: 원가족 부모의 집의 경험

심층면접에 참여한 구술자들에게 원가족 부모 집은 불안, 긴장, 불편의 의미로 경험된다. 그들에게 집은 손더스가 말한 ‘삶의 중심 공간’이 아니다. 또한 서머빌이 분류한 정체성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은 그들의 성적체성을 숨겨야 할 장소로 기능한다. 자신의 성적체성이 언제든지 부모와 형제들에게 아웃팅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항상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신의 정체성 표현을 단속해야 할 상황을 만든다.

“친구들도 다 멀리 멀리 포진해있어서, 요즘은 줌으로 대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도 많이 답답해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이제 원래 학교 근처에 살았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이제 다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가로 돌아가야 하고, 본가에 있으니까 언행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야, 니네 이쪽인 티를 내는 단어 쓰지마!” 약간 그런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집이란 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C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0대

또한 원가족 집의 가부장적 위계는 사적인 공간(자신만의 방)의 침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 예고 없이 방으로 들어오는 부모들의 행동과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시선 등은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성적체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사적 공간의 경계를 지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원가족의 집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불안한 감정에 휩싸인다.

구술자 A씨의 경우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감시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소지품 등을 감시했으며, 자녀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자녀들의 사적 공간을 침범했다. 이런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A씨는 자신의 방에서조차 자신의 성적체성을 단속하며, 항상 아웃팅 위험 속에 살아야 했다.

B씨 역시 A씨의 사례와 비슷했다. B씨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사적 공간의 경계를 침범 당했다. 어머니는 가부장적 아버지와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

을 피해 B씨의 방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고, 이는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지우며 B씨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어머니의 하소연과 감정적 표현은 B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때(월가족과 함께 살 때)는 집이 안전하지 않았죠.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고. 언제나 감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문을 갑자기 벌컥 열거나, 만약에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뭐하고 있는지 조용히 보고 있거나... (중략) 가끔씩 심하면 아버지가 휴대폰 검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고, 그럼 휴대폰이 깨지고 그랬죠.”

A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20대

“제 방이 있긴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합방을 거부하면서 제 방을 거의 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랑 같이 있으면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편하게 둘 곳이 없었어요. (중략)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나온 거기도 해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이러한 불안의 감정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소통과 감정의 공유는 이성애적 에토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가족 구성원의 이성애 규범을 강화하여 성소수자들의 불안을 높이기도 한다. 예컨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자녀에게 ‘너는 남자친구는 있니?’, ‘그 남자 멋지지 않니?’와 같은 부모들의 이성애 규범적 대화는 성소수자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며 이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나 부모에게서 발화되는 호모포비아 발언과 행동들은 성소수자에게 공포로 경험되며,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어지곤 한다.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집에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막 무섭고,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특히 호모포비아도 아주 굉장히... (중략) TV에 이제 어떤 커밍아웃한 연예인이 나오면 굉장히 혐오하시고. (중략) 뭐가 집에 있을 때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 성격도 되게 강하시고. 그러니까 불안한 점들이 많았죠. 집이 아무리 지금 느끼는 그런 주거 불안이 하나도 없었지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M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예전부터 들키면(아웃팅되면) 그냥 죽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동성애) 반대집회까지 나가는데, 제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거 생각하

면... 저를 이끌려고 그런 집회를 나가서 저를 앞에 세우고 별 짓거리를 다 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이예요, 진짜로. 그런 꼴을 당하느니 저는 차라리 진짜...”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따라서 원가족 집에서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밀리에 수행해야 하며, 성정체성을 노출할 수 있는 물품과 언어, 그리고 사회관계는 철저히 감춰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배지와 팔찌와 같은 장식품들은 서랍 속에 봉인되어야 하며, 쿼어 관련 포스터나 홍보물 역시 가족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파트너(연인)가 있다면 그와 주고받는 문자와 전화 역시 철저히 숨겨야 한다. 가령 A씨의 사례처럼 손전화에 파트너 이름을 여성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철저하게 파트너와 관계를 숨긴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손전화는 항상 자신의 손 안에 들려 있어야 한다. 구술자 O씨(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의 언급처럼 “계속 물건과 소지품을 점검하고 체크해야”하는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불편한”상황에 처한다.

“(파트너에게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거나, 혹시나 몰라서 휴대폰에서 이름을 여자이름처럼 바꿔놓기도 하고. 애인을 사귄 때도 그 때 당시 카톡 나오기 전에 문자 이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그 때도 이름을 여자이름처럼 바꿔놓기도 하고 그랬죠.”

A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20대

“이제 소지품부터 해서, 그냥 뭐든 되게 사소한 어떤 모든 것도, 편지, 뭐 일기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항상 감추면서 지내야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잠금 설정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보기 같은 게 뜨지 않고. (중략) 쿼어 퍼레이드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이제 팸플릿 이런 거 막 다 나오는데, 항상 어디 책 사이에 이렇게 잘 넣어서, 넣어놔야 되고. 저의 어떤 물건과 소지품들을 항상 점검하고, 뭔가 이게 지금 노출된 게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성정체성과 관련된 거는 모든 게 불편했어요.”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애인한테 (전화로) 연락 오면 이 이름이 뜨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엄마가 정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 전화를 받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애인’ 이렇게 이름이 떠 있으면, 받았는데 목소리가 여자면 엄마가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혼자 시나리오를 쓰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H씨, 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



족 부모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위험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사실 가정폭력은 그 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제 (작년) 6월 말쯤에 정말 조금 심했거든요. 그때 막 엄마가 막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중략)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 그것도 그냥 정말 죽여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여 버리고 싶다.” 그런 정말 온갖 그런, 그런 말들이 나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런 걸 보면서 당일에 좀 결심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에 더 있는 거는 이제는 진짜 위험하다.’ (중략) 그런 정말 좀 위협을 좀 느꼈어서. 그 가출을 당일에 결심을 했던 거였거든요.”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집은 따뜻함이 묻어있는 곳으로 가정된다. 또한 집은 온전히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사적인 공간)로 정의된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원가족 부모의 집은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장소이며, 내내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다.<sup>11)</sup> 따라서 성소수자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은 거처의 의미는 갖지만 사적인 공간, 정체성의 근원, 그리고 안전한 장소와 같은 의미는 갖지 못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행하고,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때는 그들이 자신만의 집을 얻을 때다.<sup>12)</sup>

### 3.2.3 독립의 경험과 나만의 공간

#### (1)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아~ 살 것 같다!”

구술자들은 처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집을 구했을 때의 경험을 ‘편안’, ‘안정’, ‘눈치보지 않는’, ‘신남’ 등으로 표현하며, 자유로워진 상황을 묘사한다. 무엇보다 원가족 부모 집의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데서 이제야 “살 것 같”은 생존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집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안전의 공간, 사적인 공간으로 집을 경험하게 했다.

“내 공간이 생겼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게 여기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11) 캐스 브라운 외,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 외 역, 이매진, 2018, 16.

12) L. Johnston and G. Valentine, “Wherever I Lay My Girlfriend, That’s My Home” in D. Bell and G. Valentine, eds., *Mapping Desi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94.

“아~ 살 것 같다! 하하하(웃음). 되게 후련했어요. 일단 그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지고. 이제 본가에서 설 때랑 완전히 다른... 그러더라고요, (중략)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 있는.”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학점 개판으로 나오고, 학교 안 가고. 첫 독립이고, 첫 혼자살이에, 서울 사니까 너무 신이 나서 별거를 하지 않았지만 방에 누워있기만 해도 좋았거든요. 진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나의 허락 없이는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냥 그 사실이 좋아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L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20대

“뭔가 살 것 같다! (중략)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더 잘 자고, 더 일찍 잘 일어나고. ‘좀 더 잘 먹어볼까, 잘 챙겨볼까’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저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유롭다!’라는 생각. 물론 그만큼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거움도 있었어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이런 독립의 기쁨은 집꾸미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들이 원 가족 부모 집에서 숨겨야 했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배치하며 자신만의 집을 꾸몄다. H씨(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의 경우 자신이 산 물건으로 집이 채워지는 모습에 만족을 느끼기도 했으며, G씨(논바이너리/젠더퀴어, 안드로진, 20대)의 경우 벽에 논바이너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걸어 놓으며 자신의 방을 꾸미기도 했다. 파트너(애인)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사진을 방 안에 배치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먼-머레이는 집을 장식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전시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집을 장식하는 물건, 가구, 포스터, 사진, 책, 음반 등은 거주자 삶의 서사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다양한 편린들을 재현한다.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은 이 물건들과 장식들을 배치하고 나열하며 자아의 다양한 정체성의 편린들을 통합한다”고 말한다.<sup>13)</sup>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집에 걸고, 파트너와 함께 찍은 커플 사진 액자를 전시하며, 퀴어 관련 책과 포스터, 홍보물을 집안 전면에 배치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집을 매개로 표현하고 재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지고 관리되는 집은 거주자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재생산하며 정체성의 근원의 공간으로 작용한다.<sup>14)</sup>

13) A. Gorman-Murray, “Reconciling self: gay men and lesbians using domestic materiality for identity management,”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vol 9(3) (May, 2008), 283-301.

14) I. M. Young. *On Female Body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42.

다르게 말하면,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집을 장식하고 꾸미는 일련의 과정은 그 공간을 퀴어의 장소로 전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전유를 통해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존재론적 안전을 확보하는 일종의 틈과 경계를 만든다.<sup>15)</sup> 그러나 성소수자의 집이 항상 틈과 경계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계는 가족과 외부인의 방문에 의해서 쉽게 허물어지기도 하며, 이웃들에 의해서 항상 침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침범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주거 불안에 처한다.

## (2) 협상과 타협: 자기만의 방을 보호하기

자신의 집에 자신의 정체성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집꾸미기)은 외부와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원가족 부모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서 이들의 의도치 않는 방문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은 외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품을 전시하거나 파트너와 동거를 하는 경우 방의 사용을 재배치한다.

구술자 O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O씨는 현재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있다. 원가족과 주변에는 파트너를 친구로 소개하며 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다고 말한 상황이다. 둘의 집은 여타 이성 신혼부부의 집과 다름없이 함께 쓰는 침실, 옷방, 작업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O씨가 보기에 이 방들의 모습이 “신혼부부의 집”과 같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래서 O씨는 함께 쓰는 안방에 싱글 침대 두 개를 붙여놓았다. 원래 큰 사이즈의 침대 하나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주변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눈치 챌 우려가 있어 각자 쓰던 침대를 붙였다. 또한 O씨는 파트너와 함께 안방을 쓰는 것에 관한 원가족의 불편한 의혹의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즉 “같은 월세를 내는데 누구는 큰방을 쓰고, 누구는 작은 방을 쓰는 것은 감정 상할 일이다”라는 말을 수시로 원가족에게 하며 둘이 한 방을 쓰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제 이 집을, 공간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성이 드러나잖아요. 둘이 방을 하나로, 옷방으로 같이 쓰고, 서재로 같이 쓰고, 침실을 같이 쓰고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상 너무 이제 이거를 신혼부부의 집인 거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놓으면 좀 엄마, 아빠가 눈치를 못 챌까.’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침대를 큰 걸 안 샀어요. 각자 쓰던 싱글 침대를 그냥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걸로

15)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Pratt은 캐나다 백인 가정에서 숙박하며 일하는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전유를 말한다. 필리핀 여성은 백인 가정 내 자신의 방에 포스터를 붙이며 자신 방의 경계를 만든다. 그리고 이 경계는 백인 가정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Pratt, *Geographies of Identity and Difference: Making Boundaries*, in D. Massey and J. Allan and P. Sarre, eds., *Human Geography Today* (Cambridge: Polity, 1999), 151-168.)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실에 침대가 이제 싱글 침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예요. 그걸 이제 붙여놓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봤을 때는 한 침대에 쓰는 건 아니죠. 하하하(웃음). 분리돼 있으니까. 하하하하(웃음). 제가 겁이 많다는 걸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어쨌든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지내는 게 좋다.”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침대 쓰는 건 어른들 이해를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침대를 안 샀어요. 그랬더니 좀 되게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다 “음음”하고 넘어가고. (중략) 이 방이, 세 방이 같은 평수로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큰 방을 쓰고 누구는 작은 방을 쓰는 건 이거는 조금... 엄마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월세를 똑같이 냈는데, 나는 안방 쓰고 그 친구는 작은 방 쓰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괜히 좀 감정 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공간을 이렇게(함께)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사 전부터 미리 좀 아무렇지 않게 막 고민처럼 이야기를 해냈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치밀해야 돼요, 진짜 모든 게.”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아웃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침대를 두 개 붙여 사용하는 사례는 O씨만이 아니다. B씨<sup>16)</sup>도 이성 신혼집처럼 꾸며 놓은 집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에 대비해서 침대 두 개를 붙여 파트너와 함께 방을 쓰고 있다. 이렇듯 침대 붙이기는 파트너와 관계를 “친구인 척” 연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자 외부와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신혼집처럼 꾸며져 있어요. 근데 슬픈 게 둘이서 친구인 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침대를 두 개 사자. 그래서 더블을 두 개 샀거든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이러한 협상의 과정은 성정체성을 상징하는 물품을 숨길 때도 이뤄진다. 성소수자들은 외부인의 방문 시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것이 바로 이 물품들이다. 집을 장식하는 물품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재현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인에 의해 아웃팅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쉽게 숨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건들을 장식하고 배치한다.

예컨대 고시원에 살고 있는 G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G씨는 자신의 방 전면에 큰 눈 바이너리 깃발을 걸어 놓고 책장에는 다양한 퀴어 관련 책과 성소수자 인권 책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시원의 특성상 발생하는 방의 문제(단수, 단전, 냉방 등) 때문에 총무가 방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G씨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퀴어 관련

16) B씨는 본 사업에서 진행한 심층면접 참여자가 아닌 2020년 본 네트워크가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에 참여한 구술자다. 이후 인용될 알파벳이 아닌 한글 자음 구술자(B씨, S씨, G씨 등)는 모두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에 참여한 구술자임을 밝힌다.

책들은 책등이 안 보이게 꽃거나 한지로 가리고, 깃발은 바로 풀 수 있게 매어놓는다. O씨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며 물품을 숨긴다.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쉽게 서랍으로 숨길 수 있도록 작은 액자에 넣어 관리한다.

“성소수자 인권 주로 이런 굵은 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페미니즘, 퀴어 이렇게 적힌 거는 다 책등을 다 뒤집어서 하거나 아니면 한지 같은 걸로 가려놓거나... (중략) 약간 그 뭐지. 미션 임파서블 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찰찰찰찰~’ 이렇게 해요. 프로세스처럼 딱 책도, 이게 딱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타라라락 이렇게 하고(뒤집어놓고). 뭐 인권포럼 이런 굵다란 책은 아예 일렬로 세워놓고 한지를 그냥 짝 내려요. 그러면 다 가려져요.”  
G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안드로진), 20대

“(커플 사진이) 최근에 하나 생겼는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뭐랄까... 부모님이 오실 때 바로 서랍에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큰 사이즈로 출력력을 한 다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바로 삭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정도고 다른 거는 없죠. 다른 뭐 사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평생에 이렇게 해온 거라... 하하하(웃음)~ 굉장히 힘들진 않지만. 하하하(웃음)~ 짜증이 나는, 약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G씨의 언급처럼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품들은 루틴(routine)에 따라서 쉽게 감춰줘야 한다. 힘들게 옮겨야 하는 물건, 눈에 띄기 쉬운 물건, 숨기기 어려운 큰 물건들, 즉 루틴이 적용되기 힘든 물건들은 자신의 방에 놓일 수 없다. 따라서 방을 장식하는 물건과 이것을 숨기는 루틴은 외부와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협상되어온 실천의 결과다. 성정체성의 표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지기보다는 외부와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이것과 협상, 타협하며 재구성되는 것을 구술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숨김과 가구 배치의 변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낚시와 O씨가 언급한 것처럼 ‘슬픔’, ‘짜증’으로 체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슬픔’과 ‘짜증’은 몇 번의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외부와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들의 주거 불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부정의 감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소외와 불안: “우리 사는 모습을 숨기고 가리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지 않아요.”

구술자들이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독립한 후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우리가 쉽게 예

상하는 임대료, 관리금,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퇴거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회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상술한 것처럼 그들이 꾸며놓은 쿼어 공간은 외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동료들의 방문 등에 의해서 노출될 위험이 많다. 또한 집에 문제가 생겨 외부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경우 자신들이 꾸며놓은 장식과 물품들이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성소수자들은 불안과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성소수자들은 부모를 포함한 외부인들이 집을 방문할 때 장식해 놓은 물품과 상징들을 감추거나 파트너와 동거를 할 경우 파트너를 잠시 외출시키기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한다. 이러한 물품과 파트너의 숨김은 한편으론 앞 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협상과 타협의 전략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성소수자의 공간을 이성애 규범성에 맞춰 재정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공간을 낮설게 하며 불안을 만든다.

“진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부모님) 초대는 해야 돼서. 오면 어쨌든 애인이랑 찍은 사진이랑,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올 때마다 액자를 떼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근데 그거 하는 게(숨기는 게)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중략) 내가 무슨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걸 내 손으로 다 떼야 되고. 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 못한 어떤 게 있어서 엄마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지?’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집안을 둘러보고 점검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H씨, 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

“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모든 물건을 숨기고 그랬어야 돼요. 커플복도 있는데 그것도 숨겼어야 되고, 뭐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모든 걸 숨겼어야 하죠. 정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늘 스트레스였어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스트레스’, ‘기분 나쁨’, ‘괴로움’으로 표현되는 물품의 숨김은 외부인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순간의 불편함만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상술했듯이 집안의 장식품과 물건들은 거주자의 다양한 정체성을 재현하며 정체성의 편린들을 통합한다. 따라서 자신의 집을 이성애 규범성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매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는 모습을 숨기고 가리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내 집인데 무지개 하나 못 걸고 그럼 얼마나 슬퍼요”라는 S씨(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의 구술<sup>17)</sup>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외부인의 시선을 살피며 끊임없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장해야 하는 성소수자의 불안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소외의 경험과 교차한다.<sup>18)</sup> 예기는 소외

17)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가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20년에 진행한 심층면접을 인용했다.

를 ‘관계 상실의 관계’(relation of relationlessness)로 정의하며, 주체가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전유 능력의 상실)로 규정한다. 여기서 관계란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주체가 자아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 관계를 함의한다. 우리는 자신과 외부 세계(대상)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목적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변용하는, 즉 전유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유 관계는 주체의 성찰과 해석, 평가,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재전유된다. 소외란 바로 이 전유와 재전유 관계가 방해되고 중단될 때 발생한다.<sup>19)</sup> 예컨대 성소수자는 집에서 장식품과 물품을 전시하며 성소수자로서 자아의 관계를 전유한다. 동시에 이 물품을 매개로 집이라는 세계(외부)를 자신의 의지와 목적대로 전유하며 귀어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외부인의 방문으로 방해되며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집)의 관계를 상실하고 부정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소외로 경험되는 주거 불안은 외부인의 방문과 같은 간헐적인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은 이들의 주거 불안을 상존시킨다. 특히 파트너와 동거하는 성소수자들은 이웃들의 시선을 인식하며 자신들의 친밀한 행동을 단속한다. 행여 자신들의 관계가 이웃들에게 노출될 경우 혐오의 시선과 표현으로 이들의 정주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구술자 N씨의 표현대로 전월세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중략) 그리고 당연히 애인이랑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20대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에 계속 못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M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그 상대방(예전 애인)이 우울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웃한테 해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겪은 적도 있고,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집 앞에서 손잡거나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고. (중략) 집주인이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H씨, 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

“집주인이 계약할 때 알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귀어이지 않는다면...”

N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18) D. Madden and P. Marcuse, *In defense of housing* (London · New York: Verso, 2016), 53.

19) R. Jaeggi, *Alienation*, tr. Frederick Neuhouser and Alan E. Smi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아무리 성소수자가 이웃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여도 벽간, 층간 소음이 심한 국내 주거 환경은 이들의 사적인 대화가 옆집에 의도치 않게 공개 될 위험이 있다. E씨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조차 파트너를 부르는 호칭(여보)을 자제한다. 자신들이 대화가 건물을 통해 울리며 옆집에 노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실, 발코니와 같이 층간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더더욱 자신들의 대화를 단속한다.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막 여보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쓰지 말라”고. 건물에 울릴 수도 있잖아요. 말조심하라고, 화장실 같은 데 특히 많이 울리니까. 좀 그런 건 예민해졌어요.”

E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이렇듯 성소수자들은 이웃들의 시선으로부터 매순간 주거 불안을 겪는다. E씨의 표현대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예민”하게 되며 설 새 없이 파고드는 주거 불안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불안은 자신 혹은 파트너와 관계를 부정하는 소외로 인식되며, “불편함”, “피곤함”, “무력감”과 같은 감정의 상처로 경험된다. 특히 이웃들의 사생활 간섭, 가령 파트너의 신상을 캐묻는 상황은 이 감정의 상처를 덧나게 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이웃들이 파트너를 묻는 질문에 가족 혹은 친구 등으로 소개를 한다. 이웃에 의한 아웃팅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이런 관계의 위장은 이성애 규범성에 맞춰 자신들의 관계를 맞춰야 하는 무력감, 곤란함, 죄책감, 불편함으로 인식된다.

“(파트너를) 그냥 언니라고 소개를 하고, 그럼 “그 언니는 뭐 하는 언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대답을 해드릴 수 있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냥 언니가 아니잖아요. 기분이 되게 묘해지는 거죠. (중략) 네일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희끼리는 사실상 서로를 부부라고 인정하고 있고, 아내라고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저 결혼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없는 남편한테 제 아내를 치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곤란해지는 게, “그럼 남편은 군대 다녀왔어요?” 이런 거. 제 아내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는데, “아, 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누군가한테 악의가 없더라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 그랬어요, 지금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하루는 제가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때 그 같이 가던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

는데, 그 때 사귀었던 친구가 부치<sup>20</sup>여서 너무 외모가 티가 났던 거예요. 미용실이 1층 대로변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저는 그 분이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되게 놀라서... “그 친구는 여자인데 머리가 짧다”고 얘기하고 다시는 그 미용실에 안 갔어요. (중략) 제가 헤테로였으면 “사귀는 사람이예요”, 아니면 그 분이 “남자친구랑 가더라?” 이렇게 하면 “아, 보셨어요?”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되게 감추게 되는 거죠.”

N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B씨가 ‘느낀 묘한 감정’, ‘피곤함’과 N씨가 느낀 ‘놀람’은 자신과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하는 복잡한 감정을 보여준다. B씨는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위장하며 거짓 상황을 연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 피곤함과 묘한 감정의 부담을 느낀다. N씨는 이웃의 시선으로부터 전 파트너와 자신의 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당황해하며 놀란다. 이렇게 놀람과 피곤함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부담은 자신과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자매나 친구로 이웃들에게 인식되었을 때도 경험된다. 아래 N씨의 구술처럼 이웃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자매로 생각했음에도 계속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C씨의 구술처럼 “뭔가 개운하지 않”은 불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 때 제 여자 친구랑 같이 살 때었는데, 그 때 옆집 할머니께서 보더니 “언니랑 같이 사나보네. 둘이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네” 이렇게 했고. “왜 둘이 결혼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불편했어요. (중략) 여자 친구랑 헤어져서 여자 친구가 나갔거든요. “짜웠어?”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내가 그냥 여자인 친구랑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을 텐데, 자꾸 해명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여자애들끼리 같이 살아서, 그냥 친구끼리 사는 걸로 패싱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했었어요.”

N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일단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일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니까 나이 분간이 더 어렵잖아요. 오히려 오해받아서 더 편한 느낌이랄까. 형제나 약간 남매나 그런 혈육관계로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편하기는 하죠. 그치만 개운하진 않죠.”

C씨, 시스젠더 여성, 20대

이렇듯 성소수자는 이웃들과 관계에서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다. 자신과 파트너의 관

20)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부치’는 중성적인 스타일의 외모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계가 노출될까봐 위장을 하고 속이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피곤함을 느낀다. 또한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가 이웃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로 이해되어도 왜곡되어 인지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감정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명해야 할 것 같은 감정의 피곤함을 만든다.

여기에 이웃들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성소수자에게 구체적인 위협을 추가한다. 구술자 J씨의 경우 같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J씨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 건물의 문제나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2020년)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성소수자들의 혐오 발언이 사회적으로 심해졌을 때, J씨가 참여한 채팅방에서도 게이를 포함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퍼졌다. J씨는 이러한 혐오 발언에 대항하면서 “게이가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더욱 공격적인 발언을 들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이후 J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차 운전석에 올려놓은 무지개 깃발을 치워야만 했다.

“이게~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온라인)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구경을 좀 했어요. 여기 주변에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작년 5월 달에 성소수자 코로나 해가지고, [질문자: 이태원~] 이태원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온라인 채팅방)서 무슨 혐오 발언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기분이 좀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게이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집중 포화를 받은 거예요. 하하하(헛웃음). “게이들이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코로나 시국에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 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동까지 썼었거든요. 000동의 닉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000동에 사는 너가 게이구나!” 이제 뭐 한 열댓 명 정도가 이제 욕...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 좋은 말들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 좀 많이... 그리고 저는 차에다가 그 레인보우 플래그, 플래그... 긴 거? 아무튼 이걸 저기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운전... 거기 보이는 데다가. 그것까지 올려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걸 제거했어요. 혹시나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그때 좀 받았던 충격이 좀 있었어서 가지고.”

J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이웃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불편의 감정과 위협은 집을 계약할 때도 발생한다. 많은 구술자들이 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 역시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숨긴다. O씨의 경우 집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이 파트너와 관계를 물어볼까 조마조마했”던 감정을 경험했으며, E씨의 경우 “파트너를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에 대해 곤란함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H씨 역시 파트너 관계를 속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

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했다.

“둘이서 집을 구하려고 시도해보니까 딱 반응이 “누구인가요?, 자매인가요?”  
“친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식의 대화들... 제가 기분이 안 좋고, 계속  
집주인 하고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은 아니죠. 뭔가를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H씨, 트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

특히 아직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집 계약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현재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상황은 임대차 계약 시 아웃팅으로 이어져 계약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트랜스젠더가 다른 성소수자 집단보다 집 계약 시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 불편하다’의 응답(52.2%(n=12))이 높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주거 불안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집 계약 시 법적 성별 문제로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거나 계약을 파기당한 경험을 서술하기도 했다.

구술자들 경험도 이와 비슷했다. 트랜스젠더 D씨, F씨, I씨 모두 부동산 집 계약 시 성별 문제로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I씨의 경우 현재는 법적 성별을 정정한 상태지만 과거 성별 정정 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웃팅의 우려로 계약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스스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과 불편함 중에 “계약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트랜스젠더에게 임대차 계약은 매우 위험 요소로 경험된다.

“(집) 계약할 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 계약할 때. (중략) (다행히) 주민번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오피스텔이고, 빌라주인세대였다 보니까 관리를 탄 분들이 해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 있을 때는 집주인을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파트너 이름으로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I씨, 트랜스여성, 데미섹슈얼, 30대

다행히 I씨는 오피스텔과 빌라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전월세 계약을 맺어 집주인과 마주치지 않았고, 이 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 아웃팅의 위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었다. F씨의 사례도 I씨와 유사하다. F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이주를 하며 계약을 할 때 아웃팅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고시원에서 성별을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아 무사히 계약을 할 수 있었다. D씨는 아직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지 않아 집 계약 시 법적 성별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D씨는 현재 여성으로 정체화한 상황에서 남성으로 표기된 법적 성별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 집 계약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떼는 모

든 상황이 불편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는 F씨도 마찬가지다. 트랜스젠더에게 집 계약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하는 모든 상황은 위기와 불안으로 다가온다.

“제가 지금 여기 고시원에 사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주인은 제가 남자인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월세를 현금으로 계속 이렇게 내는데 거기 무슨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런 적어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별도 체크하는 사람이 그냥 여자에 체크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중략) 신경이 많이 쓰이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이렇게 커밍(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집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면접을 보더라도 일단 커밍을 하고 시작해야 하니까...”

F씨, 트랜스여성, 헤테로섹슈얼, 30대

“저는 그냥 사실 늘 그냥 공무원사가 사실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아무래도 법적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특별히 임대차 계약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냥 늘 좀 불편하기는 하죠. 항상 그런 그 정부 공무원서 같은 거 땔 때나,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고. 가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집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간을 탈취어화(물품의 숨김 등)하거나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이성애 규범에 맞춰 수행하고 단속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신과 외부(세계) 관계의 부정과 상실로 이어져 소외를 경험한다. 이처럼 성소수자가 일상의 관계에서 마주치는 주거 불안은 무력감, 슬픔, 스트레스, 당혹감, 죄책감, 불편함, 기분 나쁨 등의 다양한 소외의 감정이 교차하며 복잡하고 민감한 양상으로 체험된다. 여기에 이웃들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의 실질적인 위협이 포개지며 주거 불안은 감정의 차원과 더불어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3.2.4 주거 제도로부터 배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주거 불안은 주거 공간의 접근 제한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성별 이분법을 기초로 구성되는 주거 공간(기숙사, 고시원, 쉼터 등)은 성소수자들이 이 공간에 접근할 기회를 낮춰, 주거 공간의 선택지를 협소하게 만든다.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를 사례로 들면, 이 공간은 남성, 여성 쉼터로만 운영되고 있어 성정체성 문제로 가출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 쉼터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쉼터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기 일수다. 이런 성별 이분법 공간에 적응 못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노숙과 쉼터 생활을

반복하며 심각한 주거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sup>21)</sup>

구술자들의 경우 성별 이분법의 주거 공간으로 인해 주거 선택에 제약을 받은 사례는 대학 기숙사다. 대학 기숙사 역시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공간 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성소수자들의 주거 선택을 제한한다. D씨의 경우 아웃팅 이후 원가족 부모의 폭력을 피해 지인들의 집과 동아리방 생활을 전전해야 했다. 만약 이 거처 없는 기간 동안 대학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주거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가을 학기에 기숙사를 들어갔다면, 제가 동아리 방에서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는 했어요. 가을 학기에 기숙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도 됐었고. 그러니까 뭐 월세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계약을 하거나, 기숙사가 좀 더 저렴하니까 기숙사에서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저로서는 이제 기숙사가 아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아니었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기숙사 시설이 성별이 분리되는 공간이잖아요. 남녀 성별이 분리된 공간이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실도 있는데, 1인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성별을 분리를 해나서 남자건물, 여자 건물을 따로...”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D씨는 트랜스여성으로 정체화를 했지만 아직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D씨는 기숙사의 남성과 여성의 공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기숙사를 주거 선택지에서 지워야 했다. 이러한 사정은 시스젠더 남성 S씨<sup>22)</sup>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다. S씨는 대학교 진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남성과 지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기숙사를 선택지에서 빼야 했다.

“아버지가 “너, 기숙사 들어가라, 기숙사가 더 싸니까.” 근데 제가 아예 말했어요. “나는 다른 남자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내 선택지가 아니다. 난 무조건 자취를 혼자서 해야 한다. 동거도 안 된다. 일단 혼자 살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S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기숙사를 선택할 수 없었던 S씨는 단수가 자주 되고, 겨울에는 수도 동파가 빈번히 일어나는 매우 열악한 원룸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했다. 운 좋게 기숙사에 입실을 한다 해도 성소수자들에게 기숙사 생활은 곤욕이다. J씨의 경우 2인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숨기고 단속해야 하는 불편을 경험해야 했다. J씨는 앞 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부(룸메이트)와 관계에서 자신의 성

21) 주거권 운동네트워크, 『집은 인권이다』, 이후, 2010, 236.

22) 2020년에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했다.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편한 소외의 감정을 느껴야 했다.

“이를테면 어떤 뭐가... 친구들이랑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보일까봐. 뭐~ 이를테면 옛날에는 ‘오렌지동’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음 카페 ‘성소수자들 카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뒤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책상에서 하고 싶은데, 굳이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막하고 있어야 한다든지... 굳이 막~ 선 다 끌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제 방에서 편하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이제 뭐 룸메이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여 했던 것 같고... (중략)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랬어요. 서랍에. 그러니까 뭐 이런... 성소수자 쿼어 퍼레이드 이런 데를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올 거잖아요. 이것저것 굶즈나 이런 것들...”

J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성소수자의 주거 선택의 제한은 기숙사, 쉼터와 같은 성별 분리에 기초한 다중생활 시설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과 같은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도 이들의 선택은 제한된다. 국내 주거정책이 이성애 혈연관계에 기초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sup>23)</sup>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성소수자들은 자연스럽게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스젠더 여성 B씨(레즈비언, 30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녀는 과거부터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청약 저축을 10년 넘게 꾸준히 붓고 있었다. 청약 점수도 높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B씨 혼자서 주택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받으려고 했지만, 전매제한<sup>24)</sup>에 걸려서 분양권을 얻을 수 없었다. 만약 둘 사이의 관계가 부부로 인정이 되었다면 전매제한 예외사항으로 공동명의로 가능해 분양 금액을 분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분양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18살 때부터, 일단 만점일걸요? (주택 청약저축을) 10년 넘게 넣었네요. 근데 그 돈으로는 청약을 하면 문제가, 제가 애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안 된대요. 제가 그 친구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전매제한이 걸린대요. 전매제한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었으면 그 친구와 공동명의를 받고 같이 대출을 했

23) 앞의 책, 337.

24)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구술자가 말한 예외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556437>)

으면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전매제한 때문에 공동명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 혼자 주택 대금을 다 내야 하는데 그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중략) 동성혼이 인정됐으면 전매제한도 안 걸리고, 둘의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매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둘의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망했어요.”

ㄴ씨(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ㄴ씨가 잠깐 언급한 동성혼 인정은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성혼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 커플들은 주거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이성(hetero) 신혼부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가령 이성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 등과 같은 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자부담 경감 등과 같은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으며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커플은 이러한 정책에서 빗겨나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신혼부부와 달리) 이제 (이주) 계획을 세워도 모든 걸 저희 둘이, 둘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더 이제 이웃의 신혼부부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밉고.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어쨌든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주거 정책에서 신혼부부 말고는, 그게 어쨌든 가족관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살고 있고 실상 거의 생활하는 건 다를 바가 없는데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ㄴ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만약에 저희가 부부로 인정이 됐으면, 청년 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대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집을 갔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중략) 그리고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신혼부부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서.”

ㄴ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사실 부천에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던 게 있는데, 어차피 실거주, 실제 동거 상태면 신혼부부랑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직전에 그냥 혼인신고서를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신혼대출이,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되니까. ‘그렇게 (집 마

런해서) 돈 버는 게 이득이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죠 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사실 (아파트가) 돈 버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중략)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중략) 어차피 동거가족도 가족인데. ‘**신혼부부의 존재 목적을 재생산에만 두는 게 아닌가. 정확히 얘기하면 출산율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니까.”

I씨, 트랜스여성, 데미섹슈얼, 30대

위의 구술들은 주택 정책에서 성소수자가 소외받는 양상과 그 상대적 박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I씨는 이성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택 정책이 세대의 재생산(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한다. 이성 신혼부부에게 제공 되는 주거 정책과 수많은 혜택들은 이 사회가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이성간 결혼에 강조점을 찍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곧 개인의 생애 과정이 재생산(출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퀴어 이론가 할버스탐은 이를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으로 개념화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과정, 즉 출생-결혼-출산-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자연적인,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과정은 권력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은 단지 이성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생산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는 인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상 가족, 이성애, 재생산’을 축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을 구성한다.<sup>25)</sup> 이를 위해 이성애 가족을 위한,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정책들이 조직된다. 가령 최근 국내에서 강조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정책은 청년층의 인구 집단을 안정적으로 재생산적 시간성의 트랙에 편입시키려는 국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시기별로 특정한 공간(청년주택-아파트)과 접합되며 실제화된다.

그러므로 재생산적 시간성은 이성애 규범적이고 성애화된 시간-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재생산(출산) 가능한 여성의 ‘몸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고 나열함으로써 성애화된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당연히 재생산적 시간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분할하고 배제하며 이성애 규범의 정상성을 강화한다.<sup>27)</sup> 구술자 K씨는 “(이성) 결혼이 일단 기본적인 필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큰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언급을 하며, 재생산적 시간성의 주거 전략을 비판한다. 재생산을 기준으로 펼쳐지는 시간과 주택 정책에서 성소수자들은 표상되지 않으며, 비정상의 부류로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주거 경험을 통해서

25) J.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1-9.

26) Ibid., 4.

27) 그러므로 할버스탐에게 퀴어의 시간과 공간은 이 재생산적 시간-공간의 외부를 발견하고, 구성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할버스탐은 퀴어 하위문화의 시간-공간성을 주목하고, 이것이 이성애적 시간-공간성에 균열과 틈을 만드는 것을 재이론화한다.

체감한다.

“오늘 여기 오면서 친구랑도, 친구는 비혼을 지향하고 있고,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고 여자 애인데. 친구랑도 얘기했던 게, “우리 사회가 결혼을 너무 필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살기가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누구나 필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결혼에 맞춰지게 되고~ 결혼이 아니면 세대주가 없고, 거기서 인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1인으로 절대 공급을 안 하잖아요. (중략) 이게 너무 결혼이 일단 기본적인 필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도 큰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성소수자들도 그냥 결혼하지 않고 1인으로 살 사람들, 아니면 동거 커플들? 이런 분들에게 다 해당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정책 같은 걸로 뭔가 말을 하면. 저와 제 주변의 퀴어들은 청약이 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도 않고, 뭔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중략) 요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주식이랑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결혼을 해서, 청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도 못 하고, 1인가구라서 청약은 될 리가 없고.<sup>28)</sup> 저랑 관련해서는 정말 인생 대박이 터지던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K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30대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재생산적 시간성의 트랙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며 탈구적 위치(dislocation)에 놓여진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주거 정책으로부터 배제와 불평등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새기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다. K씨의 말대로 뜬금없이 운이 좋아 복권 당첨 같은 “정말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이들의 주거 상향이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정이 자가를 마련한다고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집을 마련해도 이들의 일상을 포위하고 있는 이성애 규범과 제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술자 E씨(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는 자신과 파트너의 자금과 원가족 부모의 도움으로 집(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마련했지만 층간 소음의 범인으로 몰려 주거 불안을 경험했다. 이웃들은 밤마다 울리는 층간 소음의 범인으로 E씨 커플을 지목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둘이 산다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자신들의 신상이 알려지자 이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남성들이 와서 욕박지르는 상황은 이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대응 과정에서 이들의 성정체성과 파트너 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해는 풀렸지만 이 사건 이후 이들은 이웃들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불안을 느

28) 성소수자 커플은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청약과 아파트 분양에서 분리하게 작용한다.

(출처: ‘생애최초 특공도 소외되는 1인 가구… “청약 포기할래요”’, <경인일보>, 2021.01.06.)

끼며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일반인이었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됐을까?’하는 생각은 가끔 들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이 집을 갖고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저씨들이 우르르 와서 쿵쿵거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런 상황이 왔어도 누군가가 나가서 소리치고 싸워도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친구(파트너)가 친구였다면, 내가 정말 친구였다면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친구가 아닌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여기 소문나면 어찌지? 나는 상관없지만 이 친구는 직장을 완전히 다니는 친구인데, 정말 그런 친구한테 피해주면 어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청 고민이 많죠.”

E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 3.2.5 제자리가 없는, 제자리를 벗어난 ‘집’

K씨(논바이너리/젠더퀴어, 30대)는 운이 좋게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청년 1인 가구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향후 5년 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O씨(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는 수도권 신도시에 위치한 양호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둘 모두 정상 가족을 위해 공급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주치는 풍경, 예를 들면 등하원 버스에 길게 늘어선 아이들과 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여성 주부들의 공론장인 카페, 가족 단위 고객으로 맞춰진 음식점, 주변에서 들리는 집값 얘기와 자녀 교육 얘기 등 재생산적 시간-공간성에서 펼쳐지고 구성된 지역의 풍경은 ‘고립감’(K씨)과 ‘소외감’(O씨)으로 체험된다. 즉, 자신과 자신들의 집은 이 공간에서 탈구된, 제자리를 벗어난 것<sup>29)</sup>으로 인식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성소수자들의 주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적정한 주거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들을 둘러싼 이성애 규범과 제도는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내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불안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E씨의 사례처럼 이들은 성정체성 노출 우려로 주거 불안을 지속적으로 겪는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 불안 극복은 적정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들을 둘러싼 이성애 규범과 제도들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 이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29) T. Cresswell, *In Place/Out of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3-10.

### 3.3 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

이 장에서는 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이하 여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가 겪는 주거 불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여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내에서도 더 다층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자성과 이성애 규범 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위치가 교차하며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한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성애 규범성과 성별(젠더) 이분법을 모두 위반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사례를 살피는 것은 성소수자의 다층적인 차별과 억압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주거 불안에 관한 대안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다.

#### 3.3.1 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 (1) 원가족 부모 집의 이중적 억압: 성차별과 섹슈얼리티의 단속

여성 성소수자가 겪는 주거 불안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배제에 성 차별이 더해지며 이중의 억압과 차별로 전개된다. 이 이중의 억압과 차별은 특히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많이 경험된다.<sup>30)</sup> 요컨대 가족 내부에서 기대되는 가부장적 성 역할(딸의 역할)과 결혼의 요구는 이성애 규범의 강요와 섹슈얼리티의 통제로 겹쳐지며 여성 성소수자들의 이중의 억압과 차별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원가족 부모 집은 가부장의 시선이 작동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판옵티콘의 공간으로 경험된다. 즉, 로즈가 지적한 것처럼 가부장의 억압과 폭력이 펼쳐지는 장소, 숨이 막히는 지긋지긋한 장소로 체험된다.<sup>31)</sup>

구술자 C씨의 사례를 들면, C씨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 의해서 아웃팅이 된 후 이것이 부모에게도 알려져 가족 내에서도 아웃팅이 되었다. 그러나 원가족 부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C씨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며 ‘장녀’로서 역할을 강요했다. 즉, C씨는 원가족 부모의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이성애 규범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지내야 했다.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은 C씨가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분가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K-장녀라고 하나요? 어머니의 조연자이자 어머니의 도우미이자 아버지의 하소연 다 들어야 되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철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30) 권민지,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28(3), 2018, 271-301.

31)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138.

남동생 군대 가는 일 때문에 저를 들들 볶고... 저는 국방부 사이트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남동생이 좀 더 좋은 보직에 들어갈 수 있게. (중략) 제가 고등학교 때 아웃팅 당하고 어머니가 말도 안 하시고 핸드폰을 정지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게 다 끊긴 상태잖아요. 그게(아웃팅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모님 자체가 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네가 뭘 제일 잘 한다. 뭐가 제일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제가 출가가... 사실 출가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출가는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한참 뒤에 23~24살 그때 한 번 가봤어요.”

C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0대

C씨의 독립 과정도 쉽지 않았다. C씨는 대학원 통학이 힘들어 학교 인근 여성 전용 세어하우스에서 자취를 할 의도였지만, 부모는 C씨가 좋아하는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어하우스에 이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C씨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이성애 규범과 섹슈얼리티 위반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원 생활 때만 잠깐 자취를 할 생각이었던 C씨는 이를 계기로 부모와 완전히 절연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원 다니기 힘들었어요. 출퇴근 힘들어서 잠만 잘 곳이 필요하니까, 집에 와서 잠만 자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러 이려고 사나~’ 싶어서 부모님께 “제가 보증금과 생활비 월세는 다 제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만 학교 앞에 살다가 오겠다.”하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방(학교 인근 세어 하우스)이 빠져서 제가 들어가 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집에 산다고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상상력이신데... (중략) 그런데 집을 나가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집을 나가겠다.”고. “가족과 연을 끊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틀을 설명해드렸는데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유지하고 있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이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 이건 아니고, 나와 감정적인 육체적인 거리가 필요하겠다.’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나와서... 훨씬 좋죠. 그런데 이게 아마 성소수자라면, 특히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싶을 거고.” (C씨)

이러한 사정은 B씨도 공유를 하고 있다. B씨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통제를 받아야 했다. “여자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오빠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부모는 폭행을 한 오빠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

에 분노한 B씨는 집을 나와 2주 동안 여성 고시텔에 머물렀다가 어머니의 부탁으로 다시 원가족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원가족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제가 그 때는 담배를 피웠었고, “여자가 담배를 피운다? 여자가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라는 이유로 혈육인 오빠한테 폭행을 당했고, 경찰서에 갔고요, 부모님은 오빠 편을 들었고, 저는 그 즉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독립의 발단이었어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B씨에게 어머니는 애증의 존재였다. B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가정의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을 하는 중에도 쉴 새 없이 아버지의 ‘밥상 요구’를 들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B씨는 어머니의 편을 들며 두 사람의 싸움에 개입을 했지만 이는 B씨를 향한 아버지의 언어폭력과 갈등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B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부모들은 딸에게 자신들의 의견에 공감하길 바라고, 정서적 교류를 기대한다. 이는 ‘친구 같은 딸’이라는 관용적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아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딸의 역할로 규범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유대는 가족의 갈등,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얘기들이 여과 없이 딸에게 공유되며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기도 한다.<sup>32)</sup> 게다가 어머니 역시 극우주의 목사의 신도일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어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B씨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가정 내 사항은 B씨의 우울증을 심화시켜 원가족 집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켰다.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그 일을 도와주시는데, 예전과 같이 어머니한테 아침을 차리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차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걸 하면서 사무실을 나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몸이 하나니까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두고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듣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개입을 했다가 아마 그 날 쌍년이라고 욕을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제발 그러고 살지 마”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중략) 어머니와 제가 마찰이 생긴 이유는, 아까 말했던 자꾸 전OO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던가,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꾸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신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중략) 제 방이 있긴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합방을 거부하면서 제 방을 거의 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랑 같

32) 권민지,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28(3), 2018, 271-301.

이 있으면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편하게 둘 곳이 없었어요.” (B씨)

이러한 가부장적인 폭력과 보수적 편향이 심한 가족 내 분위기에서 B씨의 성소수자 정체성은 언제나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되곤 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가족에게 아웃팅되는 상황은, B씨의 표현을 빌리면 “그냥 죽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딸에게 강요되는 이성애 규범과 가부장적 폭력,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은 B씨에게 이중의 억압으로 경험되며 생존을 위해 원가족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예전부터 들기면(아웃팅되면) 그냥 죽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동성애) 반대집회까지 나가는데, 제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거 생각하면... 저를 이끌려고 그런 집회를 나가서 저를 앞에 세우고 별 짓거리를 다 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이예요, 진짜로. 그런 꼴을 당하느니 저는 차라리 진짜...” (B씨)

## (2)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과 파트너와 합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정상가족 규범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향이 높다. 동일 직급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3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sup>33)</sup>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스젠더 남성의 정규직 비율(67.2%)이 시스젠더 여성의 정규직 비율(3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시스젠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32.0%)이 시스젠더 남성의 비율(2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 격차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월수입 비율이 27.0%인데 반해 시스젠더 여성은 11.1%에 불과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상황에서 여성 성소수자들이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들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여성 전용 세어하우스나 고시텔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거처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여성 성소수자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합가<sup>34)</sup>를 하는 사례가 많다. 구술자 C씨의 경우 원가족 부모의 집으로부터 독립한 후 주거비 절감을 위해 세어하우스로 이주를 하였으나 배정된 방이 너무 좁아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 C씨는 좀

3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 불평등 경향 분석』, 2018.

34) 시스젠더 여성들의 합가 경향은 앞장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파트너와 함께 사는 비중이 67.5%로 시스젠더 남성 58.3%, 트랜스젠더 44.8%, 논바이너리/젠더퀴어 5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시스젠더 여성의 안전에 관한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국내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시스젠더 여성들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파트너와 합가를 결정했다.

“방이 되게 좁았죠. 그냥 싱글 베드 하나랑요, 책상이 저 키보드만한 거? 조금 작은 거, 한 3분의 2 정도? 그거 하나 놓으면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중략) 애인이 합치자고 했던 이유도 제 방을 처음 보고 “이건 아닌 거 같다~” 얘기 했었으니까. 그랬죠... 물건을 둘 데도 거의 없었으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셰어하우스로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학기 중에 왔다가 방학 때 빠지고, 다시 갔다가 이런 용돈데 저는 아예 거기서 살아야 했으니까. 이게 주거용으로 는 적합 하지 않구나 그랬죠.” (C씨)

H씨는 일을 그만두게 되자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와 합가를 한 사례다. 퇴직 후 파트너의 지원으로 주거비의 일부를 해결했는데, 파트너 입장에서 자신의 월세와 파트너의 지원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둘은 합가를 결정하고 주거비를 서로 분담하고 있다. N씨의 사례는 H씨 사례와 반대되는 경우다. N씨는 당시 파트너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파트너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합가를 결정했다. O씨 역시 주거비 절감을 위해 파트너와 합가를 결정했다. O씨는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투룸)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월세 비용 때문에 쉽게 집을 구하지 못했다. 다행히 파트너가 합가를 하며 주거비를 분담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현재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애인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주거비도 줄이고 등등할 목적으로. (중략) 애인도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하고 셰어하고 있는. 이거를 정리를 빨리 못 해가지고 양쪽 집에 월세를 내게 된 것인데, 이쪽이 일이 잘 풀려서 같이 빨리 살 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H씨)

“그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임금노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영화감독, 입봉하지 않고 단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지만, 장편으로 입봉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기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고, 나머지 생계비용은 제가 다 대는 상황이었어요.” (N씨)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거를 결정하고 집을 봤다가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서, 이제 OO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OO로 가서 ‘좀 더 넓게 살아야겠다. 직장도 이제 이쪽이고 하니깐.’ 그래서 혼자 살 집들을 알아보다가, 이게 좀 혼자 살면서 넓게 살자니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돈에 맞추자니 서울에서 굳이 올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투룸 정도는 가야겠다.’ 이라고 계속 집을 보고, 막 고민을 몇 달을 하니깐... 그러다가 애인

이 그러면 “OO에서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떨겠냐.” 이제 집 값이 둘이 나눠 내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도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O씨)

그러나 주거비 부담을 위한 파트너와 합가는 둘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주거 불안을 더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M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M씨도 역시 주거비 절약을 위해 파트너와 동거를 선택했다. 당시 M씨는 대학원을 수료한 후 일종의 번아웃과 같은 슬럼프가 찾아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고, 월세와 공과금 등이 밀리며 주거불안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원가족 부모의 지원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주거비 절약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M씨는 파트너와 합가를 결정하며 새로운 집으로 이주를 했다. 보증금은 M씨가 부담을 하는 대신에 월세는 파트너가 조금 더 내는 것으로 동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둘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오히려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그 집에 사는 동안 생겼고... (중략) 그냥 되게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어... 너무 가난한 것 같고. 일단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희 친구들은, 이성애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중략) 또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벌어난 적이 없는데 취직을 한 친구들은 이제 3~4년차가 됐으니까 차도 사고.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불만족이 되게 크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제 그냥 성소수자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위로 많이 나는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은 저보다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제가 사귀는 친구는 연극배우여서 너무너무 돈이 하나도 없고, 일이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도 너무 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고... 되게 우리의 삶이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돈을 버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제가 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그래봤자 되게 조금 버는데, 이 친구는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큰 거예요.”

M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단순히 둘이 각자 내던 월세를 한 집에 살며 함께 내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둘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더 심화된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 M씨는 당시 취직을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었고, 파트너는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M씨 혼자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또래 친구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비교되며 둘의 미래와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

졌고, 이는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그 친구가 술을 되게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때린 것도 때린 거고 당연히 신고도 하고 이런 저런 조치를 취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이 주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쫓아내지 않으면은 제가 나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겨울이 왔거든요. 한겨울이고 이 친구는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못 참겠고, 우리 각자의 일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추운 날에 자기는 정말 갈 곳이 나가면 얼어 죽는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씨)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불안과 이로 인한 파트너의 폭력은 관계의 정리와 동거의 파기로 이어져야 하지만 M씨는 당장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없는 파트너를 쫓아낼 수 없었다. 그렇다면 M씨가 집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다. 이미 월가족 부모는 이 파트너와 동거를 한다고 했을 때, 둘의 관계를 눈치를 채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파트너 관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정말 이 친구를 얼어 죽든 말든 이렇게 버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큰 손해를 보고 나오거나 이 두 가지뿐인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게 엄마는...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아는 언니랑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이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고, 눈치를 채셨고... 도움을 안 주시려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M씨)

결국 M씨는 파트너가 적절한 집을 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이어가야만 했고, M씨가 좀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나서도 몇 달을 함께 살아야만 했다. 그 기간 동안 M씨는 합가 전보다 더 불안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만약 M씨가 이성애자고 파트너가 남성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M씨는 월가족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부모의 도움을 얻어 비교적 쉽게 새 집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파트너와 그 이후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M씨의 구술이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적 불안으로 파트너의 집에 ‘엮혀’ 살아야 하는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 이 관계가 어긋났을 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sup>35)</sup>

더불어 성소수자들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사실은 동거생활의 안정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O씨는 파트너와 동거를 하며 집의 월세를 분담하고 있지만 둘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정주성에 불안을 느낀다. 이성애 부부처럼 둘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엮인다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부 지원, 그리고 원가족 부모의 지원을 고려하며 주거 안정을 설계할 테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호와 인정, 그리고 지원이 없는 상황은 커플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저해하며 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와의 이별 가능성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약간 투 트랙으로 세운다고 해야 될까요? 헤어질 경우와 이제 같이 살 경우. 이렇게 두 트랙을 항상 고려하면서 좀 2년 뒤 3년 뒤를 생각해보게 되는 게 있어요. [질문자: 혹시 그게 파트너십의 제도적 보호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크죠. 이런 상태로... 왜냐하면 둘 다 서로 이제 부모님이나 원가족한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O씨)

유사한 맥락에서 E씨 역시 파트너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E씨는 원가족의 지원, 자신과 파트너의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했지만 집의 명목이 E씨로 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만약 E씨가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파트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이 자금을 투자해서 집을 마련했지만 파트너는 집에 대한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 이렇게 이 건물 안에서 여자 둘이 산다는 게 다 소문이 난 상태에서 그런 불안감 하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집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지?’라는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중략) 만약에 제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이 짝꿍은 자기가 돈을 다 냈고 다 했는데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E씨)

이처럼 여성 성소수자는 자신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트너와 합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와 합가가 한편으론 주거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파트너와 관계가 제도적으로

---

35) 시스젠더 여성 D씨의 경우(2020년 ‘인권재단 사람’에서 후원한 심층면접 사례) 원가족 부모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 대학 진학 후 독립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학교생활을 하며 만난 파트너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원가족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D씨는 어쩔 수 없이 파트너 집에 얹혀살아야만 했다. 당시 파트너와 함께 살던 집은 D씨의 표현에 의하면 “건조기만한 집”으로 둘이 누우면 딱 차는, 둘이 살기에는 매우 불편한 집이었다. 그러다 파트너와 헤어지면서 D씨는 독립생활을 이어가지고 못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원가족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지 않아 주거 불안에 또 다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파트너와 합가는 안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 성소수자들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위치,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라는 위치는 항상 주변의 시선과 침입, 그리고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을 만든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성소수자라는 위치는 주변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주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큰 주거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 주거 선택의 중요 요소: 안전

여성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그녀의 저서 『공간, 장소, 젠더』에서 남성 지리학자들의 시공간 개념을 비판한다. 소위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불리는 ‘시공간의 압축’<sup>36)</sup>은 매우 남성적인 시각이라는 것이다. 매시는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의 압축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후기 자본주의의 성격이라 말하는 시공간의 압축은 주로 제1세계 백인 남성들의 경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편에선 시공간의 압축을 경험하는 백인 글로벌 전문직 남성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서 이동하는 제3세계 여성과 아동들이 있다. 즉, 매시는 권력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리고 젠더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이것을 ‘권력의 기하학’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지리학은 이러한 위치성과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한다.<sup>37)</sup>

매시의 주장에서 참조할 지점은 보통 중립적으로 상상되는 도시 공간은 권력화되고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공간은 권력과 위치에 따라 편재되고 재편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과 양상을 달리하고,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비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주거 불안과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남성화된 공간 질서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은 주거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여성 성소수자는 ‘여성’과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억압과 배제 속에서 더 심화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의 안전이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E씨의 사례를 보자. 상술했지만 E씨는 층간 소음의 범인으로 몰려 여성 둘이 산다는 신상이 이웃들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이웃들은 E씨 집에 몰려와 범인으로 추궁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에서 E씨는 현관에 남성의 신발을 놓거나 이웃들과 관계를 최소화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려 했다. 더욱 E씨는 신상 공개 과정에

36) 시공간의 압축은 하락하는 자본의 이윤율을 막기 위해 자본의 순환시간을 단축하며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은 순환을 단축하기 위해 무역 장벽 및 로지스틱(물류)의 방해물(국경, 각국의 물류제도 등)을 제거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자원의 이동이 전례 없이 빠르고 활발히 전개되며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감이 매우 짧아지는 시공간의 압축이 발생한다.

37)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15.

서 자신들의 성정체성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에 위협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자매로 철저히 숨겨야 했다.

“(충간 소음 사건 이후) 약간 사람들에게 정도 떨어지고... 치안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산 집 중에서 가장 내 집이지만 제일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다가 아빠 신발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망치, 막 이런 도구 이런 걸 갖다 놓은 집이 이번 집이 처음인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아무래도 여자 둘이 살다 보니까 방어를 먼저 치는 것 같아요. 건물에서도 그렇고, 먼저 잘 인사 안 하고, 조용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안 탈려고 좀 멀리 있고... (중략)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자 둘이 산다는 공포감 하나, 여자 둘이서 왜 사냐, 이런 질문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사 들어오고 나서 “누가 너랑 우리 관계 물어보면 그냥 자매라 그래라. 그냥 자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입을 막 맞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E씨)

이렇듯 E씨는 여성이 느끼는 외부로부터 불안, 그리고 성소수자의 아웃팅 위험을 경험하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 집(자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이루었지만 여성 성소수자들이 겪어야 할 외부의 위험은 주거 불안을 계속 경험하게 했다.

B씨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겪는 이런 외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 선택 시 철저히 치안을 고려한다. B씨의 주거 선택 기준은 명확했는데,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통학로(스쿨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거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부러 좋은 데로 간 거죠. 네, 유흥가 벗어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성안심(귀가동행)... 그런 사람 돌아다니고,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갔죠. (중략) 안전이... 일단 여성 둘이 사는 거라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바로 앞에 편의점 있고, 초등학교 있고, CCTV 있고요.” (B씨)

구술자 M씨와 O씨는 안전을 위해 아파트를 선택했다. M씨의 경우 전에 살던 집(다가구주택 옥탑)에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도 있었고, 아래층 가구의 사생활 간섭이 심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를 주거지로 선택했다. 다행히 기존 살던 집의 보증금과 원가족 부모의 지원으로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M씨는 그 전에 경험했던 집들에 비해 안전이 보장되는 아파트 환경에 만족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O씨 역시 안전을 위해 아파트를 선택했다. 직장 통근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했던 O씨는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여성이 사는 환경을 생각해 아파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부담이 되는 주거비는 파트너와 합가로 해결을 했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우선. 그 전에는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조건이 좋지는 않았고. 좀 위험하고 많이 낡고. 지금 아파트도 낡았지만 이제 일단 보안이 가장 확실히 이제 되게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훨씬 살기에 좋죠. (중략) 경비원도 있고 아무래도 단지 내가 주거 구역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건물 밖에 바로 길이고 상업시설이 바로 있거나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M씨)

“(안전이) 엄청 크죠, 왜냐면 같은 이 세(월세) 조건에 2층 집에도 갈 수가 있었어요. 한 네 가구 정도 있는 다세대 있잖아요? 그런 집을 선택하면 이제 방이 뭐, 한 4개에 복층 구조인 되게 예쁜 그런 집들이 여기 되게...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다가구도 되게 예쁜 집들이 많거든요. 예쁘게 깨끗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를 선택을 못한 건 치안 문제였어요. 그게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출퇴근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거기서 여자 둘이 산다는 게 잘...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를 선택한 거예요.” (O씨)

외부인을 차단하고 점검하는 아파트의 보안과 경비시설은 다른 주거지보다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를 선택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면 주거비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골목이 아닌 대로변, 1층이 아닌 2, 3층, 외부인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공동 현관구조와 CCTV 유무 등 주거 안전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안전장치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결국 여성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안전과 성정체성의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이성애 규범으로 구조화된 도시 공간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이성애 규범과 시선으로 구조화된 도시 공간에서 여성 성소수자들은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파트너와 합가를 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등 끊임없는 분투를 전개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파트너십 인정, 주택정책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스스로 주거 불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불안의 사사화(私事化), 개인화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제도적 보호 밖에서 여성 성소수자 개인들은 언제나 주거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위험과 스트레스를 자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 3.2.2. 트랜스젠더의 주거불안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법적 성별이 모두 드러나며,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신분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받는다. 주민등록증의 법적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어긋나는 트랜스젠더에게 한국 사회의 주민등록제도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 영역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며 차별과 배제의 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주거 불안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이 겪는 주거 불안보다 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차별과 억압으로 경험된다.

이 절에서는 주로 트랜스여성 F씨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안드로진) G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sup>38)</sup>가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양상을 묘사하고자 한다. 둘은 공교롭게도 현재 고시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성별 이분법에 따른 주거의 불안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둘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양상은 차이가 있다. F씨의 경우 의료적 트랜지션(호르몬 투여)을 진행하며 자신이 표현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의 불일치에 따른 취업 시장에서 배제가 주거 불안으로 경험되고 있다. G씨의 경우 여성과 남성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며 겪는 자리 없는 상황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 (1) '문제적인 몸'과 주거 불안

##### ■ 법적 성별 불일치로 인한 구직 기회 제한

F씨(트랜스여성, 30대)는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있다. F씨가 이 고시원에 자리를 잡은 건 2020년 6월경으로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간 마친 후였다. 지방 대도시에서 살던 F씨가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의료적 트랜지션 때문이다.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F씨는 지방보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며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고시원 계약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 F씨는 계약하기 전에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고시원에서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공식적인 계약서를 쓰지 않아 여성으로 패싱되며 입주가 이뤄졌다.

38)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는 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을 생각하는 트랜스여성/남성은 물론, 무성, 중성, 양성 등 다양성별로 정체화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다. 또한 자신을 이분법적이지 않은 성별로 정체화하는 젠더퀴어(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데미젠더 등) 역시 넓은 범주의 트랜스젠더에 포함된다(출처: 한국 성소수자연구회,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2019, 20.). 앞장의 설문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집단 내 주거 불안의 명확한 성격과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를 분리했지만 면접조사에서는 성별 이분법 체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트랜스여성/남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를 트랜스젠더 범주로 묶어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지금 여기 고시원에 사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주인은 제가 남자인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월세를 현금으로 계속 이렇게 내는데 거기 무슨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렇게 적어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별도 체크하는 사람이 그냥 여자에 체크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이 고시원의 입주 과정에서 또 하나 다행이었던 점은 성별 혼용 공간으로 운영되는 층이 있다는 것이었다. F씨는 여성으로 정체화한 후 여성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지만 법적 성별 불일치 때문에 이 공간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법적 성별에 따라 남성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머물고 있는 성별 혼용 공간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모순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자신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질문자: 고시원이 남녀층이 분리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사실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성별 쪽의 층을 쓰기도 힘드니까 오히려 편하다면 편한 건데, 그래도 불편도 하고... (중략) 성별이 구분되면 더 불편은 하죠, 사실. 저는 계속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시원에 자리를 잡은 후 F씨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이하 직업훈련)에 참여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현재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과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편의점 점주는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운 좋게 구한 일자리가 편의점 사정이 좋지 않아 야간 영업이 중단되며 상실됐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직업훈련도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곤란이 생겼다. 직업훈련은 1차 3개월, 2차 3개월로 나눠서 운영되는데, 1차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에 참여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집체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교육 담당자가 출석을 부른 것이 곤란으로 이어졌다.

“그게 직업학교(직업훈련) 출석 문제 때문인데요, 카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출석이 되는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조금... 아무래도 남자 이름인데 사실 관계자들은 알고 있어도 학생들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좀 얘기 주고받다가 그럼 저 그냥 안 다니겠습니다 했었죠.”

한국 사회에서 이름은 성별에 따라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의 성별을 일정 부분 확정한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들은 스스로 부여한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지만 공적 서류 등은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요구하며 출생 성별을 환기시킨다. 서류를 다르게 작성하면 허위사실 기재로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지점조차 없다.<sup>39)</sup>

따라서 집체교육에서 출석 체크를 명분으로 호명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아웃팅 위험을 노출하며 상황 자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무리 주변에서 출석 체크를 신경을 안쓰다고 해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노출해야 하는 위기로 경험된다. F씨는 이때의 상황을 “주변이 하얘지”는 “난감”한 것으로 표현하며 그 때의 그 위기와 곤란을 재현했다.

“(다른 사람들이 출석 체크에) 집중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생각은 일단 주변이 하얘지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손만 들어야 되나... 손만 들면 또 이렇게 출석부만 보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면 두세 번씩 불러가지고... 그냥 그 난감...”

이름뿐만이 아니다. 직업훈련에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하는 주민등록상 성별은 트랜스젠더를 법적 성별로 재배치하며 이 성별규범을 실천하길 기대한다. 예컨대 F씨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다양한 직업을 소개 받았지만 “자동차 부품”과 같은 거의 시스젠더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소개 받았다.

“문자가 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저는 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오니까... 스스로도 (워크넷에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음식점 관리를 하려면 또 보건증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하고 끄고... 그렇게 좀... 문자는 많이 오는데 다 이제 무슨 자동차 부품 그런 거다 보니까...”

간혹 음식점 관리 같은 일을 찾아 구직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보건증<sup>40)</sup> 또한 F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F씨에게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보건소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소변 검사 등은 법적 성별에 따라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검진을 위한 탈의 또한 남자 탈의실로 가야 했다. 공공기관 자체가 이원적 성별의 공간 문법을 따르고 있기에 F씨에게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는 것조차 간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일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한 보건증을 요구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직업을 상실해 이 불편을 면할 수 있기도 했다.

“얼마 전에 보건소를 갔다가 불편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보건증을 검사를

39) 김수영, 『트랜스여성의 노동과 복합적인 젠더실천』,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30.

40)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화장실 이리저리, 남자화장실 가야 하고. 탈의실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더라고요. 보건증 검사를 못하고 나왔던...”

이렇게 F씨가 수행하는 성정체성과 법적 성별의 불일치는 취업의 가능성을 위협하며 그녀를 매우 불안한 처지로 만들고 있다. F씨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환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수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F씨는 현재 성별 불일치로 인해 구직조차 힘든 상황이다.

“사실 그제(법적 성별 불일치) 제일... 스스로도 제일 힘들다보니까... 수술을 좀 해야지 그나마... 떨쳐버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몸을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F씨는 취업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법적 성별 표기가 끊임없이 자신을 시스젠더 남성으로 분류하고 확정짓는 경험을 했다. F씨를 시스젠더 남성으로 호명,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직업을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기 몸을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와 같은 언급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문제적인 몸’으로 인식하게 한다. 자신의 수술하지 않은 ‘몸’ 자체가 자신의 젠더 실천과 취업을 방해하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신체에서 남성으로 읽힐 만한 표지가 없어질수록, 자신이 인지하는 방식대로 젠더를 실천하며 일상을 살아갈수록, F씨의 몸은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성별과 갈등하는 몸, 문제적인 몸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sup>41)</sup> 그리고 이 문제적인 몸은 고시원이라는 주거 공간의 성격과 겹치며 F씨의 주거 불안을 주도한다.

### ■ 캄캄한 방에 갇힌 주거 공간

F씨의 고시원 생활은 캄캄한 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월 임대료 35만 원을 주고 생활하는 이 방에는 창문이 없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방 밖에 나가지 않으면 날씨가 흐린지, 맑은지,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둡다. 최근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잃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F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온라인 서핑을 하며 보낸다. 생활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며 받은 생활자금대출 1,100만 원으로 버티고 있다.

“계속 누워만 있어요, 누워있고. 아니면 성형 정보 같은 거나 좀 찾아보든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곳도 좀 보고. 만화를 본다든지, 영화 본다든지. 일자리 같

41) 위의 책, 김수영, 35.

은 것도 좀 보려다가도...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성별을 남자로 보니까.”

F씨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현 상황은 일종의 무력감으로 이어진다. 예전부터 불안과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던 F씨에게 현재의 무기력한 상황은 그를 더욱 골방으로 몰아넣는다. 고시원의 공용공간인 주방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의료적 트랜지션 이후 F씨는 주변과 관계에서 더욱 “폐쇄적”이 되었고 여기에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이 더해진 결과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방 안에서 혼자 해결한다. 창문이 없는 방이라 환기의 문제가 있지만 공용공간의 불편함보다는 낫다.

“공용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됐지만, 마스크 쓴 상태에서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 불안한 그런 게 있거든요. 주방을 아예 안 가고 그냥 집 안에서 반찬을 이제 반찬가게에서 미리 사놓고 밥은 얼려놓은 밥이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다행히 있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해동이 있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주방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적 트랜지션도 부담이다. F씨의 경우 한 달에 드는 호르몬 요법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5만 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돈을 주거비에 투자한다면 F씨의 표현대로 방의 “퀄리티”가 더 높은, 창문이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비용 자체가 주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거(호르몬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을 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먹어주고 하면, 한 달로 치면 그래도 10만 원은 안 나오고요... 5만 원? 한 달에 지금 5만 원 정도... 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더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오고. (중략) 그것(호르몬 주사 비용)도 어느 정도 쌓이는 돈이고... 그런 게 또 돈이 없을 때 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또 만만치 않죠. 사실은 지금 35만 원에서 살지만 여기서 5만 원 늘리면 퀄리티는 더 올라가는데...”

따라서 F씨에게 현재 고시원 공간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공간으로 체험된다. 그리고 F씨의 표현대로 “일단 그냥 월세가 더 싸니까 버티”는 곳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버티는 주거 공간의 생활은 당분간 지속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성전환수술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할 때까지 F씨에게 주거 공간은 임대료가 싼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성별 체계와 불화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F씨에게 성전환수

술 밖에 없고, 이 비용을 모을 때까지 적정한 주거 공간은 계속 유예될 것이다.

## (2)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몸과 주거 불안

### ■ 고시원에서 삶

G씨(안드로진<sup>42</sup>), 20대)는 F씨처럼 고시원(월 임대료 25만원)에서 지내고 있다. G씨는 지방 대도시에서 있는 대학 진학으로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나와 현재 이 고시원에 정착했다. G씨가 이 고시원에서 산지는 꽤 오래되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 고시원에 들어온 G씨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F씨가 그런 것처럼 G씨 역시 “햇빛도 못 보고 사니까 일어나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G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 우울증이 심화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게다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성희롱과 학교 교수의 성추행은 G씨를 이 어두운 공간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생활을 반복하게 했다. 이 시기 G씨는 이들에 한끼를 챙길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아아... 처음에 16년도에 OO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발 뺀으면 끝나는 진짜 제일 작은 방에서 살았거든요. 빛도 안 들어오고, 이런 방에서 한 1년 살았는데, 그때도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사람 햇빛도 못 보고 사니까, 일어나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나있는 아주 조그마한 창문이 있긴 한데 그쪽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 낮인가 싶기도 한데, 뭐 복도에 불빛을 전등을 켜놓으면 사실 그 빛이나 그 빛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심해진 상태였는데... (중략) 사실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심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한참 또... 그 시기에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뭐 학교 교수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한 거의 3개월, 방학 3개월 동안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간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버텼죠. 이렇게 생활 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은 한 3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서 그걸로 한 몇 개월을 연명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몸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행동을 조율해 간다. 고시원 같은 다중시설은 자신의 소리를 외부에 전달하지 않고, 다중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42) 안드로진(androgyne)이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한 개인에 공존하며 남녀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남녀의 비율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queerdigger/220649330765>)

몸을 움크리고, 말을 자제해야 하는 몸 테크닉(technique)을 허용하고 요구한다.<sup>43)</sup> 이러한 고시원의 환경에서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G씨의 방은 그/그녀의 몸을 더욱 움츠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다 고시원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간 재편이 있었는데, 이것이 G씨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G씨의 방이 있던 여성공간으로 운영되던 3층이 운영 문제로 폐지되고, 4층이 성별 혼용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G씨는 같은 가격에 창문이 큰 4층의 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고시텔에서 이렇게 원래 남녀가 갈려져 있어요. 갈려져 있는데 고시텔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4층을 이렇게 합반으로 이렇게 하겠다, 남녀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넓은 방 샤워실 있는 방으로 옮겨드리는데... 조건은 “그 이전에 살던 방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살게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바로 창문이 제일 큰 방으로 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시원에 살면서 이곳의 생활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중생활 시설에서 오는 곤란함이 많다. 이 고시원은 온수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을 못 지키면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G씨의 방이 고시원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 다른 방에 비해 수압이 낮다. G씨의 표현을 빌리면 “쫄쫄쫄” 나오는 물에 “버티면서 그냥 샤워”를 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복도 끝 외벽에 방이 붙어 있다 보니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다.

무엇보다 고시원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사생활 침해다. 보통 고시원은 가벽을 세워 방을 구분하는데, 간혹 창문 중간에 가벽을 세워 방을 구분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 창문과 가벽이 완전히 매꿔지지 않아 옆방의 소리와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G씨의 방 또한 창문 중앙을 경계로 옆방과 구분되어 있는데 창문을 미달으며 생긴 가벽의 틈으로 옆방의 소리와 소음이 그대로 전달돼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다.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정확하게까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사람이 말하고 있다?’까지 들리고. 아까 옆에 방이랑 그 창문이 이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매꿔져 있지 않고 창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있어서 더 잘 들리죠.”

또한 고시원의 CCTV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방을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다 기록이 되고,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시간까지 기록으로 남아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기록이 원장의 말을 통해 전달이 되었을 때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듯한 기분이 들며 불편을 경험하기도 한다.

43) 정민우·이나영,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2011, 154.

“아무래도 조금... 고시텔이 CCTV로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다 보이고, 예전에 복도,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살았을 때 제일 불편했던 거는... 그래도 이쪽 방(현재 지내고 있는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안 나있어서 제가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그 복도 쪽에 창문이 나 있는 방(예전에 살던 방)은 제가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게 다 보여서... 원장님께서 “몇 시에, 몇 시에 어떤 시간대에 없으신데 요즘에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약간 사생활, 약간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어요.”

### ■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

G씨는 출생 시 성별은 여성이지만 안드로진으로 정체화를 한 상태다. 따라서 고시원 사람들이 G씨를 여성으로 패싱하며 호명할 때 많은 곤란함을 느낀다. 예컨대 고시원 원장이 G씨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시켜주려는 일도 있다. 원장 입장에서 G씨와 친분으로 인한 선의의 행동이었지만 G씨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또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G씨를 “아가씨”라 호명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다. 무엇보다 남녀 혼용 공간에서 여성으로 호명하며 G씨를 보는 남성들의 시선은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 그/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G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목소리와 같은 단서들을 최대한 감춘다. 복도나 공동주방에서 고시원 사람들을 마주칠 때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간대를 달리하며 공동주방을 사용한다.

“5층에 계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랑 굉장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5층에 계신 남자분이 OO씨를 보고 되게 호감을 가지시더라.” 그러면서 약간 이어주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처음에는 약간 제가 머리가 짧고 이러니까 흠칫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하면, 목소리로 약간 유추를 해서 ‘재 여자구나!’ 싫어가지고 “아가씨~”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한다던가, 네 꾸준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말을 안 해요, 고시텔 안에선. 특히 공동주방 이용하거나 복도 지나고 하거나 그럴 때. 시간대가 다 달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마주치는 편은 아닌데, 마주치면 좀 의심의 눈빛? ‘재가 여잔지 남잔지’ 이렇게 보는 눈빛이랑 또 목소리를 확인했을 때 ‘재가 여기 몇 없는 여자다.’ 어떤 이런 공기 중으로 느껴지는 어떤 인식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유난히, 뭔가 여성... 뭔가 여성이, 뭔가 여기 남자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여기서 주거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뭔가 주의 깊게 보는~ 감시당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중략) 그분(옆방 고시원 거주자)이랑도 되게 편했거든요. 편

했는데 같이 방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불편해지는 순간은... 저는 그분을 뭐 남성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말 그 옆집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대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저를 되게 “딸같이 생각한다.”라든가 “아가씨~”라든가, 이렇게 저를 여성으로서 뭔가 대하는, 뭔가 같은 이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별 이분법으로 구성되는 사회관계에서 G씨의 짧은 머리와 성별을 유추하기 힘든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성별 인식에 혼란을 준다. 그리고 이들은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성별 이분법에 기반하여 G씨를 하나의 성으로 확정하려 한다. 성이 확정될 때까지 G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목소리와 같은 시스젠더 남성과 다른 단서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당연하게 G씨를 시스젠더 여성으로 호명한다.

이런 성별의 확정과 규정은 G씨에게 매우 곤혹스럽고 불안한 일이지만 현재 고시원 밖으로 이주하기 힘든 상황에서 G씨는 이 다중들의 오인된 시선과 호명을 버텨야 한다. 지속된 우울증으로 학업도, 일도 하기 힘든 G씨는 원 가족의 지원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G씨는 이 고시원을 빨리 벗어날 수 없다. 지금 G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고 사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그런 거에다 크게, 엄~청 거기에서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를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는 너무 그 분류가 익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반강제적으로 기숙사에 살았어야 됐고, 그때도 당연히 성별이 분리된 곳에서 살았던 말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뭔가 여자애들끼리 다 같이 샤워를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저한테 굉장히 불편했지만, 어찌 됐든 견디고 살아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좀 이제는 무뎌지긴 했는데 불편하죠, 확실히.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깐. 당연히 그 문화에 섞여 들어가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계속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처럼 G씨는 이런 성별의 오인과 확정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다. 유년 시절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여성과 남성 또래 집단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고, 원가족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겹치며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고로 입학해 여러모로 곤경에 처했다. 위의 구술처럼 G씨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 샤워실을 사용하기 불편했고, 친밀한 여고생 문화에 끼기도 어색했다. 그래서 G씨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내내 외부인처럼 걸돌기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성별의 확정은 곤혹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감정이 처음보다 무뎌진 것이지만 불편한 감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으로 오인하고 짓궂게 장난을 걸어오는 남성들의

행동, 그리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다중시설의 위험과 겹치며 G씨를 위험한 상황을 몰아넣었다. 남녀 혼용공간에서 시스젠더 여성으로 확정되는 G씨는 이 분류의 불편함과 더불어 남성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겪어야 한다.

“오히려 좀 (남녀 혼용공간이) 불편해졌어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저를 여성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뭐 호칭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아까처럼 뭐, 저를 누구랑 이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생겨서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치거나... 남성분들이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들이 또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주방에서 새벽에 설거지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악!!” 이렇게 놀래킨다든가. 그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오래 살기도 했고, 안면도 텃고, 이야기도 했으니까 친하다고 해서 행동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거에 굉장히 놀라는 사람이기도 하고.(웃음) 전에 이 방으로 옮겼을 때 어떤 남성분이 제 방에 들어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오신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중략) 그게 그분이 컴퓨터 설치기사 분이신데 5층 방에 가셔야 되는데, 4층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자고 있는 상태에 아예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그냥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인기척이 들어서 ‘뭐지?’하고 눈을 떴는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형체만 보였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냥 말이 안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라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층을 착각하셨다”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일단락이 됐어요.”

###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3평의 공간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는 고시원 생활이지만, 그래도 G씨는 이 공간에서 버티며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 3평이 채 안 되는 방이지만 G씨는 이곳에서 원가족 집에서 할 수 없었던 쿼어 깃발을 걸어놓고, 쿼어 관련 책들을 꽂아 놓으며 방을 채운다.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자신만의 쿼어 공간이 원장의 침범으로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G씨는 나름의 전략과 융통성으로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관리하고 있다.

“(고시원 생활이 좋은 점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았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 부모님한테서 떨어져 나가기, 독립하기. (중략) 확실히 내 공간, 이렇게 쿼어 이런 거, 막 이런 거 걸어두고 아무도 터치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고시원 방은 G씨에게 성별 이분법에 속박된 자신의 몸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원가족 부모 집에서 살 때와 여고 기숙사 시절에 G씨는 시스젠더 여성을 표지하는 옷들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독립하고 자기의 방을 얻은 지금은 자신의 신체적 표현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에서 표출할 수 있다. G씨의 표현대로 방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살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윗도리를 이렇게 벗거나, 뭔가 그런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니까 이제 윗도리 이렇게 벗어도 “부모님이 너는 여자애가 위에 속옷도 안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대학에 오고서는 저는 한 번도 위에 있는 속옷 같은 거를... 이제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움을 느꼈죠.”

더불어 고시원의 방은 G씨와 다른 퀴어의 관계를 엮어주는 결절점으로 작용한다. G씨가 대학을 이 도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퀴어 커뮤니티의 존재였다. 유년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곁돌아야 했던 G씨에게 자신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퀴어 커뮤니티의 존재는 “구명줄”로 다가왔다. 그래서 고시원 생활까지 감당하며 이 도시로 이주를 했다. 지역 퀴어 커뮤니티가 주로 게이와 레즈비언 중심의 문화로 이뤄져 실망도 했고, 지금은 과거보다 활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들 덕분에 G씨는 고시원 밖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김기홍, 변희수, 이은용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자살을 하며 충격을 주는 시점에서 고시원 방은 G씨와 퀴어 세계를 연계하고 G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다.

“(OO 시로 이주한 이유는) ‘(지역) 퀴어 커뮤니티를 찾아서, 내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바로 거의 OO을 오자마자 커뮤니티를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이런 게 컸죠. (중략) 그 곳(퀴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애네들이라도 있어서 살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에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지금처럼 기존에 교류하던 성소수자 활동가나 친구들마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이제 방금 OO에 와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전혀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랜스젠더 활동가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이 작고를 하셨잖아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그날 일이 터지자마자 다들 서로 안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방구석에만 있으면 서로 무기력하고 힘든 거 아니까, 우리 나와서 운동이

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등산 뭐... 트레킹 코스를 같이 거기 걷는다든가,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요즘엔 특히 꾸준히 거의 주에 한 번씩은 뭔가 영상 통화라든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도 이게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서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구멍줄처럼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

이러한 G씨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의 방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G씨 방의 퀴어 물품들이 원장에게 들리기라도 하면 G씨는 퇴거당할 수도 있다. 원장이 과거부터 계속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G씨는 항상 위험을 안고 방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별을 확정당하는 불편은 G씨의 안전을 세 평의 방으로 제한한다. 즉 G씨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G씨의 자리는 세 평을 넘지 못한다. 이 세 평 밖 세계에 G씨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 3.4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주거 불안

계급, 인종, 젠더 같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도 일정 부분 지리적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이성애는 어디서나 발생한다. 이성애자는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성소수자들은 이성애를 어디서나 보며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는 철저하게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고 본다.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무언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느낀다.<sup>44)</sup>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성소수자 클럽, 카페, 음식점 등의 장소 및 공동체)에서 이러한 규범은 투과되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위반과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여기서는 상연되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이성애 규범성과 젠더 이분법은 위반되고, 소수자성이 다수자성으로 역전이 된다.

마이클 브라운은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속성을 일종의 ‘벽장’(closet)으로 은유한다. 벽장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공간이고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다.<sup>45)</sup> 따라서 벽장은 외부와 경계를 지으며 자신의 성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혹스가 얘기한 것처럼 벽장은 외부의 위협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틈과 경계로서, 즉 ‘집’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46)</sup> 이 집의 의미로 전유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벽장으로서 성격은 공적으로 커밍아웃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이 경계 밖에서 수행하는 이성애자라는 가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는 ‘집’으로 의미화된다.<sup>47)</sup>

이처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에게 확장된 집의 의미를 제공하며, 이들의 이성애 규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지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구술자들 역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위와 비슷한 얘기와 경험을 풀어놓는다. 이 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들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을 주거 불안과 연계해서 드러내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주거 불안은 집이라는 하나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살고 생활하는 이웃과 지역의 스케일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주장한다.

#### ■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으로!

구술자 L씨는 대학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곳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만약에 서울에

44) 팀 크리스웰,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162-163.

45) M. Brown, *Closet Space: Geographies of Metaphor from the Body to Glob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46) B. Hooks,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1990), 43-47.

47) 캐스 브라운 외, 『섹슈얼리티의 지리학』, 김현철 외 역, 이매진, 2018.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면 “재수를 해서”라도, 그것도 “재수는 서울에서”라는 조건을 달며 서울에서 생활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두었다. L씨가 이렇게 서울 생활을 희망했던 것은 바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씬(scene) 때문이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L씨에게 서울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항상 갈망의 대상이었다. L씨의 고향에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있긴 했지만, L씨의 표현대로 “커뮤니티라 부르기도 애매”한 매우 소규모의 공간에 몇몇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L씨에게 고향의 장소감은 일종의 ‘고립’으로 경험되었으며,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은 인생에서 필수 조건으로 다가왔다.

“제가 지방에 살았는데, 공부를 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목표가 이 집을 떠나서 서울에 혼자 살기. 이게 저의 모든, 제가 미성년자 때 했던 행동의 목표였고. 이과였기 때문에 대전과 포항 쪽에도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기필코 거기는 안 가겠다. 차라리 제가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대학 떨어지면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 재수는 서울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 선언을 해서. 어쨌든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성소수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중략) 사실 지방은 진짜 그걸 커뮤니티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게... 주말 저녁에 술 마시는 모임 정도가 끝인 경우가,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무 살 때 그 당시에는 그랬고. 서울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크죠.”

L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20대

“서울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장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도, 서울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L씨의 지인 역시 직장이 서울에서 떨어져 통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을 떠나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될 것 같”은 생각에 서울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씬은 서울 삶이 여러 가지 불편을 줘도 이를 감당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쿼어의 얘기를 들어봐도 서울이 진짜 되게 중요하고. (중략) 직장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직장이 있는 애들은 서울이 집이어도 그냥 서울에서 통근을 하는 거죠. 정말 필요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회사 앞에만 집구해서 출퇴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서울에 되게 안 올 것 같다. 서울에서 멀어지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차단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L씨)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발레타인은 성소수자들의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동선을 추적

한다. 성소수자들은 직장이나 원가족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가리는 은폐된 삶을 살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몇 마일이나 떨어진 자신들만의 편안한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즉, L씨의 지인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의 일상은 복잡하고 불편한 경로를 그린다(48).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동선은 G씨의 구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 장에서 얘기했듯이 G씨 역시 성소수자 커뮤니티 때문에 지방 대도시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자리를 잡은 고시원과 커뮤니티가 위치한 지역이 멀어 이동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씨는 자신을 인정하고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로 가기 위해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거기(커뮤니티)가 OO대 안에 어떤 퀴어 커뮤니티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주로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하는 것도 주로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한 1시간 이상 완전 반대편의 OO구라든가, 아니면 조금 가까우면 한 중간 정도 되는 OO라든가. 하여튼 저랑은 항상 먼 지역에서 모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는 쪽이었어요. (중략) 저와 가까이 위치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획단 때문에 회의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떤 사적인 모임을 갖든 제가 항상 한 시간 이상 거리를 걸려서 제가 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G씨)

B씨 역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접촉하기 위한 복잡한 동선을 공유하고 있다. B씨는 직장 위치 때문에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접촉하기 위해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서울 마포구까지 이동을 했다. 그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란 직장 생활의 이성애자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이기에 피곤함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가야할 장소였다.

“(사는 곳에서는 성소수자들)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힘들고. OO쪽 커뮤니티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가 매주 홍대로 놀러가요.” (B씨)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이 커뮤니티와 접촉하기 위해 이것이 몰려 있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집중을 하고, 이곳에 접촉하기 위해 불편하고 복잡한 동선을 감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이성애 규범이 요구하는 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적체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를 상연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

48) G. Valentine, '(Hetero)Sexing Space: Lesbian Perspectives and Experience of Everyday Spac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no 14(5) (1993) 581-599.

##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H씨는 마포구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에서 독립해 살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원가족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 이 시기 H씨는 그 전에 원가족과 함께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편을 경험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나 길을 걸을 때 H씨가 노트북과 가방 등에 장식한 퀴어를 상징하는 스티커와 배지, 팔찌 등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마포구에 살 때는 편안하게 달고 다녔던 장식품들이 원가족 부모의 동네에서는 눈치 보이는 물품이 된 것이다. H씨는 이 경험을 “나만 되게 튀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을 장식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 자신이 튀지 않았지만 원가족 부모의 동네에서는 자신만이 이런 장식을 하는 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H씨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과 동네는 자신의 자리가 없는 곳으로, 그리고 마포구는 자신의 자리가 놓인 곳으로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계속 망원동 부근에서 살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제가 노트북에 여러 가지 스티커 이런 거 붙여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나 가방에 붙여놓은 배지 같은 거나 다 성소수자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무지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동네 카페가 있거나 길을 다닐 때 되게 신경이 쓰이고... ‘나만 되게 튀는 사람인 것 같다, 여기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생활권, 문화권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H씨, 시스젠더 여성, 판섹슈얼, 20대

H씨가 경험했던 마포구의 편안함과 안전한 느낌은 그녀가 1년 만에 원가족 집을 다시 나와 주거지를 선택할 때 큰 요소로 작용했다. 최근 마포구는 ‘마용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산구, 성동구와 함께 서울의 집값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sup>49)</sup> 특히 여성 성소수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는 급격한 상업화와 유명세로 인해 전월세 값이 폭등한 지역이기도 하다.<sup>50)</sup>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H씨가 마포구를 다시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퀴어들이 많이 살고 그것 자체가 편안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같이 동거하기로 한 파트너는 집값과 직장거리 때문에 마포구를 반대했지만 현재는 이 지역이 성소수자에게 주는 편안한 장소감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

“사실 다시 이사를 할 때 홍대 부근 지역들이 제가 친숙한 공간인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퀴어들이 많이 살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

49) 김원진, 「‘마용성’ 집값 상승률, 강남 3구보다 컸다」, 『경향신문』, 2018. 10. 10.

50) 시시선, ‘당신이 모르는, 퀴어들의 마을’, <일다>, 2020, 10, 15. <https://www.ildaro.com/8868>

에 좋은 것 같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때 제 애인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마포구를. 비싸고. 애인은 000에 살고 있어서 “자기랑도 멀고, 자기 회사랑도 멀고, 심지어 너의 직장과의 먼데, 왜 거기서 살아야 되냐?” 근데 같이 이 집에서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본인인 “너가 왜 이렇게 흥대를 고집했는지 알겠다.” 자기도 이 공간에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원래 자기가 살던 000에 가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둘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역시 마포구가 우리가 같이 다니고, 연애를 할 때 좋은 공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중략) ‘(섹슈얼리티를) 드러내서 만약에 누군가 해코지를 하거나 했을 때 주변에서 그걸 막아주고,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긴 한데, 그런 신뢰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H씨)

“우리가 같이 다니고, 연애를 할 때 좋은 공간”이라는 표현은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공개했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이 커플이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지역에서 쉽게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 많이 살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들과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이것들로 이뤄지는 공식, 비공식 성소수자 모임들은 이 커플에게 안전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며 섹슈얼리티를 수행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은 이성애 규범의 투과를 불투명하게 하여, 이들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로 공간을 재전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은 트랜스젠더 G씨(MTF)<sup>51)</sup>도 유사하게 공유한다. G씨는 이태원에서 거주하며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했다. 주지하다시피 이태원은 트랜스젠더 관련 바와 클럽, 그리고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가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주는 장소감처럼 이태원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유사한 장소감을 제공한다. “돌아다니면 되게 편안해”진다는 G씨의 구술처럼 이태원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성적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안전할 수 있는 장소로 경험된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편안해져.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도 퇴근하고 들어오는, 업소에서 일하시는 언니들을 보고, 언니들이 다들 약간 (여성으로) 패싱이 되는 게 아니라 패싱이 되지 않는 분들도 되게 자유롭게 오시는 거예요. 화장도 안 지웠는데 추리닝 입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굵이 긴 머리에 머리술이 없는 대머리인데 여기 머리를 가리고 되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냥, 이상하다고 욕은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림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51) 2020년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자료의 인용이다.

이런 데서 일어났으면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고...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만 막 불안하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려고 있었던 게, 처음 이사 와서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여기가 나에게도 그나마 안전하겠구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뭔가 안전하지 않은 안정감 그런 느낌, 100% 안전한 건 아닌데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것이었어요. 소속... 하면 좋겠죠.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동네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ㄱ씨, 트랜스여성, 30대

“뭔가 안전하지 않은 안정감”이란 ㄱ씨의 표현에서, 이태원이 때론 유흥가라는 장소의 성격으로 트랜스여성에게 위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지역에 착근해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와 커뮤니티들은 이 위협을 상쇄하며 존재의 안전과 안정을 보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과 안정은 이태원에 트랜스젠더의 ‘자리’를 새기며 소속감을 준다.

또한 이태원에 착근한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네트워크와 문화는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의 틈을 열며 트랜스젠더들이 타 지역에서 누릴 수 없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가령 이태원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집을 구할 때 법적 성별 불일치로 인한 아웃팅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다. 몇몇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트랜스젠더의 신상을 적절히 보호하며 임대인과 계약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기나 카드수령과 같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아웃팅 우려로 인한 불편함이 크지 않다.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트랜스젠더들과 이들의 문화로 인해 이들의 법적 성별 불일치가 이상한 문제로, 혐오의 문제로, 그리고 아웃팅의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현재 사는 집) 구할 때 부동산에서 거짓말 했었어요. 이를테면 명의가 내 명의이라 집주인이 남성분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이 알아서 눈치껏 “이분은 여동생이시고, 그분이 사시는데 여동생이 보러왔다” 부동산이 알아서 커트 해줬어요. “이분은 여동생이시고 오빠가 살 건데, 이분이 대신 보러 온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알아서 계약하실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저는 제가 트랜스젠더인데 여기서 살 거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부동산한테 그 얘길 해주면 부동산이 “어, 이런 분들 많아요.” 하면서, 집주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중략) 그리고 인터넷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정보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등기, 카드수령 같은 거나...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순간 이런 것에서 항상 불편을 느꼈는데, 이태원은 그게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설치하러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보고 (제가) 이러니까 “아아~” 이러더니 “동네 많으세요.” 이

러더니 막 설치하는 거예요. “동네에 많으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태원에서. 그게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ㄱ씨)

“동네에 많으세요.” 혹은 “이런 분들 많아요.”라는 언급은 지역의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환경을 양적으로 표현한다. 즉, 이곳에서 트랜스젠더는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로 인식되고, 이는 트랜스젠더가 유별난 존재가 아닌 흔하고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존재로 경험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처럼 이태원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유롭게 성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해방의 장소이자 소속감을 주는 인정의 장소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원은 트랜스젠더들에게 확장된 ‘집’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 존재 자체로 위안과 안정을 주는 커뮤니티

구술자 M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으로 원가족 부모 집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마포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가 계속 마포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H씨처럼 이곳이 여성 성소수자에게 주는 안전과 편안한 장소감 때문이었다. 앞 장의 M씨의 구술에서 보듯이 그녀는 파트너 문제로 주거 불안을 경험하기도 했고, 살던 집에 외부 남성이 침입해 위험을 겪기도 했다. 그런 위기에서 M씨가 잘 대응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근에 있는 여성 성소수자 지인들 덕분이었다. 이들의 존재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편안... 음... 그런 거 같아요. (문제) 해결이 실제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을 때 당장 그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장 그날의 잘 곳이 필요했을 때, 마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거나 이런 식의. 또는 이제 그전에 그 전집에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연애 관계... 연애 관계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진 건데... 그때도 실제로 뭔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로 성소수자 지인들이 있는 그런 단톡방에 “이런 상황인데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알고 있냐?”라고 물었고, ‘의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M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M씨는 현재 과거처럼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주변 성소수자 지인들 또한 이곳의 비싼 집값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네트워크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M씨는 마포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과거처럼 직접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인근에 이 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M씨에 위안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떨어져서... 어떤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적은 곳에 가

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략)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성소수자 업소에 가거나 그런 친구들과 무슨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20대 때는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딱히 어디에 가거나 뭐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타지역에 대한 불안)이 드는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M씨)

이러한 감정은 L씨도 공유한다. L씨는 최근 이태원과 가까운 지역의 오피스텔로 이주를 했다. 대학 입학 후 학교 인근에서만 살던 L씨는 학교 지인들이 아닌 다양한 성소수자들과 관계 확장을 원했고, 때마침 원가족 부모의 지원으로 이 오피스텔로 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은 L씨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았다. 근 거리에 이태원이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게이 씬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L씨는 이태원 인근에 산다는 것 자체에 안정감을 느낀다. 학교 인근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만들어온 지인과 네트워크가 다 없어진 L씨에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게이 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립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위안으로 작용한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걸(이태원 게이 씬) 옵션으로 두고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다는 게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중략)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제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나 지인들이 주변에 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살던 학교 근처나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 지금은 사실 없는 게... 어쨌든 그런 것(게이 씬)도 있으면 되게 큰 안정감을 주죠.” (L씨)

## ■ 집을 넘어서 장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I씨는 직장 통근 문제로 잠시 파트너와 함께 지방 대도시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이 지역에서 살던 집은 예전 집보다 평수도 넓고 복층이어서 다묘 가정인 I씨에게 매우 만족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주변에 지인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만 풀다 보니 파트너와 잦은 다툼을 경험하기도 했다. I씨는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성소수자와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리고 지역 정당 네트워크가 있는 수도권 도시로 이주를 결심했다.

O씨는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마포구에서 지냈다. 그러다 I씨와 마찬가지로 직장 통근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며 주변에 성소수자 지인들이 없다는 것에 불편함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주말마다 지인들을 만나러 서울로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서 지내자니 고립감만 더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O씨는 파트너와 함께 주변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커플을 모색하고 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고립감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 OO에서 살았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 그리고 파트너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잠깐 직장 때문에 내려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일하고 오고, 일하고 오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집에 와서 풀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현재 이주한 지역에는)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페미니즘 모임 같은 게 좀 있고. 그리고 제 당(제가 활동하는 정당) 내의 지인들이 좀 모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중략)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오라고 권유도 많이 했었죠.”  
I씨, 트랜스여성, 데미섹슈얼, 30대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랑 “동네에 사는 분명 다른 커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라도 어떻게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놓으면 근처에.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이나 풀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서울에 가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걸 만들자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위 두 사례는 성소수자에게 커뮤니티가 주는 의미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소수자는 이성애 규범과 이원적 성별 체계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장소가 없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과 주거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주거 공간의 확보만을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을 예방하고 이들의 주거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는 장소적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 이들이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의 구성적 측면, 즉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을 지역 내에 구성하고, 구축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 3.5 성소수자의 자리와 주거권의 요구

### 3.5.1 성소수자에게 ‘집’의 의미

#### ■ 온전히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

이성애 규범과 이원적 성별체계로 구성된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비가시화한다는 조건으로 사회 안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 받는다. 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며 사회에 현상하려는 순간, 이 허락은 철회된다.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순간 사회는 이들이 제 자리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사회적, 공간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표상한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사회의 성원으로 속하기 위해 시스젠더 이성애자라는 가면을 쓰고 일종의 역할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이성애 규범에 맞춰 자신을 상연하고 수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아웃팅의 위험은 이들의 행동과 언어 하나하나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더 철저히 자신들의 성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위장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집이란 시스젠더 이성애자라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으로 의미화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집이란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나일 수 있는 공간”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성소수자에게 집은 흑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다층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정체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곳<sup>52)</sup>으로 재현된다.

“내가 나를 연기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나일 수 있고, 내가 언제든 그곳에 가면 그냥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진짜 내가 있는 곳. 내가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집이란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집은) 나를 놓아 둘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러니까 밖에서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52) B. Hooks,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1990), 43-47.

하는데 가면을 약간 반쪽만 벗은 느낌?”

E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또한 집은 자유의 공간과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E씨의 언급처럼 “가면을 반쪽만 벗”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공간, 성소수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안한 ‘집’으로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집이라는 곳은... 일단 내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중략)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D씨는 성소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구술한다. 아웃팅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고, 지인들의 집과 학교 동아리방을 전전해야 했던 경험에서, 집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수행이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생각하는 ‘집’은 현실의 억압과 불안을 반영한다.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해야 하는 불편, 집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수행을 단속해야 하는 불안 등은 이 억압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자신의 사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정한 ‘집’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의 의미는 고립이라는 성소수자들의 또 다른 억압의 차원을 드러내며 ‘관계’의 공간으로서 ‘집’을 표상하기도 한다.

### ■ 관계의 공간으로서 ‘집’

구술자 A씨는 최근 집을 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예전 집처럼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물품들로 집을 장식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며 이들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친분을 쌓았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과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기 때문이다. A씨는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상관없이 다양한 친분 관계를 맺고 싶지만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은 항상 관계의 불안을 남겨 놓으며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벽에 엽서 같은 것도 붙여놓거나, 프라이드 플래그 같은 걸 붙여 놓거나 그랬

는데 이제는 뭐... (중략) 최근에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 통해 알게 된 사람들하고 친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쌍 헤테로 남성이거든요. 이사 와서 세탁기를 들고 이것저것을 좀 꾸려나가면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을 얘기해도 될까? 나는 전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랑 얘기도 잘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같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게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오픈 되었을 때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확답이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런 걸(성소수자 상징 물품) 장식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A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20대

J씨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했다. 유년시절에는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많이 하며 또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했으며, 현재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직장 동료들과 친분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동료들의 대화에서 전제하는 이성애 규범이 J씨가 이 집단에 쉽게 융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자 친구를 묻는 질문이나 결혼 얘기 등은 J씨에게 이성애자 연극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그래서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친솔한 얘기를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고 싶지만 아웃팅이 되는 순간 직장 생활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에 선뜻 동료들의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있다.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도 당해보고. 그런데 그게 엄청 큰 상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성소수자라서... 좀 뭐, 뭐... 더 열 수 없는? 나는 나를 더 열어줄 수 없고, 나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롭다고 해서 여기 굳이... ‘내가 여기 뒤섞여야겠다.’ 이것도 너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곁돌기만을 했는데, 그게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랑 되게 그냥 뭐 특~ 터놓고 지내는 뭐 그런 사람도 만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J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그래서 A씨와 J씨에게 집은 고립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결절점으로 표상된다. J씨에게는 집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의미화되며, A씨에게 집은 “성소수자든 아니든 간에 서로 유대감을 갖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집의 의미는 G씨도 공유한다. G씨는 안드로진으로 정체화한 후 여성과 남성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인처럼 지내야 했다. 따라서 G씨에게 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관계를 엮을 수 있는 교차점으로 재현된다.

“가장 먼저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니까 내가 가장 편한 공간

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교류든, 주변 이웃과의 교류든,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저한테는 요즘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물리적으로는 거의 OO에서도 끝과 끝에 살아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교류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연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G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안드로진), 20대

성소수자에게 집이란 이성애 규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재생산하며, 관계를 엮을 수 있는 ‘자리’로 의미화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주거권은 이 ‘자리’를 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의미가 실질적인 경험의 맥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환대의 요구와 겹친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자리를 인정하는 것은 거기에 속한 권리를 주고,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sup>53)</sup> 그러므로 환대의 요구는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사회 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주거권의 요구는 단순히 주거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이를 통해 동등한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권리의 요구와 겹쳐진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주거권을 옹호하고 주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논한다.

---

5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7.

### 3.5.2 성소수자 주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여태껏 살펴봤듯이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성소수자는 재생산적 시간성 트랙(결혼-출산)에서 직조되고 관리되는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며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성별 이분법 체계로 작동하는 취업, 노동, 교육 등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주거 불안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이성애 규범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차별과 혐오를 당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과 주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이 대안 논의의 첫 걸음으로 성소수자들이 얘기하는 주거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살펴면서, 이를 추상적으로나마 제도적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옹호를 위한 공론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 파트너십의 인정과 주거 안정화

주택 청약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정에서 부양자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점,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 등 국내 주거 정책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구성되며 인구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1인가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2%(2000년 15.5%)로 증가했고, 정상가족은 29.8%(2000년 48.2%)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족들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69.7%에 이를 정도로 지금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sup>54)</sup>

이러한 시점에서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은 많은 인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가족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 등을 예고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들을 주거 정책 내로 포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55)</sup>

54) 여성가족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 4. 2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gefkorea&logNo=222324668296&proxyReferer=https:%2F%2Fm.korea.kr%2Fnews%2FvisualNewsView.do%3FnewsId%3D148886737>

55) 여성가족부,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2021. 4. 30.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737>

그러나 이 계획은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 미흡함을 남겼다.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검토 및 논의 추진’을 언급하며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검토 및 논의 추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생활동반자법이 중요한 한 발을 뗐지만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sup>56)</sup>

이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을 비롯한 친밀성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 형태는 아직까지 가족 제도 밖에 머물며 주거 정책 외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형태는 급격히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도가 한발 늦게 따라오며 이들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놓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춰 좀 더 전향적인 가족의 개념을 구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입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이들에게 놓인 주거 불안을 예방해야 한다. 구술자들 역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트너십을 많이 언급할 정도인 만큼 이 제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한다.

“동성혼 법제화가 되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부부로 인정이 됐으면, 청년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대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집을 갚을 거고요, 이 집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거주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신혼부부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서...”

B씨,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0대

“사실 전세 대출이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을 때, 신혼부부로서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대출이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갚을 수 있거든요? 그 능력 충분히 되는데 우리집에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빌릴 수가 없애니...라는 그런...”

C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0대

“이제 좀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좀 뒤져보니까 신혼부부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이 꽤 있는 것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중략)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J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56) 황두영, 「'가족' 한계 인정한 정부, 다양성 포용 우선순위로」, 『시사인』, 2021. 5. 18.

“(신혼부부와 달리) 그거를 저희는 이제 파트너고 함께 살 거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도 모든 걸 저희 둘이 둘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더 이제 이웃의 신혼부부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밉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어쩔든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쩔든 이제 그 주거 정책에서 신혼부부 말고는, 그게 어쩔든 가족관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살고 있고 실상 거의 생활하는 건 다를 바가 없는데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생활동반자법이 꼭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게 가장 1차적으로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들이 있겠지만... 어쩔든 생활동반자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O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은 혈연, 혼인 중심의 협소한 가족개념에서 그때그때 특정 유형의 가족을 하나씩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 가족을 추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차별적일 수 있으며,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sup>57)</sup>

비록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러한 협소한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소수자 커플들은 또 다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할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이 정상가족과 동등한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

##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상술했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선정 체계는 혈연 및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정상가족의 틀에 갇혀 있다. 나이, 부양자 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선정 체계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비혼 가구, 1인가구 등의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인가구의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불리는 원룸(5평)을 중심으로 공급하다 보니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청년을 비롯한 비혼 1인가구를 임시적, 과도기적 존재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이다. 요컨대 정부는 1인가구가 임시적, 과도기적 세대이기 때문에 좁고 불편한 원룸형 주택을 이들의 정책으로 제공할 수 있다.<sup>58)</sup> 잠시 불편하게 살다가 이성애적 정상가족을 이룬 후 안락한

57) 송효진,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2021. 3. 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0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04)

58) 민달팽이유니온, '[논평]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호명하는 시민은 누구인가', 2019. 10. 8.

<https://minsnailunion.net/comment/?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

집으로 대출을 얻어 이동하라는 것이다. 즉, 청년 1인가구 정책 역시 정상가족 시선(재생산적 시간성)에서 작동하며, 이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따라서 비혼 혹은 1인 가구 청년 성소수자들이 향후 전망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는 매우 협소하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상가족을 이룰 수 없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상향이동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운 좋게 현재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 1인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주기간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주거 불안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이 향후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1인가구에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이지만, 이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산점을 주고 수도권외 경우 경쟁률도 높아 쉽게 이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행복주택)도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에 들고 괜찮은데... (입주 기간이) 6년까지잖아요.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6년 지나면 또 이 비슷한 데를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좀 되게 애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득 수준이... 이제 저는 계속해서 호봉이 오르고, 지금도 사실 뭐 연봉 이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임대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되게 뭐가 되게 애매하다. 1인 가구가 살... 양질의 집에 살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J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일단 저도 이게(행복주택이) 6년이라고... 끝나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행복주택을 이용을 했고, 그 이후가 사실은 되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임대주택으로 해서는 2인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나마 1인으로서 제가 국민인데 좀... (중략) 근데 국민임대가 기준이 좀 바뀌면서. (중략) 그러니까 1인일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는 (월) 230만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일단은 국민임대밖에 내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한데, 그것도 이제 지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대학원 박사 과정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득은 낮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 기준이 넘을 가능성이 높고. (중략) 사실 고소득이면 어떤 상황이 됐든 다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저소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게 다 비껴나가다 보니까~”

K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30대

J씨와 K씨는 현재 행복주택에 살고 있지만 둘 다 입주 기간 이후의 주거가 고민이다.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끝난 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은 1인가구 국

민임대주택이 있지만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소득수준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민간 시장에서 집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와 월세를 구하며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의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과 획일화의 문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 안정 기회를 축소한다. 가령 서울시는 최근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자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렸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공간을 다양화하며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줄이며 이들의 물량을 제공한 것이다.<sup>59)</sup> 일종의 파이 싸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다보니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이외의 집단은 오히려 주거 안정의 기회 놓치고 있다.

“새로 생긴 이런 것들은 다 신혼부부 중심이어서, 내가 누구랑 계약결혼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N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사실 역곡, 재개발 하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보니까 신혼희망... 그 주택 이름이 뭐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걸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행복주택 같은 것도 없고, 국민임대도 없고. 신혼희망주택이다 보니까 그것도 신혼들한테 “너무 작다”라는 약간 비판을 받지만, ‘그 정도만 되도 너무~ 만족스럽겠다.’라는 약간 부러움이 저는 좀 났어요. 그게 사이즈도 투룸 정도였고, 그리고 신혼희망, 거기 신혼희망타운은 구입자금도 되게 이자가 싸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싸게 분양 받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K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30대

따라서 성소수자 1인가구가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의 제공과 다양한 1인가구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인구와 가구 변화에 맞춰 1인가구 지원을 청년세대로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성소수자 1인가구도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여 성소수자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59) 참여연대,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 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18, 11, 21.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97393>

## ■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주거 안정화

성소수자 주거 불안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다. 구술자들이 얘기한 사례만 살펴봐도 성소수자들은 이웃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웃팅의 위험,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사회제도로 인한 취업과 생활의 불안 등 다차원의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며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필요한 주거 정책을 말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종종 언급했다. 구술자 E씨의 경우 성소수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씨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불관용이 강화되면 가족 구성권의 논의도 충분히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파트너십과 주거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바라본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빨리 제정이 돼서 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족구성권,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에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권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행복권이나 결혼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합의. 대통령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돼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저는 먼저 돼야 소수자들에 관련된 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먼저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주거권, 우리에게 대한 가장 기본권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E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물론 E씨가 말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권 논의와 성소수자의 주거권 논의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성소수자들이 직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성적체성의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경험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이들의 주거 안정 기여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만약 앞 절에서 사례로 든 F씨(트랜스여성, 30대)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았다면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양호한 주거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성소수자의 주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안정망 확보 이외에도 파트너십 인정과 차별금지법과 다양한 영역의 제도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 ■ 주거위기 성소수자 지원 체계 마련

D씨는 원가족 어머니로부터 아웃팅을 당한 후 심한 언어폭력과 학대를 경험했다. 이 학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D씨는 아무 준비 없이 급작스레 원가족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머물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원가족 집을 나온 D씨는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고 학교 동아리방에서 지낸 등 주거위기의 삶을 몇 달간 보내야 했다. 이 시기 스스로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거처 없는 삶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눈치보는 삶을 견뎌야 했다.

“한 주 살다가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주 살고 그 생활을 이제 11월까지 반복을 좀 했던 거였어가지고, 이사한 횡수를 따지면 아마 열 번이 넘을 거예요. (중략) 일단은 가장 불안했던 거는 정말로 제가 언제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불안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지금 친구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제 바로 앞에 일주일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는 이제 언니나 집에 있을 때, 언니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주 정도 후에는 이제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혹시 잠깐만 묵어도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해야 하는 건데. 또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정말 미안한 얘기고, 친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언제 정말,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안이 진짜 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오는 불안이 진짜 컸고, (중략)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동아리방에서 잤거든요. 동아리방에서 한 달 넘게를 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더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사실 이제 뭐 더 이제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동아리 방에서 한 달 반을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늦가을이었어서 밤에 일단 난방이 안 돼서 밤에 진짜 추웠었고, 그리고 사실 동아리 방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당장에 뭐 씻는 문제, 샤워나 문제 그리고 이제 자는 것도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허리도 그때 너무 좀 아팠던... 그런 것도 있었고.”

D씨, 트랜스여성, 레즈비언, 20대

A씨도 D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때 주거비 절약을 위해서 학교 선배와 자취를 한 적이 있는 A씨는 이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A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변에 캐묻고 다니며, 자신의 의지대로 A씨를 통제하며 가스라이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A씨가 자신의 얘기를 잠깐 나눴다라는 이유

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선배의 전 여자 친구와 A씨는 학교 동기라 친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그 선배의 안부를 종종 얘기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폭력을 당하며 자취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한 달 간 지인들의 집과 낯선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며 위험한 생활을 해야 했다.

“왜 나랑 헤어진 애 앞에서 내 얘기를 해서 개를 상처받게 만드냐”라는 이유로 저를 때렸어요. (중략) 제가 뺨을 맞았거든요. 그 때 정신이 딱 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두 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을 다 싣고, 택시를 불러서 거기에 싣고 친구한테, “나 미안한데, 나 집을 안정적으로 구할 때까지 너희 집에다가 짐을 맡겨두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좀 길게 지내던 친구 집도 있었고. 뭐 잘 데 없으면 어플 뒤적거리서 찾아서 자기도 하고.”

A씨,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게이, 20대

만약 A씨와 D씨가 주거복지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 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 주거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위기에 처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해 쉼터와 임시 거처를 연결해주고,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소수자는 이 지원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연계하는 쉼터와 임시 거처 등이 이원적 지정 성별로 운영되고 있어, 성소수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성소수자의 주거위기에 관한 내용과 맥락 자체가 공론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성소수자 위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주거복지센터나 지자체에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웃팅되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폭력과 학대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주거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직장을 잃으면 법적 성별 불일치 문제로 재취업이 힘들어 주거위기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성소수자들의 주거위기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성소수자들이 주거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주거위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이 주거위기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거처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에게 주거위기는 상존하기에 이 두터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 주거 정책 관련 정보의 접근성 강화

주거위기를 겪은 A씨와 D씨는 다행히 LH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와 D씨 모두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다보니 주변에서 주거 정책 이용에 관한 정보나 조언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정보 탐색 및 이용에 능숙해 주거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능숙하게 이용할 수 없는 성소수자들도 많다.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접근을 했어도 단어와 문장의 표현이 어려워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몇몇 구술자들은 주거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일단 말들이 사실 너무 어렵고요, 제가 배움이 많은 편이 아니다보니까. 딱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많고 어려워서 어떤 걸 눌러서 막...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F씨, 트랜스여성, 30대

F씨의 경우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적 트랜지션 이후 인관 관계에서 불안증이 더 심해진 상태다. 그녀가 거주하는 곳은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고시원 방이어서 이 증상들이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F씨의 건강을 위해 좀 더 양호한 주거 공간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녀의 상황에서 이주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F씨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 정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단어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의 불편함으로 이용을 하지 못했다.

안드로진 D씨도 F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D씨 역시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도 휴학을 한 상황이다. 거의 하루 종일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D씨는 이곳에서 여성으로 성별 확정을 당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살펴봤지만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그녀는 무기력증과 우울증 등의 이유로 긴 문장을 읽지 못하고 독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좀 더 간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게 어려운 점, 저한테 어려운 점이 정신질환 이 좀 심해지면서 긴 텍스트를 못 읽고, 약간 글자 따로 여백 따로처럼 보여서 이 텍스트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휴학을 한 것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휴학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공고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다 막 섞여가지고 이 정보를 해독을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서 포기하게 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G씨, 안드로진, 20대

F씨와 D씨뿐만 아니라 구술자들도 공통적으로 주거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선별해놓은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은 많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온라인 사이트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온라인 사이트 구축과 더불어 주거 정책 관련 안내를 도울 수 있는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 탐색이 용이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다양한 성소수자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4장

요약 및 결론



## 4장 요약 및 결론

### ■ 설문조사 내용

성소수자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 등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일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거 현황, 주거 불안, 주거 선택, 주거 이력, 주거 정책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 949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조사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31.3세로 조사된 만큼 청년세대의 참여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시스젠더 남성이 과반수(52.4%)로 참여했기에 본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인구총조사나 주거실태조사 등과 비교하며 성소수자 주거 실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성별정체성, 젠더비순응 정도의 차이에 따라 주거 불안, 주거 환경, 주거 선택 요인 등이 다르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선택과 거주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력, 일자리 유형, 월수입 등이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정체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정체성이 시스젠더 남성, 여성과 비교해 최종학력은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았으며, 더 적은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1.2%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 61.0%,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역시 76.6%로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응답자의 32.9%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었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 50.8%,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48.1%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에 따라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월수입이 200만원 대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72.9%인 반면 시스젠더 여성은 88.9%, 트랜스젠더 9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95.2%로 조사되었다. 물론 시스젠더 남성 참여자의 연령이 34.1세로 평균보다 높고 타 정체성보다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성별이분법이 견고한 직장문화로 인해 입사 문턱에서 좌절해야 하는 트랜스젠더들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차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성소수자들은 「2019 인구총조사」, 「2019 주거실태조사」 등의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아파트보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자가나 전세보다 월세로 더 많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1인 가구 비중은 물론 옥탑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중 또한 높았다. 「2019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30대

4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달리 성소수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13.4%에 불과했으며 41.3%가 단독,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등에 지원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혜택이 있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17.6%(167명)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 중심 주거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응답자의 1인 가구 비중은 71.3%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30.2%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2019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가로 주거를 점유하는 20-30대가 12.7%인 것과 달리 성소수자의 경우 6.6%에 불과했으며, 과반수(53.0%)가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이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이 7.5%인 것과 달리 「2019 주거실태조사」 청년세대의 경우 3.5%(전체 1.3%)에 불과했다. 이는 성소수자 주거 불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주거환경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시스젠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월수입이 적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런 현실은 집의 면적과 방 개수, 주거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의 평균 44.5%가 10평 미만의 전용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트랜스젠더는 62.2%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52.5%가 10평 미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평균 36.5%가 구분된 방이 없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트랜스젠더는 53.7%,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45.2%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 월수입에서 주거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9%로 조사되었지만, 트랜스젠더는 30.5%,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28.5%로 조사되었다.

셋째, 성소수자들은 주거선택 시 '주거비'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었고, 거주하는 지역에 성소수자 공동체 존재 여부가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주거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로 주거비(22.0%), 집의 상태와 주거 품질(21.1%) 순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성소수자 공동체 존재 여부는 10가지 항목 중 가장 낮게(1.7%) 고려했다. 이는 우선순위에서는 낮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소수자 공동체 존재 여부가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 질문을 했을 때 37.4%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산)고 응답했다. 여기서 정체성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드러난다. 시스젠더 여성(57.0%), 논바이너리/젠더퀴어(49.2%)와 달리 시스젠더 남성(31.9%), 트랜스젠더(25.6%)는 주거 선택 시 성소수자 공동체 여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추론을 하자면, 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주변의 혐오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주거공간과 성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을 성소수자 공동체와 관계에서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고, 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의 경우 주변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으로 인해 사는 곳에서조차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정체성을 노출할 수 있는 물품을 감추는 등 적지 않은 불편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스젠더의 경우 젠더 비순응일수록 이 불편이 더 높았고,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보다 2배 가까운 불편을 더 경험하고 있었다. 응답자 25.6%가 주거 불안을 경험했다고 조사되었고, 트랜스젠더는 42.7%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주거 불편을 경험했다. 응답자들이 직접 서술한 주거 불안의 경험사례를 범주화해보면,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 ‘이웃 관계 위축 및 최소화’, ‘사생활 간섭’, ‘제로로부터 소외’, ‘아웃팅 위험’, ‘이성에 규범적 언설’, ‘파트너 관계 숨김’ 등과 같이 다양한 사례로 주거 불안을 범주화할 수 있었다. 심지어 ‘폭력과 학대’의 사례도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의 경험들은 성소수자들의 정주성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조차 이들은 아웃팅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의 양상들은 다음 장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성소수자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었다. 「2020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으로부터 적정 독립 나이가 26.1세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독립 시기는 23.5세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48.2%가 학교,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의 문제로 독립을 했지만,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결과는 ‘가족 내 정서적 물리적 고통과 학대 등으로 독립’한 경우가 10.4%,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독립을 했다’는 응답도 5.1%나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23.2%가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독립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4배가 더 많다. 이는 트랜지션 등으로 외모의 변화가 가져올 원가족과의 불편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은 독립의 시기와 과정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기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갑작스럽게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실태와 주거불안의 요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파악해볼 수 있었다. 성소수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서조차 자신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불편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주거지원 혜택에서조차 배제되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더라도 관계 단절을 통해 오히려 고립된 삶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고 있다.

## ■ 면접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면접자 17명을 선정해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수자가 겪는 주거 불안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추상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은 불안, 긴장, 불편의 의미로 재현되었다. 그들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은 정체성을 숨겨야 할 장소로 이해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언제든지 부모와 형제들에게 아웃팅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항상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신의 정체성 표현을 단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에게 원가족 부모의 집은 거처의 의미는 갖지만 사적인 공간, 정체성의 근원, 그리고 안전한 장소와 같은 의미는 갖지 못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행하고,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때는 그들이 원가족 집으로부터 독립해 자신만의 집을 얻을 때였다.

구술자들은 처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집을 구했을 때의 경험을 ‘편안’, ‘안정’, ‘눈치보지 않는’, ‘신남’ 등으로 표현하며, 자유로워진 상황을 묘사한다. 무엇보다 원가족 부모 집의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데서 “이제야 살 것 같은” 생존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독립의 기쁨은 집꾸미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들이 원가족 부모 집에서 숨겨야 했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배치하며 자신만의 집을 꾸몄다. 이런 집 꾸미기는 거주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전시한다. 성소수자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집에 걸고, 커플 사진 액자를 전시하며, 퀴어 관련 책과 포스터, 홍보물을 집안에 배치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을 매개로 표현하고 재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지고 관리되는 집은 거주자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재생산하며 정체성의 근원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성소수자의 집이 항상 정체성의 근원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은 가족과 외부인의 방문에 의해서 쉽게 허물어지기도 하며, 이웃들에 의해서 항상 침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침범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주거 불안에 처한다. 성소수자들은 부모나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장식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물품들을 숨겨야만 했다. 이 물품들이 이들에 눈에 띄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아웃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품을 숨기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의 공간을 부정하며 자신의 집을 낮설게 만든다. 이들은 물품을 숨길 때 감정을 ‘스트레스’, ‘기분 나쁨’, ‘괴로움’으로 표현하며 그때의 불안을 재현한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소외의 경험과 교차한다. 소외는 ‘관계 상실의 관계’이며, 주체가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전유 능력의 상실)로 규정한다. 여기서 관계란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주체가 자아와 적절한 관

계를 맺지 못하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 관계를 함의한다. 예컨대 성소수자는 집에서 장식품과 물품을 전시하며 성소수자로서 자아의 관계를 전유한다. 동시에 이 물품을 매개로 집이라는 세계(외부)를 자신의 의지와 목적대로 전유하며 귀어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외부인의 방문으로 방해되며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집)의 관계를 상실하고 부정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소외로 경험되는 주거 불안은 외부인의 방문과 같은 간헐적인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은 이들의 주거 불안을 상존시킨다. 특히 파트너와 동거하는 성소수자들은 이웃들의 시선을 인식하며 자신들의 친밀한 행동을 단속한다. 행여 자신들의 관계가 이웃들에게 노출될 경우 혐오의 시선과 표현으로 이들의 정주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전월세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은 이웃들의 시선으로부터 매순간 주거 불안을 겪는다. E씨의 표현대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예민”하게 되며 설 새 없이 파고드는 주거 불안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불안은 자신 혹은 파트너와 관계를 부정하는 소외로 인식되며, “불편함”, “피곤함”, “무력감”과 같은 감정의 상처로 경험된다.

성소수자는 주변 관계에서만 주거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 주거 정책에서도 배제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한다. 국내 주거 정책이 성별 이분법과 이성(異性)간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정상가족 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예를 들면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이분법으로 운영되는 대학 기숙사에 접근하지 못하며 주거 불안을 겪는다. 또한 주택 청약제도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여기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그리고 성소수자 커플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주는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주거 상향 이동을 제한받는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여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게 더 중층적으로 작용한다. 여성 성소수자가 겪는 주거 불안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배제에 성 차별이 더해지며 이중의 억압과 차별로 전개된다. 이 이중의 억압과 차별은 특히 원가족 부모의 집에서 많이 경험된다. 가족 내부에서 기대되는 가부장적 딸의 역할과 결혼의 요구는 이성에 규범의 강요와 섹슈얼리티의 통제로 겹쳐지며 여성 성소수자들의 이중의 억압과 차별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원가족 부모 집은 가부장의 시선이 작동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판옵티콘의 공간으로 경험된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독립 이후 삶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여성 성소수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트너와 합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파트너와 합가는 양가성을 갖는다. 이는 주거비 절약이라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둘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주거 불안을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더불어 여성 성소수자는 여성이라는 소수자성과 성소수자라는 소수자성으로 인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여성 성소수자들은 주거선택 시 안전

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안전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된 양상을 전개된다. 한국은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분증명(주민등록번호)을 필수적으로 요구받는다. 주민등록증의 법적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에게 한국 사회의 주민등록제도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 영역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며 차별과 배제의 선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살펴본 트랜스여성 F씨는 법적 성별 불일치로 인해 구직이 쉽지 않아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F씨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을 하려했지만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 남성 관련된 일만 소개받았다. 직접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이 법적 성별 불일치는 취업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F씨는 현재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을 벗어나지 못하며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안드로진 G씨의 경우 주변에서 여성으로 확정하고 오인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겪고 있다. 성별 이분법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G씨의 외모에 항상 의구심을 보이며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하나의 성으로 G씨를 판별하며 그/그녀를 오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G씨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는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며 주거 불안에 놓인다. 따라서 성소수자에게 이를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는 바로 이런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상연하며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수자의 주거권을 얘기할 때 단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

## ■ 대안 요약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상가족 틀에서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편이다. 성소수자들은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지에서 지우면서 주거 불안의 위험을 높인다. 성소수자 1인가구의 경우 청년세대일 때는 행복주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성소수자들이 주거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가족 틀을 개편하고 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주택, 공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영역을 활성화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 커플의 파트너십을 인정해서 이들이 주택 마련 시 신혼부부와 같은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성소수자 커플이 제도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 구

체화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서 이들의 주거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를 예방해야 한다. 이들이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거 불안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성정체성의 문제와 아웃팅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공적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 우리가 사례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수자들은 정체성 문제로 주거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심한 경우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거 상담도 병행해 이들이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의 세계에서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많은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은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수면 아래에 있던 성소수자들의 주거 문제를 대중에게 드러낸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성소수자 주거 문제가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서기를 바라본다.



# 부록

## ■ 설문지



## 부록

### ■ 설문지

####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다음세대재단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성소수자 주거 실태 및 주거 불안에 관한 조사>입니다. 본 설문은 만 19세 이상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한 설문은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확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응답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조사에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응답 사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12월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문의: [urbanstudy78@gmail.com](mailto:urbanstudy78@gmail.com), [zacchaeus74@gmail.com](mailto:zacchaeus74@gmail.com)





항목	시설 유무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거실							
2) 베란다 (발코니, 세탁실 등)							
3) 화장실							
4) 주방							
5) 샤워시설							
6) 냉방시설							
7) 난방시설 (기름 혹은 가스보일러)							

8.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관련 사항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좁다					
2) 별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3) 환기가 잘되지 않는다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5) 층간 소음, 벽간 소음 등 소음이 심하다					
6) 해충 등으로 위생이 나쁘다					
7) 천장, 벽 등에 물새는 곳이 있다					
8) 건물이 낡아 위험하다(균열, 꺼짐 등)					
9) 화재 시 위험하다					
10) 건물 안팎으로부터 침입에 취약하다					
11)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불편하다 (부엌 등)					
12) 안팎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9.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주변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사항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생필품, 생활용품을 구하기가 불편하다					
②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③ 치안이 불안해 다니기 무섭다.					
④ 위생환경이 불량하다. (ex 무단쓰레기투기, 벌레 등)					
⑤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ex 산책로, 공원, 녹지 등)					
⑥ 이용할 문화/부대시설이 별로 없다 (ex 카페, 도서관, 극장 등)					
⑦ 성소수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하기 불편하다					

10. 귀하는 주변 이웃과 어느 정도 교류하십니까?

- ① 교류하지 않는다(10-1번 문항으로)      ② 인사 정도는 한다(11번 문항으로)  
 ③ 가끔 이야기 한다(11번 문항으로)      ④ 자주 어울린다(11번 문항으로)

10-1.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우선순위로 두 개만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②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  
 ③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      ④ 자주 이사를 해야 해서  
 ⑤ 기타

#### IV

#### 주거 부담 및 주거 선택

11. 귀하는 현재 주택을 얻기 위한 대출이 있습니까?

- ① 예(1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12번 문항으로)

11-1. 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19. 집 계약 시 임대인, 중개인과 관계에서 어려운 점을 경험하셨습니까?

- ① 예(1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20번 문항으로)

19-1.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요.)

- ① 계약서, 임대차계약법을 잘 몰라서      ②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  
③ 관리비, 임대료 등 주거비용 문제      ④ 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⑤ 기타

20. 귀하는 주거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요.)

- ① 가족 (친인척 포함)      ②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③ 성소수자 친구, 지인  
④ 비성소수자 친구, 지인      ⑤ 이웃    ⑥ 종교 단체  
⑦ 성소수자 지원단체      ⑧ 학교    ⑨ 시민단체  
⑩ SNS    ⑪ 기타

## VI

## 주거 이력

21. 귀하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몇 세에 처음 독립하셨습니까?(\_\_\_\_)세

22. 귀하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직장 등과 사는 곳의 거리·교통·이동시간의 문제로  
②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독립(커밍아웃, 아웃팅 등)  
③ 독립하고 싶어서 (혼자만의 공간 필요, 다른 형태의 주거 경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등)  
④ 가족 내 정서적/물리적 고통과 학대 등으로 인해서  
⑤ 친구/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근접한 곳에 살기 위해  
⑥ 파트너(애인)와 함께 살기 위해서  
⑦ 기타

23. 현재 사는 집이 원가족(부모)으로부터 처음 독립한 집입니까?

- ① 예(2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23-1번 문항으로)

23-1. 귀하가 원가족 부모로부터 처음 독립했던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다가구주택 (한 건물의 집주인이 1명인 경우)
- ② 연립/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가구별 집주인이 다른 경우)
- ③ 아파트
- ④ 오피스텔
- ⑤ 고시원/고시텔 등
- ⑥ 기숙사
- ⑦ 비거주용 건물
- ⑧ 기타(\_\_\_\_\_)

23-2. 처음 독립했던 집의 평수는 얼마였습니까?

- ① 5평 이하
- ② 6평 이상 10평 미만
- ③ 10평 이상 15평 미만
- ④ 15평 이상 20평 미만
- ⑤ 20평 이상 25평 미만
- ⑥ 25평 이상 30평 미만
- ⑦ 30평 이상 35평 미만
- ⑧ 35평 이상 40평 미만
- ⑨ 40평 이상

23-3. 처음 독립했던 집의 가구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1인 가구(24번 문항으로)
- ② 다인 가구(23-4번 문항으로)

23-4. 귀하는 처음 독립했던 집에서 몇 명이 함께 사셨습니까? (본인 포함\_\_\_\_\_명)

23-5.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파트너(애인, 부부 등)
- ② 자매, 형제, 친척 등
- ③ 성소수자 친구, 동료
- ④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 ⑤ 기타

24. 귀하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기간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 기간 등 아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 ① 독립한 지 ( )년 ( )개월
-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 )년 ( )개월
- ③ 독립한 후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는 총 ( )번

## VII

## 주거 정책

25. 귀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2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25-2번 문항으로)

25-1. 어떤 정책을 이용하셨습니다가?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공공임대주택                      ② 전세임대주택                      ③ 전세자금대출  
 ④ 구입자금대출                      ⑤ 월세대출                      ⑥ 임차보증금지원  
 ⑦ 주택바우처                      ⑧ 주거 급여(기초생활보장제)                      ⑨ 기타

25-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 ① 뭐가 있는지 몰라서                      ② 이용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돼서  
 ③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④ 선정되었으나 주거공간과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⑤ 선정되었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⑥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이용하지 않음  
 ⑦ 신청방법과 절차가 어려워서                      ⑧ 기타(                      )

26. 귀하는 성소수자를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2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27번 문항으로)

26-1. 귀하가 생각하는 성소수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                      )

27. 성소수자가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VIII

인구학적 특성

28.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2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상	인지 여부
1) 어머니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해당 사항 없음 (부모님의 사망 등)
2) 아버지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해당 사항 없음 (부모님의 사망 등)

38. 부모님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귀하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상	알게 된 방식
1) 부모님을 제외한 원가족 구성원(자매, 형제, 남매)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다 ③ 일부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⑤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 제외한 직계 가족 없음)
2) 그 외 친척들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다 ③ 일부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⑤ 해당사항 없음 (그 외 친척들 없음)
3)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다 ③ 일부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⑤ 해당사항 없음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없음)
4) 성소수자 친구, 동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다 ③ 일부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⑤ 해당사항 없음 (성소수자 친구, 동료 없음)

■ 설문을 완료하신 분께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답한 자료가 면접조사 질문 구성과 피면접자 선정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면접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며, 인터뷰 내용들은 성소수자 주거 정책 마련에 활용됩니다.)

예

아니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